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Vol. 9 (1999)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제9호 (1999년)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김성군 변호사

저희 법률 사무소는 교포 여러분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군 변호사

- * 서포크 법과 대학원 J.D.
- * 주법원 판사 보조
- * 매사추세츠주 국제 투자 개발원 근무
- *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졸업
- * 성균관 대학교 졸업
- * *Gargill, Sasson & Randolph, William Diller*
합동 법률 사무소 근무

❑ 교통 사고 및 처리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 ◆ 교통 사고 피해 보상
- ◆ 교통 사고 후유증
- ◆ 취중 운전

❑ 이민법/국제 투자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 영주권 이민 / 투자 이민 수속
- ◆ 장단기 취업 비자 취득
- ◆ 유학생 비자 변경

❑ 사업체 설립 및 매매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 작성
- ◆ 사업체 매매 계약서 작성
- ◆ 리스가 만기되어 갱신하는 경우
- ◆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 라이선스가 필요하십니까?

- ◆ BEER/LIQUOR 도매 소매 허가증
- ◆ 각종 허가 변경 및 갱신

❑ 가정법

- ❑ 상용 및 주거용 부동산 구입 및 판매
- ❑ 법정 통역, 공문서 번역, 공증

상해 보상은 변호비용 부담이 전혀 없으며, 소송의 완결, 성공 이후에만 지불합니다.

Tel:(617)482-1300 Fax:(617)482-3344

Song-Kun Kim, Esq.

294 Washington St., Suite 752, Boston, MA 02108



Published by: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11 Bartkus Farm Road
Concord, MA 01742
Tel: (978) 369-0351, (603) 659-6732
Fax: (978) 371-1217, (603) 659-5488
<http://www.KACL.org>

Publisher: Hong Kyun Choi

Editorial Board Advisor:

Kyung Min Park

Editor-in-Chief: Eui In Lee

Editors: Michael Kim, Moon So Kim
Song-Kun Kim, Kyung Won Park
David Park, Kay Dong
Byoung Kyu Lim, Steve Ham

Printing: Bigwood Press

발행처: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발행일: 1999년 10월 23일

발행인: 최 홍균

편집고문: 박 경민

편집장: 이 의인

편집위원: 김 명기, 김 문소, 김 성군
박 경원, 박 대위, 이 경해
임 병규, 함 성기

인쇄: 큰나무 인쇄소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was established on August 18, 1990 to provide a coherent political voice within the community. The goals of the League are to encourage active Korean-American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to educate Korean-Americans about their right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American citizens, to enhanc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merica, and to contribute unique Korean elements to American society. To this ends, KACL has performed the following activities:

1) Voter Registration Drive within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The League has been working to increase voter registration by writing articles in the local news media, sending mail to the Korean-American citizens in New England, and employing various other methods.

2) Assisting Preparation for Citizenship Application:

The League has published the "Citizenship Test Guidebook" in both English and Korean, provided free classes on the citizenship test, and sponsored written tests on U.S. government and history in both English and Korean. Also the League has provided free Citizenship Workshops twice a year since 1997.

3) Supporting Political Interns:

KACL has supported Korean-American political interns who would be interested in pursuing political careers by providing financial support and opportunities to work in Senator's and governor's offices.

4) Endorsing and Supporting Politicians:

KACL has endorsed politicians who support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including William Clinton, Edward Kennedy, William Weld and Scott Harshbarger.

5) Lobbying:

The League has lobbied for and against passage of laws affecting rights of Korean-Americans, including a letter-writing campaign to the U.S. President and Congressmen against passage of the welfare and immigration reform bill.

6) Public Relations Campaign:

KACL has publicized its activities to both Korean-Americans and non-Korean-Americans by publishing journals and newsletters, writing articles, placing advertisements in local news media, and direct-mailing to Korean-Americans.

Page

3. 발간사	회장 최흥균
Message from the President	Hong Kyun Choi, President
5. 5년 거주 요건과 바뀐 시민권 신청 행정	부회장 김성균
Updated Guide to Obtaining Citizenship	Song-Kun Kim, Vice president
6. 격려사	Bob Smith, United States Senator, New Hampshire
Congratulatory Messages	Argeo Paul Cellucci, Governor, Massachusetts
	Jeanne Shaheen, Governor, New Hampshire
	John G. Rowland, Governor, Connecticut
	Lincoln Almond, Governor, Rhode Island
	John E. Sununu, United States Congressman, First District, New Hampshire
12. 이사장 인사 말씀	이사장 박대위
Message from the Chairperson	David Park, Chairperson of the Board
14. 시민협회 활동 보고	사무총장 김명기
Activities of the League During FY 1999	Michael M. Kim, Executive Director
18. 21세기의 재미 한인사회를 누가 이끌어나갈 것인가	고문 박경민
Who Will Lead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of the 21st Century?	Kyung Min Park, Advisor
24. 아시아인 아메리칸의 변화에 대한 도전	폴 와다나베
The Challenge of Change for Asian Americans	Paul Y. Watanabe, Associate Professor, UMass Boston
25. 아시아인 단체 소개	
아시아인 아메리칸 연구소	폴 와다나베
The Institute for Asian-American Studies	Paul Y. Watanabe, Co-director
아시아인 아메리칸 위원회	남반팜
Asian-American Commission (AAC)	Nam Van Pham, Co-chair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칸 정책 연맹	마이클 류
Asian Pacific American Agenda Coalition (APAAC)	Michael Liu, President
29. 정치 인턴 보고	이대성
A Report from the Political Intern	David Dae Sung Lee
	김윤관
	Daniel Yoonkwan Kim
	박사라
	Sarah Park
33. 대통령 시행령	미합중국 대통령 윌리엄 클린턴
Executive Order (June 7, 1999)	William J. Clinto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36. 내 고향 생각	크리스 타드
Memories of My Homeland	Chris Todd
38. 21세기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김연숙
Economic Update - Approaching the New Millennium	Yon Kim Corkum, Spokesperson
40. 리스에 관한 일반 상식	부회장 이경해
The Lease: Buyer and Seller Be Aware	Kay Dong, Vice president
41. 시민협회에 참여하고 도와주신 분들	1999년도
Benefactors to the League	FY 1999
42.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헌장	(1996년 10월 19일 개정)
Constitution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Amended on October 19, 1996)
46. 협회 임원, 이사 명단 및 주소록	(1999년 10월 23일 현재)
Directory of the Officers and Board of Directors	(As of October 23, 1999)
48. 재무 보고	재무 함성기
Financial Report	Steve Ham, Treasurer
49. 이민 사회 관련 연방 법과 정책	미주 한인 봉사 교육단체 협의회
Legislative Issues Affecting Immigrant Communities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
52. 2000년도 인구 조사에 대하여	미주 아시아인 태평양 아메리칸 법률 협의회
Census 2000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onsortium
55. 시민협회 입회원서 (Membership Application)	
57. 뉴잉글랜드 지역 업소 전화록	
59. 개인, 업소 및 단체 광고	

기타 기사: 35. 「재외 동포」 용어의 정립
 35. 편집후기
 48. 2000년도 예산
 54. 협회 주요 사업 계획

시민협회 회장직을 맡은 지난 1년 동안 이문열 전 이사장님과 박대위 부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사님들, 고문님들, 회장단 여러분, 그리고 그 동안 시민협회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 덕택에 대과 없이 지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2세 지원 사업으로 정치 인턴 후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이미 인턴으로 뽑힌 학생 한 명을 지원한 바 있었는데, 금년에는 네 명의 학생들을 선출하여 시민협회의 주선으로 여름 방학 동안 Kerry 연방 상원의원, MA 주지사, MA 검찰총장, MA 주 하원의원 사무실에 각각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중 한 학생은 가을부터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MA 주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쌓은 젊은 한인 2세대들이 장차 미국 정계 및 관계에 많이 진출하여 성공할 때 우리 한인들의 정치력이 크게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인턴들이 여름에 무보수로 일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각각 \$1,000의 장학금을 수여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4월 10일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약 200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는데, 참석하여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특히 사회를 맡아 주신 Channel 7 뉴스의 Kristy Kim, 좋은 말씀을 해주신 Indian American Forum for Political Education의 Gope Gidwani씨, 그리고 한국 전통 춤의 공연을 위해 와싱턴 주에서 와주신 셋별 전통무용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 한인 단체가 주관한 행사로서는 처음으로 영어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영어만을 사용하는 2세대들과 다른 미국인들을 적극 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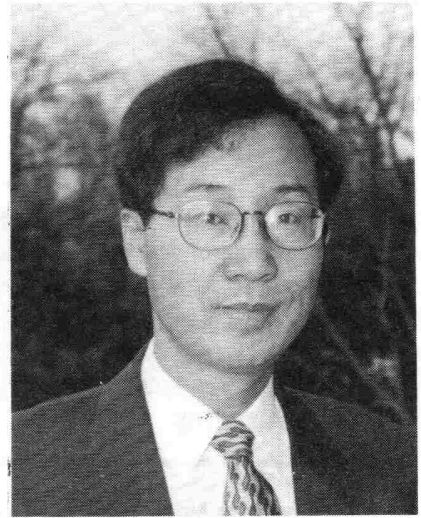
1년에 한 번씩 열렸던 시민권 신청 보조 행사를 지난 1년 동안 두 번 개최했습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비가 \$95에서 \$225로 대폭 인상되기 전에 열렸던 작년 12월 19일의 행사에는 약 100명의 신청자가 참가하여 많은 분들의 신청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권 취득 보조 행사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니 아직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민협회는 Asian American Unity Fund에

서 받은 \$2,500의 기부금과 자체 경비를 합해 법과 민권 소개 책자 3,0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했던 "법과 생활"과 University of Massachusetts 산하 Institute for Asian American Studies (IAAS)에서 발행한 "Civil Rights Resource Guide"를 번역하여 합본으로 발간한 것입니다. "법과 생활"에는 미국의 법률 제도와 변호사제도 및 형사 재판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아울러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의 처리와 민사재판이나 소액청구를 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민권 안내서"에는 혐오성 범죄나 각종 차별에 대한 설명과 피해를 당했을 때 연락할 기관들의 주소와 전화 번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시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책자 발간을 맡아 수고해 주신 이의인 출판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호에는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아시아인 단체중 Institute for Asian American Studies (IAAS), Asian American Commission (AAC)와 Asian Pacific American Agenda Coalition (APAAC)의 소개를 실었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인 민족 단체들과 같이 협력함으로써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3년 UMass Boston에 세워진 IAAS는 전국적으로 아시아인 아메리칸에 대한 연구를 하는 우수한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AAC는 MA 주지사 산하의 자문기관으로서 아시아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의 해결책을 주지사에 보고함으로써 아시아인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참여해 온 김기자, 최승훈씨에 이어 금년에는 제가 위원으로 선출되어 3명의 한인이 AAC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APAAC은 아시아인의 정치 참여와 정치력 신장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김성군 부회장이 시민협회 대표로 APAAC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현재 경제력이나 우수 대학 진학률로는 지난 10년 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으며, 또한 정치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는 처음으로 Washington 주에서 중국계인 Gary Locke이 주지사로 당선되었고, 고희주 박사가 연방



정부에서 아시아인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인 국무성 인권 담당 차관보로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중국계인 Bill Lann Lee는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민권 담당 최고 책임자인 법무성 차관보 서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상원의원들의 반대로 상원의 인준을 받지는 못했지만 최근 Clinton 대통령은 Bill Lann Lee를 정식 임명하기 위해 상원에 다시 인준을 요청했으며 많은 민권운동 기관들은 상원의 빠른 인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력은 우리 사회의 능력 뿐 아니라 인구 비례에 비해서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가까운 장래에 아시아인 장관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금년 6월 클린턴 대통령은 미국 연방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아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대통령 시행령 (33 페이지에 실린 전문 참조)을 내렸습니다. 이는 현재 연방 정부의 프로그램에 아시아인들이 인구 비례에 비해 적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보건 복지부 장관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관을 보좌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진척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앞으로 아시아인들이 연방 정부의 여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은 인구 조사국에서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의 해입니다. 이번 인구조사는 2000년 4월 1일 당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이 인구 조

사에 모두 빠짐 없이 참여하여 우리의 인구가 실제보다 적게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설문서에 기입하신 자료는 법에 의해 인구 조사용 이외에는 비밀로 하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만일 한국어 설문서를 원하실 경우는 인구 조사국에서 3월 초순에 각 가정에 보낼 편지의 한국어 선택란에 표시하여 보내시면 되고, 설문서는 3월 중순에 받으실 텐데 이를 꼭 기입하여 반송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조사뿐 아니라 시민권 취득 및 유권자 등록,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정치력 신장의 기본입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 결정 및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기관, 정치 단체, 언론 기관에 한인 2세대들이 많이 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협회는 이를 위한 여러 사업들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시원**

I thank Chairman Moon Yeal Lee, Vice Chairman David Park and other Board members, Advisors, members of the Executive Body, and all the members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for their continued support during the past year.

Our new initiative this year was to support summer political interns. Last year, we had supported one student who had already been selected to work as a political intern. This year, KACL selected four students through open competition and arranged for them to work in the offices of US Senator John Kerry, MA Governor Paul Cellucci, MA Attorney General Tom Reiley, and MA State Representative Rogers. I am pleased to inform you that one student is now working part-time in MA Representative Rogers' office while pursuing his graduate studies in political science at the same time. I believe that many of these young second-generation Korean-Americans who choose to pursue careers in public service will

시민협회 회장 최흥균 박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MIT Lincoln Laboratory에서 근무하고 있다.

Dr. Hong Kyun Choi, President, graduated from S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his Ph.D. in electrical engineering from Univ. of California, Berkeley. He works at Lincoln Laboratory, Massachusetts of Technology.

succeed and empower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KACL paid a \$1,000 stipend to each of the interns who worked during the summer without pay. To raise the funds for the stipends, we hosted a fundraising dinner on April 10, 1999 at the Burlington Marriott Hotel. The event was highly successful, with about 200 participants.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all the participants, as well as many donors who could not come.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thank Ms. Kristy Kim of Channel 7 News for being our Mistress of Ceremonies, Mr. Gope Gidwani of the Indian American Forum for Political Education for being our guest speaker, and members of the Morning Star Traditional Korean Cultural Institute for coming all the way from Washington State to perform traditional Korean dances.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 event was conducted in English to promote participation of Korean-Americans as well as other Americans who do not speak Korean.

Two citizenship workshops were held during the past year, including one on December 21, 1998, where 100 applicants attended. Because this workshop was held just before the citizenship application fee increased from \$95 to \$225, the participants were able to save a substantial amount of money. We plan to hold the citizenship workshop twice a year in the future and ask for your participation.

KACL has also published 3,000 copies of a legal guidebook with the partial support of a \$2,500 grant from the Asian American Unity Fund. This guidebook has combined "American Laws and Life," publi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n-translated version of the "Civil Rights Resource Guide," published by the Institute for Asian American Studies (IAAS) at the Univ. of Massachusetts, Boston. "American Laws and Life" describes features of the American legal system such as lawyers, criminal court procedures, civil suits, and small claims court. The Civil Rights Resource Guide explains hate crimes and many kinds of discrimination and lists the organizations to contact when one is subjected to such acts. We hope that this guidebook will help members of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in these

difficult circumstances. I sincerely thank Dr. Eui-in Lee, the Chair for the Publications Committee, for his dedicated work in publishing this guidebook.

In this issue, we have included a brief introduction to three Asian-American organizations: The Institute for Asian-American Studies (IAAS), MA Asian American Commission (AAC) and Asian Pacific American Agenda Coalition (APAAC). Because the Korean community is fairly small, we can increase our political influence by collaborating with other Asian American organizations. IAAS, founded at the UMass Boston in 1993, has gained a national reputation as an advanced center for the study of the Asian American experience. AAC advises the MA Governor on findings of issues facing the Asian American communities and makes recommendations on how to improve these problems. In addition to Ms. Kija Kim and Mr. Seung Hoon Choi, who have participated in AAC since its inception, I have been appointed to serve in the Commission this year. APAAC promotes political involvement and empowerment among Asian American communities. Mr. Song-kun Kim, Vice President, has been actively involved with APAAC as a Board member.

During the past 10 years, Asian Americans have made considerable progress not only economically and in college admissions but also politically. Gary Locke, a Chinese American, has been elected as Governor of Washington State, a first in the continental USA. Dr. Harold Koh, a Korean American, was appointed as the Assistant Secretary of Human Rights in the State Department, the highest position occupied by an Asian American in the Federal Government. In addition, Bill Lann Lee, a Chinese American, is working as an acting Assistant Attorney General in charge of civil rights in the Justice Departmen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an Asian American has been appointed to the highest civil rights position. Although he was not confirmed in the Senate because of opposition from some conservative Senators, President Clinton requested another confirmation in the Senate, with many civil rights organizations calling for immediate approval. Despite recent progress, however, the political power of Asian Americans is still much weaker than what our numbers

would indicate, let alone the full potential of the community. Together, we all have to work hard to make the first Asian American Secretary a reality.

In June, President Clinton issued an Executive Order (see page 33 for the full text)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through increased participation in Federal programs where they may be underserved (e. g. , health, human services, education, housing, labor, transportation, and economic and community development). It will establish in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President's Advisory Commission on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Commission). The Commission will provide advice on these issues to the President, through the Secretary. I believe that this Executive Order will be a catalyst for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Asian Americans in Federal programs.

Next year, there will be a census, which the Census Bureau conducts every ten years. It will count all 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on April 1, 2000, including immigrants either documented or undocumented. We should all participate in the census so that our population is not undercounted. The information you provide in the census questionnaire will be used for census purpose only and will not be used for other purposes. At the beginning of next March, you will receive a letter informing you that you will receive a census questionnaire soon. If you want to receive a questionnaire in Korean, you should return a form included in the package after checking a box for the Korean language. You will receive the questionnaire in the middle of March. Please be sure to fill out the form and return it to the Census Bureau.

Participating in the census, obtaining U. S. citizenship, registering to vote, and casting votes are the basis of political influence. In addition, it is important for many Korean-Americans to work in the public sector and in the news media, where public policy and opinions are formed, in order to increase our political power. KACL is working towards these goals, and I urge you to lend your active participation and support. Thank you very much. **KACL**

(영어번역: 최홍균)

빈번하게 또는 긴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한국을 방문하신 영주권자의 경우 복잡한 "지속 거주 요건" (Continuous Residence) 공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일이 1992년 1월 1일이고 중도에 1년 3개월 동안 (1995년 2월부터 1996년 5월 1일까지) 한국에 거주했던 신청인은 절대 미국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라 생각하여 시민권 신청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쉬우나, 법규에 따르면 1년 부터 2년 사이의 거주 공백이 있으므로 1996년 5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여 2000년 5월 2일 ("364일 가산 원칙"이 1년-2년 공백인에게 적용)이 돼야 "지속 거주 요건"을 충족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개월 이상부터 1년 거주 공백인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의사를 밝힘으로써 거주 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밝히려면, (1) 신청인 가족이 미국에 거주한 사실, (2) 세금 납부 증명, (3) 월세나 주택 용자 납입금, 혹은 (4) 미국 내 수입 증명 등을 첨부하여야 거주기한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을 비우신 영주권자는 "절대 미국 거주"를 10년 이상하여도, 마지막 도미 시간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비운 이전의 기간은 하루도 거주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거주 공백이 있는 영주권자는 출국 이전에 "시민권 목적을 위한 거주 지속 요청서" (Form N-470)의 해당 여부를 타진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시민권 신청 행정을 주지하셔서 신속하시길 당부합니다.

(1) 정확한 시민권 신청일은 5년이 되기 3개월 전, 즉 4년 9개월이 지난 바로 다음날입니다. 55세 이상 15년, 50세 이상 20년 영주권 (가족이 아닌 통역동반) "한국어 신청인"은 신청일 바로 그날에 반드시 각각 15년 그리고 20년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한국어 신청인은 제한된 문제집으로 (약 20개 문항으로 됨) 시험이 치뤄집니다.

(2) 해당 이민국 (Boston District/ Providence District/Manchester District)에서 Interview 받으시려면, 그 해당 구역에서 3개월 이상 사셔야 하며 이사를 준비하시는 신청인은 이사가 될 구역 해당 이민국에 신청하여야 합니

다. 예를 들어 Interview 당일 사시는 곳이 뉴욕이며 이것이 밝혀지면, 보스톤 이민국은 면접일이 확정되어도 신청서를 뉴욕으로 송부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26세 이상의 남자 신청인은 반드시 병무 등록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을 하셔야 하며, 이를 위해선 병무과 (Selective Service System: 1-847-688-6888 & 1-847-688-2576)에 의뢰하시면 안내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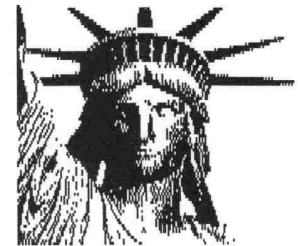
(4) "장애자 구제 시민권 신청서" (Form N-648)에 해당이 되려면, 신체 장애가 1년 이상이 지속되고 마약으로 인한 장애는 인정이 안되며 정신 장애가 있어 미국 충성 맹세서를 이해 못한다면 절대로 시민권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법법기록이 있는 신청인은 마지막 법원 기록서 (Court Disposition Paper), 이혼자는 이혼장 (Divorce Decree)이나 호적 등본 (Family Census Register)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6) 정부 혜택을 받으신다는 사실이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단, 정부 혜택도 없이 자녀분들로부터 보조를 받으신 경우 이를 증빙하셔야만 합니다. 아니면, 수입은 있으나 탈세를 한다는 의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바뀐 시민권 신청 행정에 해당되는데, 시민권 신청은 버몬트 이민국에서만 하며 (INS Vermont Service Center, Attn: N-400 unit, 75 Lower Weldon St., Albans, VT 05479-0001) 신청료가 \$250 (\$225+\$25지문료)이며, 지문은 반드시 지문 채취 통지서에서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치뤄집니다.

(8) 가장 최근 바뀐 행정은 면접일이 짧게 1주 내지 2주 바로 전에 통보되며, Interview 당일에 합격 통지서 교부와 더불어 "선서일"을 그 자리에서 정하여 줍니다. **시험**



BOB SMITH
NEW HAMPSHIRE

opinion@smith.senate.gov
http://www.senate.gov/~smith/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DC 20510-2903

COMMITTEE ON ARMED SERVICES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PUBLIC WORKS
COMMITTEE ON THE JUDICIARY
CHAIRMAN,
SELECT COMMITTEE ON ETHICS

September 1, 1999

Mr. Hong Kyun Choi, Ph.D.
President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11 Bartkus Farm Road
Concord, MA 01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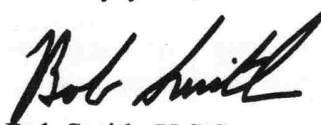
Dear Friends:

It is with pleasure that I send my congratulations and best wishes as you join together to celebrate the 9th annual publication of the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The League is to be commended for its commitment in becoming the voice of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in New England. By advocating issues and involving yourselves in the political process, you are assuring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a voice in the matters important to you.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and I congratulate you on your dedication and commitment to the political process.

Best wishes for continued success.

Sincerely yours,


Bob Smith, U.S.S.

Best of luck!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EXECUTIVE DEPARTMENT

STATE HOUSE • BOSTON 02133

(617) 727-3600

ARGEO PAUL CELLUCCI
GOVERNOR

JANE SWIFT
LIEUTENANT GOVERNOR

September 1999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I extend congratulations on the Ninth Annual publication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Journal (KACL-NE).

Since its inception, KACL-NE Journal has distinguished itself through its continued contributions to the well-being of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and the Commonwealth at large. Without the efforts of journals like KACL-NE, it would not be possible to reach our goal of success in fostering peace and harmony within the diverse population of our state and our nation. I applaud the outstanding efforts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Journal. In addition, I commend its uncompromising commitment to excellence.

Again congratulations, and best wishes for continued success.

Sincerely,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that reads "Paul Cellucci".

Argeo Paul Cellucci



JEANNE SHAHEEN
GOVERNOR

STATE OF NEW HAMPSHIRE

OFFICE OF THE GOVERNOR

September 1999

Dear Fri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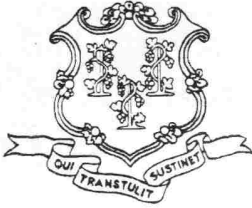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New Hampshire, I extend warm greetings for this year's annual meeting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I commend the League for its commitment to preserving and enriching the long and rich cultural Korean-American heritage. Historical events and current headlin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League's efforts to involve its membership in the political process to assure a voice in those issues which affect Korean-American interests.

Best wishes for a successful annual meeting. The strength of our state, our region, and our country is based on the diversity of our people. As Governor of New Hampshire, I applaud your efforts to preserve the beauty and history of the Korean culture while participating fully as American citizens living in the New Hampshire area.

Very truly yours,

Jeanne Shaheen
Jeanne Shaheen



STATE OF CONNECTICUT
EXECUTIVE CHAMBERS
HARTFORD, CONNECTICUT
06106

JOHN G. ROWLAND
GOVERNOR

September 1, 1999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11 Bartkus Farm Road
Concord, MA 01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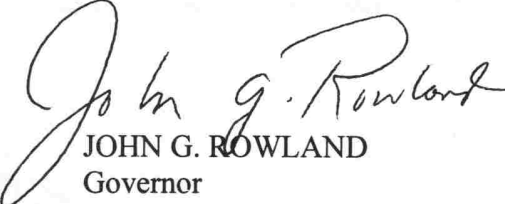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State of Connecticut, it is a pleasure to extend greetings to the members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as you celebrate the 9th annual publication of your journal.

I commend the members of this organization for their dedication in serving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By promoting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ll our Korean-American residents,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is contributing to the democratic system that makes our country so great.

Please know that you have my best wishes for continued success in the future.

Sincerely,


JOHN G. ROWLAND
Governor



State of Rhode 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s

State House
Providence, Rhode Island 02903-1196
401-222-2080

LINCOLN ALMOND
GOVERNOR

September, 1999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State of Rhode 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s, I extend warm greetings to the participants of this year's annual meeting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especially to those members who live and work in Rhode Island. I look forward to receiving and reviewing the 9th annual publication of the KACL-NE journal.

Your mission of serving as the voice for the Korean-American residing not only in Rhode Island, but also throughout New England, is very much appreciated and does not go without notice. Your goal of encouraging Korean-America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local, state and national politics is important because elected public servants have the responsibility to represent all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in all levels of government means your voices will be heard and your concerns made known. The education you provide to your members on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 American citizens is essential and vital. The more educated we are, the more productive and successful we can be as individuals, groups and states.

Best wishes for a productive meeting and continued success.

Sincerely,


Lincoln Almond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 C. 20515

JOHN E. SUNUNU
FIRST DISTRICT
NEW HAMPSHIRE

September 5, 1999

Hong Kyun Choi, Ph.D.
President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11 Bartkus Farm Road
Concord, MA 01742

Dear Dr. Choi,

As Congressman from the First District of New Hampshire, I am pleased to be a part of the Ninth Annual Journal for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I offer my best wishes to all New Hampshire members and everyone working so effectively for your organization to create a vital voice in the democratic process.

As you know, Lexington, Massachusetts was the first battleground for our American patriots in the fight for our Nation's independence and freedom. Over 200 years later it was in Lexington that voting by Korean-Americans jumped from 10% in 1993 to 90% in 1994. This amazing transformation of the community in just one year can be directly attributed to the fine work of your organization. Lexington is just one example where your efforts have been fruitful, but its historical significance highlights your appreciation for the patriots of yesteryear and the important liberties we still hold true.

I will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the new Hampshire Korean-American community in the future and wish you great success as you join together for continued strength.

Sincerely,

John E. Sununu
Member of Congress

Last year, when I was first acquainted with Mr. Moon Yeal Lee who had just been elected as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KACLNE, I was very much impressed with how keen his interest in the activities of the KACLNE was and how passionate he was toward the members and what they do. About seven or eight months ago, I was trying to lead a couple to attend a church. The wife said to me, "I once attended a church and met someone who was a very good person. If I attend a church regularly again, that is probably because of a person like him." She was talking about Mr. Moon Yeal Lee. Decency is a rare commodity these days. Mr. Lee has recently moved to California due to his illness. I know that his prayer is always with us and the KACLNE. We all miss him and wish him well.

As a vice-chairperson, and by default, I have been performing chairperson's duty. I have chaired several meetings so far and I found that all the members of the board were very courteous and democratic, and there wasn't any usual argument that I often encounter when Koreans discuss about anything. We have real ladies and gentlemen in KACLNE. That made me kind of proud.

I came to this country when I was not yet eighteen years old. When I became twenty, I thought seriously about my life in America. How am I going to live my life in this new land and new cultural environment? I thought, "Am I going to act just like American friends in my age and become a typical young American?" Most of Koreans at that time faced with a serious decision whether to go back to Korea or to seek ways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If one stays in U.S., it was considered as if one is abandoning the motherland not only in the minds of the people in Korea but also in the mind of a person in U.S. So, it was a serious matter to decide what to do when anyone finishes study or training in U.S. I did not have that choice because our family had

immigrated here to stay. I thought about the fact that I was born and raised in Korea and lived in good Korean culture and now I have opportunity to learn new ways in U.S. Then, I thought of adopting all good aspects of both cultures and have advantage over my friends. From then on, I would explain to my American friends about some of the ways Koreans do that I thought are good. They agree that while it is different from what they are used to, it is good nonetheless. Years later, when I worked in a project in Korea, I would explain some of American ways to my colleagues, which they also agree that it is good or better than Korean ways.

About four months ago in June this year, there was a world cup soccer game between the North Korean women's team and the U.S. women's team. I asked myself which team would I cheer to win. The honest answer, without a hesitation, was to cheer for the U.S. team. Then, I asked, if it was South Korean team instead of the North, what then? Well, I won't go into that. I remembered when I became a citizen back in 1967, one of the questions the immigration officer asked me was if I would bear arms against Korea if U.S. and Korea is at war. You guess what my answer was. Of course, I trust judgement of our leaders in government when we go into any war first of all, and second of all, Japanese Americans did not fight in the pacific, but fought in Europe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is country has many policies with enough flexibility to be reasonable and fair.

During my years of living in the United States, I have traveled several parts of the States, Europe and South East Asia. I found that people are the same all over the world. There are good people, bad people, nasty people, kind people, unfriendly people, and friendly people. Many have their own problems that affect how they treat other people. Many instances that one thinks are racial discrimination often are just people thing.



We have to look at things in perspective at times. We have to think in terms of not "us and them", but "we". Common courtesy doesn't hurt anyone. Old values in East and West are not that different. Hard times that we think we face in this country are not as harsh as many immigrants in the turn of the century when English, French, Spanish, German, Italian, Scandinavians started to build this country. Although many Asians also had hard times during the early years of migration to America, much recent Asian immigrants are well off in many ways.

Now, while many Europeans and early immigrants built and contributed many areas of growth in this country, what can we as Korean Americans do for this country? I think we can contribute most in influencing fast disappearing moral values and help bring back the Christian values that this country was founded on. In order to do that, we have to lead by example. We must live by what our parents taught us when we were growing up. The teachings that came down from generations to generations influenced by the Confucianism and from the recent Christian "boom" in Korea are valuable. I am talking about the positive side of the past and present. We can start with "honest living" which is not just Eastern thing. I think this i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society that even a small minority can make a difference. Surely we ought to cultivate political leaders and all

that, but we are in a way.

I have been volunteered by Dr. Hong Kyun Choi, President, KACLNE, to be this year's chairperson of the Board of Directors. My primary objectives this year are to actively solicit for the membership to KACLNE and to position ourselves in obtaining better funding and resources. I have great expectations from the board members and advisors in whom I see many potentials as to what they envision in the coming millenium. We need you to join KACLNE and your support when asked. **KACL**

작년에 새로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문열

전이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시민협회의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회원들과 그들의 하는 일에도 일일이 신경을 쓰는 이 전이사장님을 보며 저는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7, 8개월전에 저는 한 부부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나에게 "전에도 교회에 나간 적이 있는데 아주 친절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약 계속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아마도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친절한 사람이란 다름 아닌 이문열 전이사장님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분처럼 겸손하신 분을 만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병으로 지금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셨는데 시민협회와 우리들을 위하여 그분은 계속 기도하리라 믿습니다. 섭섭함을 금치 못하며 그분의 안녕을 바랍니다.

그 후로 제가 대리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여러번의 회의를 하는 동안 참석한 모든 이사들은 매우 예의바르며 민주적이었고, 한국인들이 통상 회의를 진행할 때 경험하는 논쟁 따위는 아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신사 숙녀들이 모여 일을 하고 있는 시민협회이며 저는 이것을 아주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18살이 채 되기도 전에 이 미국땅에 왔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이 새로운 땅 미국에서, 또 새로운 문화 환경에서 어떤 생을 살아가야 될 지 심사숙고하게 되었습니다. "내 나이 또래의 미국 친구들과 같이 전형적인 미국 청년이 되어야하나?" 하고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지 아니면 미국에 남아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할 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였습니다. 만약 미국에 남는다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조국을 버리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마치거나 연수가 끝나면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할 지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민을 왔으므로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대신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나서 한국문화속에서 자라왔으니 앞으로는 미국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후 양쪽 문화의 좋은 점을 고른다면 주위의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미국 친구들에게는 한국문화의 좋은 점들을 설명해주었는데, 그들은 그들이 알고있던 것과는 다르지만 그런대로 좋다고 하였습니다. 몇 년 후 한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미국문화의 좋은 점들을 소개하였습니다. 한국 친구들도 역시 미국의 습관이 한국의 관습보다 낫던가 혹은 더 좋다고 하였습니다.

4개월전 지난 6월에 미국 여자축구팀과 북한 여자축구팀간에 게임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떤 팀을 응원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저 없이 저는 미국팀을 택하였습니다. 만약 남한의 여자축구팀이었다면 어떤 팀을 택하였을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1967년 시민권을 받기 전 이민국 직원은 나에게 만약 미국과 한국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면 어느 나라를 위하여 싸우겠는가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 대답이 무엇이였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첫째로 나는 어떤 나라와 만약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결정을 한 정부 지도자들의 판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차대전중 일본 미국시민들은 유럽에서만 싸웠지 태평양에서 본국인들과 싸우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이 미국의 외교정책이 유연성이 있고 정당하며 또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사는 동안 미국의 여러 주는 물론 유럽이나 동남 아시아로 여행을 하였는데 세계 어디가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로 사실 발견하였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신경질나는 사람, 착한 사람, 불친절한 사람도 있고 혹은 친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경우 인종 차별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단지 개인의 사고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 뿐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좀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나"와 "너"를 구분하기 보다는 "우리 함께"라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 마음이 상하는 법은 없으며, 동양과

서양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서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힘든 시간들은 금세기 초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태리, 혹은 북구지역에서 건너온 많은 이민자들이 이 나라를 세우면서 겪은 고생에 비하면 그리 힘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초기의 많은 아시아 이민자들이 고생을 하였지만, 오늘날의 아시아 이민자들은 매우 좋은 조건으로 이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럽 이민자들이 이 미국을 건설하며 여러 부분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인 미국시민들은 이 나라를 위하여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이 미국에서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도덕관을 바로 잡으며 이 나라가 세워진 기독교정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가 자랄 때 부모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 세대를 걸쳐 전해 내려온 공자 사상이나 최근 우리나라에 전해진 기독교의 새로운 가치관은 매우 값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직한 삶"은 결코 동양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치적 지도자들을 육성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하겠지만 적은 수도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시민협회의 이사장으로 일해달라는 최홍근회장의 부탁을 받고 수락하였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는 많은 새 회원들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여유있는 재정과 자원들을 획득하는데 주력하고자 하며, 다가오는 새로운 2천년을 바라보며 이사들이나 고문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가진 것을 보며 기대가 큼니다. 한사람이라도 많이 시민협회에 가입하여 필요할 때에 한인사회에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형**

(한국어번역: 이의인)

박대위이사장은 퀸지영생장로교회의 장로로서 화공과를 전공하였다. 프래밍햄에 있는 큰나무인쇄소를 경영하고 있으며 부인진과 딸 엘리자베스 및 아들 마이클과 함께 힘햄에 살고 있다.

Mr. David Park is an Elder of the Quincy Youngsang Presbyterian Church. He is a chemical engineer and owns and operates Bigwood Press in Framingham, MA. With his wife Jean, daughter Elizabeth and son Michael, he resides in Hingham, MA.

시민협회의 1999년은, 1세와 2세의 가교로서 세대간의 힘을 결집시켜 한인의 정치력 신장에 새로운 장을 열 최홍균 회장단의 출범으로 새로운 분기점을 그으면서, 실질적인 봉사과 함께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2세 지원에 주력한 해였다고 평가된다. 3차례에 걸친 뉴스레터의 발간과 이의 발송, 작년의 1명에 이어 4명의 정치 인턴에 대한 장학금의 수여와, 2회에 걸친 시민권 취득 워크샵의 개최, 특히 한인들의 미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한 "법과 생활"의 발간 등 활발한 활동과 성과가 있었다. 비록 선거가 없는 해여서 정치 전면은 조용했으나, 한인의 위상이 주류 정계에서 이미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만큼, 내년의 2000년도 선거에서는 한인의 주요한 역할과 함께 정계의 주축과 지위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1999년도의 주요 활동 보고는 다음과 같다.

1. 제8차 정기총회

제8차 정기총회는 1998년 10월 3일(토), 앤도버 소재 북부 보스턴 교회에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개최되었다.

정기총회의 결과는 제8호 회지에 상세히 보고된 바 있는데, 최홍균 회장, 김성균 부회장과 이경해 부회장이 선출되었고, 김양길 전임 회장과 김명기 사무총장이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2부의 강연회에서는, 매사추세츠주의 보건부 청장인 Howard Koh(고경주)박사의 '한인 미국인의 공공 보건'이라는 연제의 강연이 있었으며, 시민협회 소식 제4호가 정기총회 특집(8면)으로 발간되어 배부되었다.

2. 시민협회 회지 제8호 발간

회지는 통상 총회를 기해 발간해 왔으나, 제8호 회지는 정, 부회장의 선출을 반영하기 위해 총회가 끝난 후인 98년 11월 30일에 3,000부가 발간되었다. 250여 회원 가정에게는 직접 일급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인 가정을 비롯해 각종 단체 및 기관, 상원 하원의원 등의 정치인들에게 일제히 배부되었다. 3회의 편집 회의가 있었으며, 회지 발간에 따른 원고청탁서, 발간 공고, 광고청탁서 및 광고비 청구서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발송되었고, 이에 편집

위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는데, 특히 회지의 광고 모집을 위해 해마다 큰 수고를 마다 않으신 김문소 고문께 깊은 감사를 올린다. 한편 제8호까지의 김명기 편집위원장에 이어 이번 제9호 회지부터는 이의인 편집위원장에서 제작을 맡아 많은 노고를 기울였는데, 특히 이의인 편집위원장은 "법과 생활 및 민권 안내"의 편찬도 전담하셨다.

3. 이사회 및 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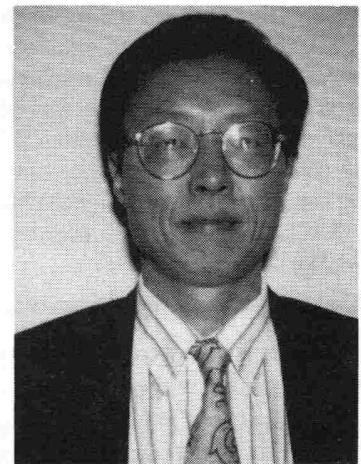
8차 정기 총회 이후인 98년 11월 7일, 새로운 회장단의 힘찬 출범과 함께 제32차 이사회가 박대위 부이사장 덕에서 개최되어, 총회 성과의 검토와 99년도 사업 계획, 시민협회의 방향 정립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연간 2회의 시민권 취득 워크샵, 1회의 정치 인턴 후원 기금 파티, 2회의 뉴스레터 발간 등, 각종의 99년도 활동 계획이 의결되었다. 99년의 첫 이사회(33차)는 2월 6일, 김기석 이사덕에서 개최되어, 98년도 활동 보고 및 평가, 99년도 사업 계획 설정 및 주요 사업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되었는데, 여기서는 정치 인턴 모금 파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준비 상황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6월 6일에는 상임이사회와 상임임원회의 연석회의가 김문소 고문덕에서 개최되어, 제9차 정기총회의 준비 및 이사회 조직 개선, 2000년도 선거 대비, 회지 9호 편집 등이 논의되었다. 이어 8월 29일에는 Jessica Lee 이사 자택에서 제34차 이사회가 개최되어, 총회 추진, 이사 보강 등이 협의되었다. 특히 건강 악화로 인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면서 사임하신 이문열 이사장의 후임 추천이 있었다.

7월 20일과 9월 10일에는 회지 9호의 편집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신임 이사 추천 및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 이사회(제35차)가 10월 12일, 박대위 이사장 대행의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4. 정치 인턴 후원 기금 모금 만찬

99년 4월 10일(토) 오후 6시에, 벌링톤 소재 매리옌 호텔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턴 후원 모금 만찬이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이 지역내의 한인 행사로는 처음으로 영어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영어권 2세들을 적극 포용하려는 신임 회장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제1부에서는 채널 7의 뉴스 앵커인 Kristy Kim양의 사회로, 98년의 수혜자였던 김성훈군(98년도 Kerry연방 상원의원 인턴)과 Indian American Forum for Political Education (IAFPE)의 Gope Gidwani씨의 강연이 있었고, 이어 최홍균회장이 김운관(서포크법 대, MA 검찰청 인턴), 박사라(하버드대학, MA 주지사 사무실 인턴), 이대성(매사추세츠 주립대학, MA주상원 인턴), 김캐롤라인(바나드 대학, Kerry 연방 상원의원 인턴) 학생들에게 상장과 각각 1,000달러의 장학금 수여가 있었다. 제2부의 만찬에 이어, 제3부의 공연 순서로 셋별 전통문화연구원의 한국 고전 무용, 가야금 산조 및 병창과 즉흥무가 있었으며, New England Conservatory 학생들의 현악 사중주 및 교선애씨의 소프라노 독창이 있었다.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과 단체, 참석하신 여러분들, 추진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 시민권 취득 워크샵 개최

시민권 취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변경된 규정 등의 설명과 함께, N-400 작성, 변호사의 검증, 사진 촬영, 발송 준비 등 시민권 취득의 전 과정을 무료로 도와주는 워크샵을 98년 12월 21일과 99년 5월 22일 두 번에 걸쳐 렉싱턴 소재 성요한 교회에서 개최하였다. 특히 신청비가 95달러에서 225달러로 인상되기 직전에 열렸던 98년 12월 행사에는 약 100명이 참석하여 많은 경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협회 임원인 김성균, 박경수, 한석

훈 변호사들을 위시해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수고해 주셨다.

6. 뉴스레터 (시민협회 소식) 발간

제8차 정기총회 특집으로 발간된 제4호(8면)에 이어, 뉴스레터 5호가 11월 말에 발간되어 뉴잉글랜드 전역의 2,500여 한인 가정에 우송되었다. 5호의 주요 내용은 12월 19일의 시민권 취득 워크샵 안내와 협회 가입 안내 등이었다. 99년에 들어와서 4월말에 발간되어 역시 전가정에 우송된 제6호는, 정치인턴 후원 모금 만찬, 시민협회의 각종 활동 상황 보고, 5월 22일의 시민권 취득 워크샵 광고가 주 내용이었다.

7. "법과 생활 및 민권안내" 책자 발간

Asian American Unity Dinner (AAUD)에서 받은 2500 달러의 기금과 협회의 자체 기금을 합하여, 이의인 편집위원장의 수고로 "법과 생활 및 민권안내" 책자를 3000부 발행하였다. 이 책자는 미국의 법, 각종 재판 절차, 부동산 및 소비자 권리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종 차별에 대한 정보와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담고 있는데, 시민협회는 이 책자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8. 캠페인 및 기타 활동

98년 12월 5일, 시민협회가 창립된 90년 부터는 섭외이사로, 또한 97년에 악화된 건강으로 사임하기까지 인권옹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봉사해오신 정용훈님의 장례 예배가 있었고, 이에 여러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98년 11월에는 한인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를 선정해 5천달러를 수여하는 뉴욕 중앙일보 주최의 "제2회 흥익단체상"에 시민협회가 응모하였다.

최홍균 회장은 5월 7일에 있었던 AAUD의 공동의장으로 수고했으며, Cellucci 매사추세츠 주지사에게 Asian American Com-

김명기 사무총장은 부산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주) 해외사업본부, Multi-Core, Inc.의 Document Control Center Director를 거쳐 Quality Engineering Consultant, H&E Septic Design Co.와 Veggies'n More를 운영했으며, 현재 무역업체인 H&E Korea Co.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새싹한국학교 교장, 재미 한인학교 협의회 임원, 중앙일보 본사 모니터를 거쳤으며, 현재 한국광고연구원의 미주통신원, 제일기획 등 광고업계의 프리랜서로서 Subsurface Disposal Systems Designer 및 Installer 등 다수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mission (AAC)의 Commissioner로 임명되어 AAC의 모임에 여러 번 참석하였다. 최 회장은 또한 Indian American Forum for Political Education의 정치 인턴 후원기금 모금 행사, Asian American Resource Workshop(AARW)의 기금 모금 파티, Census 2000 설명회, 한인회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등 여러 외부 단체에서 활동이 있었다. 김성군 부회장은 Asian Pacific American Agenda Coalition의 이사회에 여러 번 참석하였다.

김명기 사무총장이 4월에 Massachusetts Immigration & Refugee Advocacy Coalition(MIRA) 주최의 시민권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5월 5일의 주 국회의사당에서의 Immigration Day의 후원 등의 활동을 하였다. 김양길 고문은 앤도버 도서관에 회지 5, 6, 7, 8호를 기증하였다. 99년 1월 17일에는 회지 8호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들에게, 협회의 활동을 후원함을 기리는 감사장을 제작하여 발송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협회지를 회원과 관련자들에게 우송하면서, 새해 인사를 겸한 회비 납부 캠페인의 서신을 우송하였다.

한편 MIRA와 협조하여, 하이티인의 난민 지위 법안 개정 촉구 서한의 발송, 이민자들의 불이익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캠페인 서한의 발송 등의 활동이 있었다. 한편 한인회보 및 보스톤투데이, 한국일보 등의 신문 지상을 통해 누차에 걸쳐 시민협회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주요 기사로는 후원 모금 파티, 워크샵, 이사회 결과, AAUD 파티, 총회 등을 들 수 있고, 각종 행사의 광고가 누차 게재되었다. **시협**

Summary

Eighth Annual Meeting

The Eighth Annual Meeting was held on October 3, 1998 at the North Boston Korean Methodist Church in Andover, MA. There was an election of a new president (Dr. Hong Kyun Choi) and vice presidents (Mr. Song-kun Kim and Mrs. Kay Dong). Dr. Howard Koh, Commissioner of the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ave the keynote speech, entitled "The Public Health of Korean-Americans: A Commissioner's View."

Publication of the 8th Journal

3,000 copies of the 8th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were published and distributed to Korean-

Americans residing in New England as well as many politicians and organizations.

Board Meetings, Other Meetings

There were four Board Meetings, one joint Standing Committee / Executive Committee Meeting and many Executive Committee Meetings to discuss the issues of the League. There were also three Editorial Meetings to prepare for the Annual Journal.

Summer Political Intern Support Program

A fundraising party was held on April 10, 1999 at the Burlington Marriott Hotel to raise funds for summer political interns. About 200 people attended the party. Stipends of \$1000 each were paid to the following four students: Daniel Kim (Suffolk Law School, MA Attorney General's Office), Sarah Park (Harvard College, MA Governor's Office), David Lee (Boston College, MA Representative Rogers's Office), and Caroline Kim (Barnard University, US Senator John Kerry's Office). The MC of the event was Ms. Kristy Kim, an anchorwoman with Ch. 7 News. Guest speakers were Mr. Thomas Kim of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the first recipient of KACL's summer political intern scholarship, and Mr. Gope Gidwani of the Indian American Forum for Political Education. After the dinner, there was an entertainment program featuring Korean traditional dances performed by the Morning Star Korean Traditional Cultural Institute, and a string quartet and soprano solo played by students from New England Conservatory.

Citizenship Workshop

KACL hosted two citizenship workshops (12/21/98 and 5/22/99) in which people received assistance with their citizenship applications, including N-400 preparation, photograph, an envelope with the INS address, and legal counsel from attorneys. The workshop on December 21, 1998 was especially well attended because it was just before the application fee increased from \$95 to \$225.

Newsletter

Three newsletters were published. The 4th issue was published in October 1998 for the occasion of the eighth annual meeting; the 5th issue in December 1998,

featuring the announcement of the citizenship workshop before the fee increase; and the 6th issue in April 1999 featuring the fundraising party for the summer political interns as well as an announcement of the citizenship workshop.

Publication of Legal Guidebook

With the partial support of a \$2,500 grant from the Asian American Unity Fund, KACL has published 3,000 copies of a legal guidebook. This guidebook has combined "American Laws and Life" publi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n-translated version of the "Civil Rights Resource Guide" published by the Institute for Asian American Studies.

Other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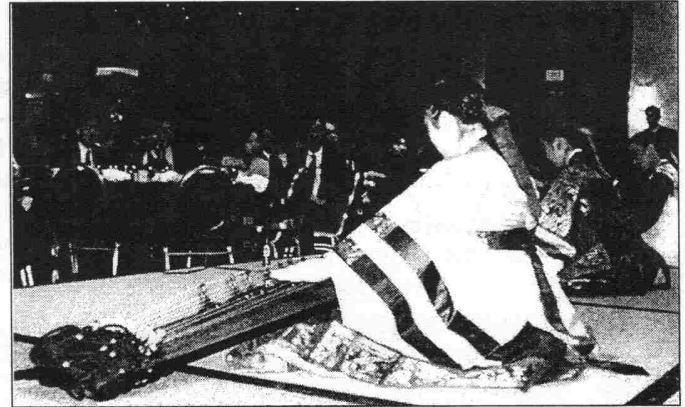
In November 1998, KACL applied for the 2nd Hongik Award, sponsored by the New York Central Daily News.

President Hong Kyun Choi served as co-chair of the Asian-American Unity Dinner held on May 7, 1999. He was appointed by MA Governor Paul Cellucci as one of the commissioners of the Asian

American Commission. He attended the fundraising party for the Indian American Forum for Political Education, Asian American Resource Workshop (AARW) and the seminar for the Census 2000 sponsored by the AARW and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onsortium. Vice President Song-kun Kim attended several Board Meetings of the Asian Pacific American Agenda Coalition. Executive Director Michael Kim attended the citizenship seminar sponsored by the Massachusetts Immigrants and Refugee Advocacy Coalition (MIRA) and participated in the Immigration Day held on May 5, 1999 at the MA Congress. Advisor Yangkil Kim donated the KACL Journals to the Andover Public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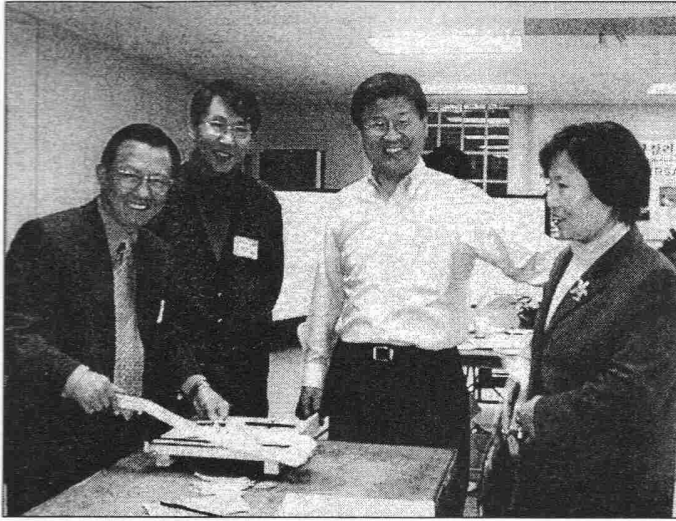
In collaboration with MIRA, letters were sent out in support of the upgrading of the legal status of Haitian refugees and correcting the unfair treatment of legal immigrants.  (영어 번역: 최흥균)

정치 인턴 후원 기금 모금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최흥균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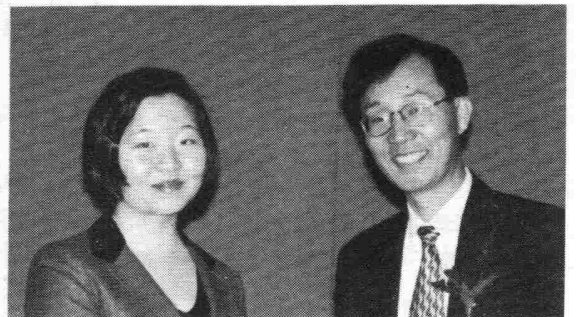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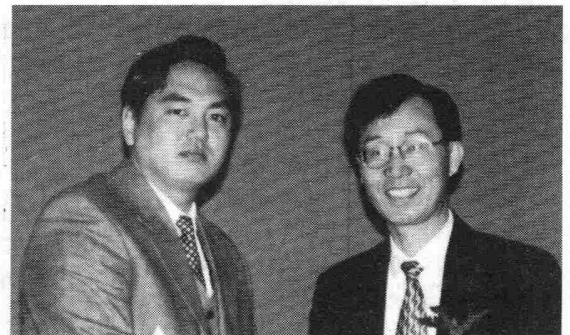


AAUD에서의 후원금 수상식 및 참석자들

셋별 전통 문화 연구원생들의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시민권 취득 워크샵에서 사진을 자르고 있는 김양길 전회장과 최영훈 감사 및 임병규 이사(위)와 신청서류를 검증하고 있는 김성군(부회장), 박경수, 그리고 한석훈 변호사 제씨(아래)



정치 인턴 후원 기금 모금 행사에서 사회를 맡아 수고한 Miss Kristy Kim과 주제 강연을 해주신 Mr. Gidwani

정치 인턴 후원 기금 모금 행사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김윤관군과 박사라양

지난 4월 10일 시민협회(회장 최홍균)가 한인 1.5세 및 2세 정치인턴을 후원하기 위한 기금 만찬 행사를 통해 올 여름 주정부 및 의원 사무실에서 일할 4명의 학생들에게 1천불씩의 장학금을 수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국 주류사회의 정치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첫걸음을 열어준 것은 참으로 뉴잉글랜드 한인사회로서는 보람되고 의의있는 일이었다. 이 행사가 한 번에 끝나는 일회성이 아닌 시민협회의 지속적인 정규 사업으로써 유권자 등록 추진,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투표에 의한 정치력 발휘), 시민권 취득 권장등과 함께 미국 주류사회 정치에 우리 1.5세와 2세들을 접목시키고 이들의 진출을 뒷받침해줌으로써 본 시민협회의 소기 목적인 「한인 미국시민의 미국 정치 참여의 적극 권장」을 이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지난해 (98년) 1명(김성훈)의 정치인턴 지망생을 지원하기 시작해서 금년에는 4명으로 그 수가 늘어난 것은 크나큰 발전이 아닐 수 없고 그만큼 뉴잉글랜드 한인사회가 성숙해진 것으로 미 주류사회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진 징조라고 볼 수 있다.

그간 이민 1세대들은 이 땅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기 위해 여념이 없었고 언어의 장벽, 문화적 갈등, 보이지 않는 인종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미 주류사회를 강건너 물 보듯이 살아오면서 시민권자로서 떳떳이 이땅의 주인으로 행세하지 못하고 미국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챙기는 데 소홀히 하였다. 소수민족으로써 당연히 이땅에서 살아가기 위하여는 미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능동적으로 활발한 정치참여를 시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 일선에 나서려는 젊은 세대들을 키우며 교육하고 후원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1세대에게 맡겨진 과업이며 책임이다. 이제 서기 2천년을 몇 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시민협회는 지나는 9년간을 뒤돌아보며 오늘날 재미 한인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와 문제점들을 점검하여 차세대의 젊은이들에게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동포사회의 면 장래를 내다보는 비전과 방향제시를 함으로써 본회 창립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본회지 6호(1996년)에 미국 주류에의 현실적 참여의 제언을 위한 「뉴잉글랜드

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에 바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이 문제를 이미 거론한 바, 21세기를 향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오늘을 토대로 앞으로의 재미 한인 동포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또한 이에 따르는 미국 주류와 한인 사회와의 관계, 특히 한인사회의 미국 정치 참여문제 등을 연구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과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본회도 미국의 앞날과 동포사회의 장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갖고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 정책기관이 되도록 전향적인 탈바꿈의 작업이 시작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본회 자체내에 연구기관(Think Tank)의 설치가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오늘날 재미 한인 동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이러한 21세기의 재미 한인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하느냐 하는 것이며 본회가 1.5세대와 2세들이 미국 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며, 정치에 뛰어들 인물들을 찾아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키우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임을 제의한 바 있다. 그러면 과연 21세기의 재미 한인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또한 이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는 어떠한 인물이어야 하겠으며, 그리고 그들을 지도자로 키우는 데는 어떤 훈련과 교육이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재미 한인사회를 전망하기 이전에 먼저 재미 한인의 이민역사를 뒤돌아보며 현재의 재미 동포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자 할 때 자신의 뿌리를 캐듯이, 재미 한국인은 누구인가를 우리 스스로 자문해볼 때 지난 날의 재미 한인 이민사와 생활상을 알지 못하고서는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우리를 연결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의 해외이주는 대한제국 말기인 20세기 초에 일제에 의한 합병을 전후해서, 또한 일제 식민지하의 수탈정책으로 생존마저 위협받던 많은 농민들과 주권회복 운동에 앞장 섰던 선열들에 의한 정치적 망명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주지는 주로 우리나라 인접지역인 북간도, 연해주, 만주, 중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이와



달리 공식적인 한국인의 집단 해외이주는 하와이 이민과 멕시코 이민이 시초이었다(오는 2003년이면 한인들이 하와이섬 사랑수수 노동이민으로 발을 디딘지 1백주년이다). 다음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의 강권이나 강제동원으로 일본땅과 사할린, 만주, 중국, 남태평양 여러 도서로 끌려가 일본 침략전쟁의 군인이 되었던 우리 한인 청년들과 보국대의 이름으로 포로수용소, 비행장, 탄광등에서 일해야 했던 군속들, 정신대의 이름아래 군수공장에서, 더 나아가 군대 위안부가 되어 일제의 천인공노할 만행의 희생물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처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리는 결코 이 역사적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치욕과 비극이 우리 민족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성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해외 이주 우리 동포들이 나라 잃은 망국의 설움을 달래며 절치부심 조국 광복운동의 횃불을 높이 쳐들고 독립투사가 되고 애국자로 변하게 된 것은 자연적인 추세이었다. 특히 우리 재미 한인 백년 이민역사로 볼 때 1903년 첫 하와이 이주로 시작해서 1945년 연합군의 승리로 조국의 해방을 맞게된 그날까지의 이민시대는 진정 조국 광복운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서 하와이와 재미 본토에 이주한 이민자들이 겪었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의 이민생활은 나라없는 약소민족의 비애와 더불어 「황화론(Yellow Peril)」과 같은 동양인

배척운동과 차별정책으로 이 땅에 와 살면서 귀화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않은 무국적 비 시민의 상태이었으며, 노동이나 음식점, 채소점, 이발소, 세탁소 등의 자영사업으로 생업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고, California주에서는 1913년 외국인 토지법(Alien Land Act)을 공포하여 미국 국적이 없는 이민자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한국계, 일본계, 중국계 이민들은 토지, 가옥, 아파트, 상점등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할 수 없었으며, 비록 상당한 미국 시민권 소유자로 미국의 교육을 받아 언어의 장벽이 없었던 당시의 2세일지라도 미 주류사회에서 백인들과 같이 '화이트 칼라'직장에 취직해 일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대우를 받고 살면서도 조국 광복운동의 열정은 뜨거워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이나 California 포도농장, 콜로라도 광산등에서 땀흘려 모은 피눈물나는 재산을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으로 아낌없이 바쳐 당시 중국에 자리잡고 있던 우리 임시정부의 재정지원을 전담하다 시피한 그분들의 애국 애족의 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 재미동포들에게 산 교훈이며 귀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당시의 재미 한인사회와 재미 한인에 의한 조국 광복운동에 지대한 영향과 영도력을 발휘했던 '도산 안창호', '우성 박용만', '우남 이승만' 과 같은 선각자와 독립운동가들에 의한 한인사회 지도자 양성은 그 방법이 있어 각각 차이는 있었을망정 그 뜻은 오로지 조국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는 데 힘을 모으고 실력을 쌓는 데 있었음은 우리가 오늘 21세기의 재미 한인사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려는 뜻의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그중 '도산 안창호'는 민족이 힘이 없어 나라를 잃었으므로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는 힘있고 정의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신념으로 1913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조직하고, 건전한 인격 수련으로 청년 각자 개인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구국운동의 길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진리, 실천, 충성, 용기의 4가지 원칙과 또 지식, 덕, 건강을 쌓는 3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처음 8명에서 시작한 흥사단은 6년후에 150명으로까지 증가하였다. 이 운동은 해외 한인들의 대동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동포사회의 정치조직체였던 대한인 국민회와 함께 도산의 대명사가 되었고 현재까지 그의 뜻이 이어져가고 있다.

다음으로 '도산 안창호'와 함께 재미 한

인 독립 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우성 박용만'이다. 안창호는 흥사단 운동으로 청년 지도자를 양성코자 하였지만 박용만은 조국의 독립은 오직 무력으로 일본과 싸워 이겨야 하며 '말만 가지고는 안된다. 실력이 있어야한다. 실력은 곧 무력이다.'라는 생각으로 1909년 미국 네브라스카주에 '한국 청년 군사양성소(The Korean Military Academy)'를 설립하여 3년간 30명의 졸업생을 배출시켰다.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양성소 학생들은 낮에는 미국학교에 나가거나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하면서 밤이면 군사훈련을 받았다. 이 군사훈련은 네브라스카 이외에 와이오밍, 캔사스, 캘리포니아에서도 한인이 있는 곳에서 실시되었고 더 나아가 캘리포니아에서는 한때 비행기 조종사 훈련소까지 설치되었다. 박용만이 네브라스카를 떠나 하와이 국민회 초대로 군사훈련의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1910년 하와이의 오후우섬과 마우이섬에 설치된 군사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청년이 2백명이나 되었고 1914년에는 훈련소 이외에 3백명으로 편성된 한인군단까지 설립하였다. 여기에 참가한 청년들은 대부분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하는 이민 노동자들이었으며 낮에는 사탕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군사훈련을 받았던 그들의 정력과 정신무장은 대단한 것이었다. 훗날 때가 오면 광복운동에 참여할 준비를 하기 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달픈 군사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시 많은 동포들이 일본과 싸우기 위하여 자원해서 연합군에 참가하고, 또한 미국의 OSS작전계획에 참여케한 동기를 만들어 주었다.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에 큰 획을 그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1960년에 4.19학생혁명으로 대통령직을 내놓고 하와이로 망명길에 오르기까지 파란만장의 생을 살았던 '우남 이승만'은 재미 한인사에서 안창호와 박용만과 함께 우뚝 솟은 존재로 남겨진 지도자로서 외교를 통해서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여야겠다는 독보적 지론을 갖고 있었으며, 우리 민족이 잘 되려면 무력보다 교육이 중요하며 애국운동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런 뜻을 펴기 위하여 그는 하와이에 인재양성을 위해 중앙학원(한국학교)을 세우고 교육에 힘썼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이들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초기 이민자들이 피눈물나는 고된 노동의 생활 속에서도 조국광복이라는 목적이래 앞을 내다보며 열심히 2세들을 교육시키며 인재를 양성한 노력과 개척자정신일 것이다. 우리도

이들의 고귀한 뜻과 정신을 받들어 21세기의 재미 한인사회의 존속과 번영, 발전을 위해 지도자로서 일할 인재들을 발굴하고 교육하며 훈련시켜야만 할 것이다. 이제 재미 한인사회도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이민으로 시작해서 한국전쟁 후, 1965년의 새 이민법 통과로 이민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새로운 이민의 물결로 (후기이민) 이민 역사 백주년을 바라보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한인동포의 수가 전, 후기이민을 합하여 2백만을 헤아리게 되었고, 미국 각 지역마다 도시 중심으로 한인사회가 형성되었으며 각자 모두들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여 경제적 안정을 이룩함으로써 유대인 다음으로 성공한 이민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음은 흐뭇한 일이다.

그러나 재미 한인사회가 이땅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는 이러한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미 주류사회의 정치, 문화, 사회, 과학의 모든 분야 전반에 진출하여 두각을 나타내며 이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특히 소수 민족인 우리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하여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대로 필요한 바 유대인의 경우에서 그 본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승리하는 한민족이 되기 위하여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변화에 대비하여 '유비무환'의 준비를 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첫째, 21세기의 재미 한인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우선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자신의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전제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보려 한다. 21세기의 재미 한인사회는 외적, 내적 상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가 떠난 한국의 변화되는 시대상황과 공생 공존의 동반자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21세기 초반의 미국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정치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의 체제와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계속 세계의 강대국으로써 남아 있게 될 것이며 한국은 현재 IMF의 시련을 겪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극복한 경험으로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적 성장과 발전, 정치적 성숙, 남북간의 화해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1세기 세계 질서에 지대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동포 특례법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이 재미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 사회의 든든한 후견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내적으로는 미국이 계속 이민의 문호를 개방한다면 재미 한인동포의 수는 중국, 인도, 일본, 필리핀, 베트남등의 아시아계 민족들과 더불어 증가될 것이 틀림없다. 현재의 추세로 보아 히스패닉과 아시아인의 증가는 흑인인구와 함께 머지않은 장래에 이들 유색 인종들이 현 미국을 지배하는 백인들과 인구 비율적인 대등관계에서 경쟁적 상대자로서 미 주류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게 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우리 한인사회도 유창한 영어와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을 알며 미국의 문화가 몸에 배인 2세 3세들이 「glass ceiling」을 극복하고 미국 사회 전반에 진출하여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정치활동 참여가 현재보다 더 활발해질 것이며 또한 미국 정부내의 고위직에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므로서 제2의 김창준 전 하원의원, 그래햄여사, 고홍주 현 국무차관보 등과 같은 아니 그 이상의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 반면 2세 3세들의 탈한국적인 미국화 현상도 증가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1세들과의 가정적, 윤리적, 문화적, 사회적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한국이라는 조국을 둔 부모모들의 자손으로써 미국이라는 새로이 주어진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할 그들에게는 적자 생존의 원리로서 우리 1세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나, 그냥 미국화된 한인으로써가 아니라 자아인식이 뚜렷한 존재로서 한국적 민족 정체성을 잃지않고 미국화된 한국적 민족성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식당, 식품점, 세탁소, 청과점, 주류점, 편의점 등의 소기업에서 성공하여 대기업으로의 진출도 가능할 것이며 한인사회의 중심인 한인회등 각종 직능, 친목단체도 그대로 존재할 것이나 조직과 기능에 있어서 1세 중심에서 2세들이 실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종교적으로는 개신교, 카톨릭, 불교 모두 확장세를 유지할 것이나 영어를 구사하고 사고방식이 미국화된 2세 등 차세대들이 기존의 한국적인 신앙태도와 예배형식에 순종하며 따라갈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문화적으로는 21세기에도 미국에로의 한국이민이 계속된다면 그들과 함께 따라올 본국의 문화는 재미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민 1세들이 흔히 겪는 이중문화의 갈등에서 오는 문화충격과 이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 등(정신질환, 자살등)을 막기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서양 격언과 같이 이땅에서 주인 노릇하며 살기 위하여는 미국사회에 적응하고 그 사회에 알맞는 문화의식을 지니고 문화적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미국사회와 제도를 공부하고 아는 것은 필수적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는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인 마약과 섹스, 문제자녀와 가출, 폭력 및 이혼 등의 고민들을 겪게 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타민족과의 관계, 특히 흑인사회와의 마찰이 재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교육적으로는 누구보다 교육열이 강한 민족으로써 교육을 위한 이민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자녀교육에 성공하여 미 주류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약할 고급두뇌와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한인 2세 3세들 중에서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21세기의 재미 한인사회는 어떠한 지도자를 필요로 할 것인가.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21세기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우리 재미 한인사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는 먼저 꿈과 뜻을 갖고 설득하는 능력,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조리있게 설명하는 능력으로 사람과 단체를 움직이며 따르게하는 「리더쉽」으로 일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지도자의 덕목과 자질을 겸비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기성세대와는 달리 이 나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으로써 미국 교육을 철저히 받고 영어 구사에 불편함이 없으며 미국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한국말을 알고 말하고 읽고 쓸 줄 알며 한국과 한민족,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신의 뿌리를 인식하고 재미 한인사회에 대한 애착과 봉사, 그리고 사명감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나아가 한인사회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고 미 주류사회와 재미 한인사회와의 교량역할을 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한인사회의 권익을 위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을 위해서도 기여하는 균형되고 조화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도자를 어떻게 교육하며 훈련시킬 것인가.

「지도자는 많은 경우 시대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인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한인사회가 바라는 이러한 조건들을 갖춘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내일의 한인사회를 위해 일할 2세 예비 지도자들을 찾아내어 가르치고 훈련하여 21세기의 한인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상을 구현시켜야만 할 것이다. 이미 미국식 교육으로 미국적 사고방식과 미국적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며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2세들에게 굳이 또다른 의식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이민들이 자유와 평등, 박애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다민족국가이며 다인종사회인 까닭에 소수민족인 우리 한인인 민족의 한 단위로서 공동의 운명으로 살아남기 위함이다.

우리 한인이 이땅에서 이민으로 성공하여 이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 인종적으로 완전히 미국화되어 미국이 원하는 용광로(melting pot)에 녹아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1세들에게는 엄연히 나를 낳아준 부모와 조상이 태어나고 살아온 조국이 있고, 2세들에게는 그 피가 자신들의 몸에 흐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않될 것이며 또한 자신들이 태어난, 자신들이 살고 자신들의 자손들이 살아갈 미국이라는 다른 하나의 조국이 있음을 인식하므로서 이민으로 얻어진 두 개의 조국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교육과 훈련은 재미 한인사회의 존속과 번영, 발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이 작업은 2세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학교, 교회부속 주일학교, 교회 청소년반의 교육과정에서 더 나아가 한인회, 시민협회 등이 이를 맡아 행함으로써 소정의 목적을 이루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학교는 단순히 2세들에게 한국어만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되며, 한국을 알게 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며, 재미 한인사회의 이민역사를 철저히 배우고 알게 하여 우리가 미국에 온 이유와 이 미국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일찍부터 깨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얼을 간직하고 한국계 미국시민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여 다른 민족들과 평화스럽게 공생하면서도 다민족간의 경쟁속에서 승리하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성공한 재미 한인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것은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초기이민의 선각자들이 조국 광복운동을 위해 장기적 안목을 갖고 지도자들을 양성한 것처럼 우리도 현재 자라고 있는 2세 새싹들로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한인사회를 누가 이끌 것인가의 해답은 오늘의 기성세대가 우리의 2세들을 어떠한 지도자로 키우는가에 달려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시민협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은 참으로 크다고 하겠다. **시형**

시민협회의 고문인 박경민 박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및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 수련을 거쳐, 미국 마취과 전문의로서 Framingham Union Hospital의 마취과장과 보스톤 의과대학의 임상외과교수를 역임한 후 현재 Columbia Metrowest Medical Center에 근무하고 있다. 뉴잉글랜드 한인회 이사장, 뉴잉글랜드 한인회관 건립위원장, 뉴잉글랜드 한인 의사회장, 평화통일 자문위원, 뉴잉글랜드 한인회 고문, 뉴잉글랜드 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무총리 표창장을 받은 바 있고, 현재 보스톤 한미노인대학 교장으로 수고하고 있다.

Dr. Kyung Min Park, Advisor, graduated from the Medical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received his Ph.D. degree from the same university. He is currently working at the Columbia Metrowest Medical Center. He has served as the chairperson of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chair of the committee for the New England Korean Community Center, president of the New England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a member of the Advisory Council on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advisor of New England Korean-American Society, president of the New England Chapter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He received an award from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He is currently the Dean of the Korean Elder College of New England.

It was quite a significant event for the Korean community of New England that on April 10, the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KACL) (President Hong Kyun Choi) granted a scholarship of \$ 1,000 to each of the four 1.5th or 2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political interns who will be working in the state government or in the offices of the US representatives this summer, so that these students may have a first-hand experience of the mainstream political reality of America. I do hope that this was not just a one-time event, but will be continued annually as a regular event of KACL, just like movements to encourage voter registration, to help exercise the right to vote and to be voted, and to assist in acquisition of US citizenship. All these movements are in keeping with the stated objective of KACL to "actively encourage participation of Korean American citizens in mainstream American politics" and the scholarships in particular help the 1.5th and 2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transplant themselves onto the American political scene. Whereas there was just 1 scholarship recipient (Thomas Sunghoon Kim) in 1998, the number grew to 4 this year and this is an indication of the maturity and heightened political awarenes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e 1st generation Koreans have been too preoccupied with making a living in a foreign land and have had to struggle with language differences, cultural conflict, and visible and invisible racial discrimination. They looked at the mainstream American society, as if it were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with no relationship to them. They did not exercise their rights as citizens and neglected to enjoy the freedom and equality guaranteed in the American constitution. In order for minorities to live as equals in this society, they need to join the mainstream society and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s and government. Therefore, to nurture, educate, and support members of the younger generation going to the political forefront is a duty and responsibility of the first generation. As we look forward to the year 2000, KACL needs to review the past 9 years of its existence, analyze the various problems and tasks that face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oday, and project a constructive vision and direction to the next generation, if it is to carry out its objective and function.

I have discussed the same issue under the title "What I wish from KACL of New England" in the 6th volume of this journal in 1996. I emphasized then that we need to research how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going to be transformed in the 21st century, especially vis-à-vis the mainstream American society, and how the Korean community can participate in American politics and that we need to come up with strategies and a blue print for dealing with the anticipated transformation. I believe that KACL needs to project a vision of the future of America and of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should begin to be transformed into a policy organization. To accomplish this, I had proposed that KACL should establish a Think Tank within it. Since one of the problems fac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oday is how we can develop the leaders to lead the community in the 21st century, I had also proposed that we actively seek out and support members of the 1.5th and 2nd generations to get into the mainstream American society, especially American politics. We should now ponder how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going to change in the 21st century, who should be the leaders of the community, and what is necessary to train and educate such leaders.

Before we project the changes of the 21st century, it is necessary to retrace our immigration history and gain an insight into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o know oneself, one needs to dig his roots. Likewise, without knowing the history of Korean American immigrants, we cannot hope to relate and connect our present to our future.

Korean immigration began around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when the Chosen dynasty was waning and was getting annexed by Japan. Many farmers whose very livelihoods were threatened and political leaders involved in independence movements formed the first wave of immigrants. The initial destinations were mostly nearby regions like Yanbian, Manchuria, and Mainland China. Officially, however, the first mass immigration was to Hawaii and Mexico. (2003 will mark the centennial year of Korean immigration to Hawaiian sugar cane plantations.) Next, during the WWII, the Japanese imperialists forcibly took Korean young men to be soldiers in Japan, Sakhalin, Manchuria, China, and the South Pacific and to be laborers in prisoner

camps, airports, mines, and war factories. Many Korean young women became sacrifices for the "comfort" of Japanese soldiers. We should never forget this historical fact and should alert ourselves so that this kind of shame and tragedy does not befall our people again.

Against this backdrop, it was only natural that the overseas Koreans raised torches of independence of the fatherland and became patriots and independence fighters. Indeed it is not an overstatement to say that the Korean American immigrant history from 1903 to 1945 was one of independence movements. The first immigrants to Hawaii and the continental U. S. had to absorb the agony of people with no country, who could not even be naturalized because of pervasive public opinions of "Yellow Peril" and because of institutionalized discrimination. They made a living as laborers, restaurateurs, vegetable store keepers, barbers, and laundrymen. In California in 1913, the Alien Land Act was proclaimed and made it impossible for immigrants to own land. Korean, Japanese, and Chinese immigrants could not own land, houses, apartments, or stores in their own names; even 2nd generation Koreans who were born citizens of the U. S. could not dream to work in white collar jobs alongside the main stream white people.

Even in the middle of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the early Korean immigrants were zealous of independence and unsparingly contributed funds to the independence movements with what they toiled to earn in Hawaiian sugarcane plantations, Californian grape farms, and Colorado mines. In fact, they were responsible for almost the entirety of the budget of the Korean government-in-exile in China. Their dedication was a living lesson and fine example for today's immigrants to emulate and follow. Independence movement leaders such as Dosan Changho Ahn, Woonam Syngman Rhee, and Woosung Yongman Park were committed to leadership training, each in his own way and all for the same objective of the liberation and independence of the fatherland, and left a fine example for us all to follow.

Dosan Changho Ahn believed that since the Korean people lost the nation because of lack of power, we had to become powerful and righteous people in order to regain our nation.

In 1913, he organized "Heung-sah-dahn" in San Francisco and averred that to train young people to have a clean heart and capable mind was the first step towards independence of the fatherland. He presented the 4 principles of truth, good deeds, loyalty, and courage and the 3 methods of training for knowledge, virtue, and health. Heung-sah-dahn began with 8 members, but grew to a membership of 150 in 6 years. This organization, along with the more political Korean People's Assembly which promoted unity among overseas Koreans, represented the essence of Dosan and even today continues to reflect his philosophy and will.

Another figure who cannot be overlooked in the annals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s Woosung Yongman Park. Whereas Changho Ahn trained Korean young people through Heung-sah-dahn, Yongman Park believed that Korean independence could only be achieved through military power ("Words are not enough. You need real power. Real power is military power."). In 1909, he established the Korean Military Academy in Nebraska and graduated 30 people in 3 years. Although small in number, academy students attended American schools or labored during the day and received military training at night. The military training was conducted not only in Nebraska, but also in other Korean-residing states such as Wyoming, Kansas, and California. At one time, there was even a pilot training school in California. When Yongman left Nebraska in 1910 to be in charge of military training for Hawaii Korean Society, there were 200 Korean young men in training in Oahu and Maui. In 1914, there was even a Korean army corps of 300 men. Most of these young men were immigrant farmers in sugarcane plantations; they worked on the plantations during the day and received military training at night. Their energy and dedication were indeed laudable. They prepared themselves in order to be useful for the fatherland some day and many of them joined the allied forces to fight Japan during WWII and participated in Operation OSS of the U. S.

Lastly, another towering figure in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alongside Changho Ahn and Yongman Park was Woonam Syngman Rhee, who painted a huge stroke of a brush in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erved as its first president until

the 4. 19 Revolution in 1960. He had a unique notion that independence of the fatherland should be achieved through diplomacy and that for the wellbeing of the Korean people, education is more important than military power and should precede any independence movement. To expound his ideas, he built the Center School (a Korean school) for training of Korean leaders in Hawaii.

What should we learn from these forefathers? What we should learn is that even in the midst of toil and sweats, these early immigrants had the singular objective of liberation of the fatherland, looked beyond their immediate livelihoods, and diligently educated members of the next generation and developed leaders. We should continue their precious ideals and spirits and recruit, educate, and train potential leaders of the next century for the continued existence, development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now looking towards the centennial of immigration that began in 1903 as laborers for Hawaiian plantations and saw new waves of immigrants after the passage of new immigration laws in 1965. The community now numbers around 2 million, combining the early and late immigrants. In every major city of the U. S., there is a Korean society. Korean immigrants have worked hard and achieved economic stability and have become a model of successful immigrants, perhaps second only to the Jews.

However, i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take roots in this land, economic success is not sufficient; we need to get into the mainstream arenas of politics, culture, society, and sciences and become outstanding and influential contributors in the society. In order for us minorities to be guaranteed our rights, we, as individuals and groups, should participate directly and indirectly in and demonstrate interest in politics. The Jewish community set a good example in this regard. As the 21st century approaches, we should heed the adage that when one is prepared, he can forestall adversities. In preparation, I would like to discuss a few issues.

First, how will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change in the 21st century?

I would like to preface by saying that it is not an easy task for an individual, group, or a

nation to foresee its future.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of the 21st century will be affected by both external and internal events. Externally, the U. S. where we live in now and Korea which we left will be partners for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Barring seismic changes in the political landscape, the U. S. will maintain free democracy and market economics and remain a world superpower. Korea, although currently going through the turmoil of the IMF era, will surely overcome it and join the ranks of the advanced nations through fantastic economic growth, political maturity, and reconciliat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Furthermore, Korea is expected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world order of the 21st century. Through special laws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such as the current government is promulgating, Korea will be trustworthy supporters of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not only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but also other overseas Koreans.

Internally, if the U.S. continues to maintain favorable immigration laws,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will undoubtedly continue to grow, along with other Asian communities such as Chinese, Indian, Japanese, Filipino, and Vietnamese. At current pace, the "minorities" comprising the Hispanics and the Asians as well as the blacks will come to outnumber the white people and to compete with them as equals in all areas of the society.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will produce 2nd and 3r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who are fluent in English, educated in America and are familiar and comfortable with American culture, who will overcome the "glass ceiling" and become prominent in the main society. There will be a greater participation in political activities than now and appointments to important government posts will become realistic possibilities. Important figures who exceed the former U.S. Representative Jay Kim, Mrs. Graham, and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Harold Hongjoo Koh are expected to appear. At the same time, Americanization of the 2nd and 3rd generation Koreans will continue as well and in the process create familial, ethical, cultural, and societal conflicts with the 1st generation Koreans. This problem is a necessary byproduct of the fact that our sons and daughters have to survive in a new, alien land called America. The first generation should understand it positively and teach our sons and daughters not to be merely

Americanized Koreans, but to have a clear sense of their identity and not to lose sight of their Korean background.

Economically, many will succeed in small businesses such as restaurants, food and fruit stores, dry cleaners, liquor stores, and convenience stores and may go on to a bigger business. Korean societies and various Korean fellowship organizations will change their orientation from the first generation to the second generation. In religion, Protestants, Catholics and Buddhists will all continue to grow; however,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second generation who is more fluent in English than Korean and whose ideas have become Americanized will abide by the faith and worship patterns of their forefathers. Culturally, if Korean immigration continues to the U. S. in the 21st century, the culture that the new immigrants will bring with them will have an influence on the thought pattern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erefore, we should be prepared to deal with various side effects (psychological problems, suicides, etc.) of cultural shock from cultural dualism. As the western adage states, "If in Rome, do as the Romans do," if we are to live in this land as the hosts and owners, we should adapt to the American society, adopt the American culture, and pay heed not to get into cultural conflict. To this end, it is a must to study and learn about American society and its system.

Socially, we will be presented with the evils of the American society such as drugs, sex, problem children, broken families, violence, and divorce. We should also be watchful of any conflicts with other communities, especially of any recurrent conflict with the black community. With respect to education, as much as we take pride in having educational zeal second to none, we can anticipate to produce highly educated and talented brainpower for the society.

Second, what kind of leaders does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of the 21st century need and require?

Leaders who will lead the community through the complex and multidimensional changes of the 21st century should have the virtue and ability to have a clear vision and will, to be persuasive enough to move hearts and people, and to explain his views system-

atically. Unlike the immigrant forefathers, the leaders should be born citizens of the U. S., educated in the U. S., and be fluent not only in English and American culture, but also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Korean language, people and culture and of their own roots. They should have a basic love of and dedication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ave a sense of mission for the community, and, with a clear vision for the community, act as a bridge between the community and the rest of the American society. The leaders should not be partial to either the community or the American society, but should have the balance to simultaneously promote the rights of the community and contribute to the main society.

Third, how should we educate and train such leaders?

There is a saying that a leader is not born a leader, but is a product of his era. We cannot just wait for leaders who meet all the above conditions to appear before us. Rather we should seek out, teach, and train future leaders whom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of the 21st century needs. The reason why the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who have already been educated in the American way and been immersed in its way of thinking should additionally be taught another way of viewing and thinking is that America is a multiracial society where many peoples have come together to form a nation to realize the ideals of freedom, equality, and love and that we Koreans need to survive as a unit with an identity in this multidimensional society.

The concept that we become successful immigrants and owners of this country does not imply that we become totally Americanized socially, culturally, and racially and melt away in the giant melting pot. For those of the first generation, there is our fatherland that gave our parents and their forefathers. Likewise, for members of the second generation, they share the same blood and heritage as the first generation, but also have a second fatherland where they were born, now live, and will leave their children to live. They have 2 fatherlands that command their dedication. Their training is directly related to the continued existen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should begin in their homes.

(Continued on Page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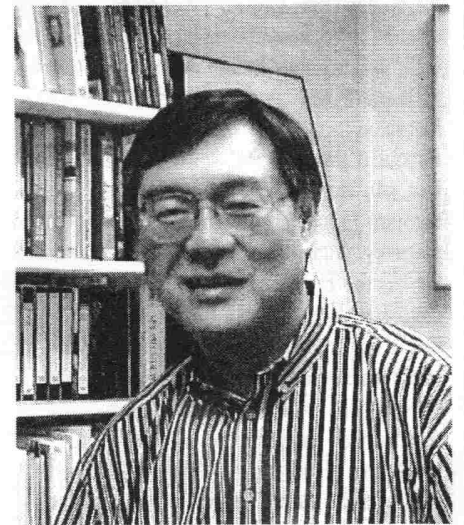
The Asian American population now numbers over 10 million and is predicted to reach 34 million by the middle of the next century. At that time, Blacks, Latinos, and Asian Americans will constitute a much larger portion of the nation's population roughly equaling the white population. Rapid change of this magnitude assuredly means challenges - for the nation as a whole, for non-whites, for Asian Americans, and for specific Asian American communities including Korean Americans. How the society deals with these profound transformations will have large and inescapable consequences for Asian Americans. What will be the role of Asian Americans in confronting these changes? What are the prospects for Asian Americans to enhance their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positions? What alternative strategies should Asian Americans as a group and Korean Americans specifically consider to meet the man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ccompanying change? Can Asian Americans from diverse backgrounds band together to expand their educational capabilities, their political clout, and ensure that their civil rights are protected?

In order to address these critical questions about the present and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ways in which Asian Americans have been dealt with historically.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how and why Asian Americans have been racialized along a broad spectrum as "the model minority" on the one hand and as perpetual "foreigners" on the other. Why have certain stereotypes and assumptions proven so resilient? This is not to say that the past must determine the course of the future, but assuredly it would be foolish to ignore where Asian Americans have been and how they have been regarded before charting new directions. Critical as well are the ways Asian Americans have themselves regarded others and each other. With these understandings in mind, Asian Americans can begin to fashion appropriate agendas, to develop strategies to

further them, and to marshal the resources necessary for success. In short, Asian Americans can then go about the business of building a better future for themselves, their families, and their nation and see to it that the challenge of change means more and better opportunities for everyone. **KACL**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인구는 현재 약 1천만명이 넘으며 다음 세기의 중간에는 3천4백명이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흑인과 남미인들과 아시아인 아메리칸들이 백인 인구와 거의 맞먹는 분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빨리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미국 전체로나, 유색인종에게나 한인 미국시민을 포함한 아시아인 아메리칸들에게 여러 가지 도전이 있게 마련이다. 이 사회가 이런 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아시아인 아메리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대면하고 있는 우리 아시아인 아메리칸의 역할은 무엇이며, 우리들의 정치적, 사회적, 또한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망은 어떠한가? 한 단체로서의 아시아인 아메리칸들 특히 한인 미국시민들이 이러한 도전 및 이 변화에 수반되는 여러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시아인 아메리칸들이 교육적인 능력이나, 정치적인 단결을 신장하며 또한 우리들의 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연 서로 뭉칠 수 있을 것인가?

현재나 미래의 이런 중요한 문제를 거론하기 위하여는 역사적으로 우리 아시아인 아메리칸들이 어떻게 취급되어 왔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우리 아시아인 아메리칸들이 한편으로는 "모델 소수민족"으로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외국인"으로 어떻게 그리고 왜 차별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왜 이런 전형적인 고정들이 아직도 계속 남아있는가? 이것은 과거가 반드시 미래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 아시아인 아메리칸들이 과거에 어디 있었으며 또 어떻게 여겨져왔는지를 무시한다면 매우 경솔한 짓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똑같이 중요한 것은 우리 아시아인 아메리칸들이 우리 자신들을 또는 서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야 우리 아시아인 아메리칸들이 적절한 안전을 마련하고, 그것들을 진척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며, 또한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이러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우리 아시아인 아메리칸들은 우리들 자신이나 우리들의 가족, 또는 우리들의 나라를 위하여 더 나은 미래를 세우며, 이 변화의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더 많고 더 나은 기회를 의미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시현**

와다나베 박사는 아시아인 아메리칸 연구소의 소장이며 UMass Boston의 정치과학과의 부교수이다. 매사추세츠 이민 및 난민 변호연맹 이사회의 부회장, 아시아인 태평양 아메리칸 정책연합(APAAC) 및 가정 내 폭력방지 아시아인 전담반의 이사로 있으며 또한 JFK 도서관의 학술자문위원회와 아시아인 아메리칸 정책 검토 전국 학술회의의 위원으로 수고하고 있다. 두세권의 책을 집필하였으며, 여러 잡지에 많은 논문이 실렸고 전국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여러 방송국, 라디오 혹은 신문에 기고를 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Since its founding a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in 1993, the Institute for Asian American Studies has brought together resources and expertise from both the community and university and has gained a national reputation as an advanced center for the study of the Asian American experience. The Institute is part of a network of campus-based centers and institutes, including the Trotter and Gaston Institutes which play comparable roles for the state's Black and Latino communities and which contribute to UMass Boston's unique, multicultural research capacity. The Institute informs policymakers, service providers, educators, foundations, the media, and community groups about issues such as demographic trends, immigration, economic development, health care, civil rights, education, and other public policy concerns. In addition to conducting community-oriented research, the Institute supports numerous community-based initiatives to further its mission of strengthening Asian American communities. The Institute also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Asian American studies in the curriculum and promotes cultural events and programs

Among its many accomplishments, the Institute:

- 1) Analyzed and published key demographic data on Asian Americans in reports such as its series, Community Profiles in Massachusetts: Asian Pacific Americans.
- 2) Supported over fifteen research fellows who, in forums and publications, have presented original work on topics relating to community development, youth leadership, public health, and the arts.
- 3) Provided valuable assistance and expertise to a variety of community organization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support network for executive directors of Asian American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 4)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youth leadership through programs such as the Coalition for Asian Pacific American Youth and Youthwrites.
- 5) Explored the Asian American experience

through performances, films, art exhibits, readings, concerts, and workshops.

- 6) Contributed to UMass Boston's Asian American studies curriculum by supporting courses such as Asian Minorities in America, Asian American Women, and Southeast Asian Americans.
- 7) Convened the first conference on Asian Americans in public higher education in Massachusetts.

In order to keep pace with the dramatic transformations affecting Asian Americans, the Institute for Asian American Studies must continue to grow and adapt. Accordingly, the Institute has recently embarked upon an endowment fund campaign. Contributions to this effort will help ensure that the Institute's important initiatives will be expanded. **KACL**

1 993년 UMass Boston에 세워진 아시아 아메리칸 연구소는 지역사회와 대학으로부터 자료 및 전문지식을 모아왔고, 아시아 아메리칸들에 대한 연구를 위한 전문센터로 전국적으로 알려져왔다. 이 연구소는 매사추세츠 주내의 흑인과 남미인들을 위한 Trotter and Gaston 연구소를 포함한 대학에 속해있는 일련의 센터와 연구소들중의 하나이며, UMass Boston의 독특하고 다중문화적인 연구시설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정책수립가나 공공봉사기관, 교육가나 재단, 매체나 지역사회 단체들에게 인구분포, 이민, 경제발전, 보건복지, 민권, 교육, 또는 기타 공공정책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에 더하여 아시아 아메리칸 지역사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이 이들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교과과정에 있어서도 아시아 아메리칸들의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며 문화 행사나 계획들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행한 여러 가지 업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아시아 아메리칸들의 중요 인구분포 자료들의 조사 및 발간. 대표적인 것으로 '매사추세츠 주내의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칸들의 지역사회 분포'가 있다.
- 2) 15명 이상의 연구원들을 보조하여 지역사

회 발전이나 청소년 지도, 공중보건 또는 예술에 관한 항목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책자를 내게 함.

- 3) 아시아 아메리칸 지역사회 기관들에게 값진 보조와 전문지식 제공 (이들 기관 대표자들의 보조 네트워크를 포함)
- 4)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칸 청년 연합회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리더십 개발에 공여.
- 5) 발표회, 영화, 미술전람회, 독서회, 콘서트 혹은 워크샵들을 주선하여 아시아 아메리칸들의 문화 소개.
- 6) 「미국내의 아시아 소수민족」, 「아시아 아메리칸 여성」, 「남동 아시아 아메리칸」 등의 과목을 보조함으로써 UMass Boston의 아시아 아메리칸 연구 교과과정에 기여.
- 7) 매사추세츠 주의 공립 고등교육에 관계된 아시아 아메리칸들의 제1회 대회 개최.

아시아 아메리칸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 큰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아시아 아메리칸 연구소는 계속 성장하며 적응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근간에는 기부금 모금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아시아 아메리칸들을 위한 이 연구소의 중요한 선도역할이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이 모금운동에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시행 (한국어 번역: 이의인)

Dr. Paul Y. Watanabe is currently co-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Asian American Studies and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the U. Mass Boston. He serves as Vice Presid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Massachusetts Immigrant and Refugee Advocacy Coalition, a member of the Boards of Directors of the Asian Pacific American Agenda Coalition and the Asian Task Force Against Domestic Violence. He is also a member of the Academic Advisory Committee of the JFK Library and the National Academic Board of the Asian American Policy Review. He is the author of Ethnic Groups, Congress, and American Foreign Policy and co-author of A Dream Deferred: Changing Demographics, Challenges, and New Opportunities for Boston. His articles have appeared in Political Psychology, World Today, Public Perspective, Asian American Policy Review, and Business in the Contemporary World. He received his Ph. D. in Political Science from Harvard University. He regularly contributes analysis and commentary to national and local television, radio, newspapers, and newsmagazines.

The Massachusetts Asian American Commission was established by Governor William F. Weld in 1992 to advise the Governor on Asian American affairs. The Commission is comprised of 30 business and civic leaders from a wide range of Asian American communities. Dr. Susan Roosevelt Weld and Mr. Ilyas Bhatti were the AAC's first co-chairs. Currently, Mrs. Atsuko Fish and Mr. Nam Van Pham lead the Commission. All Commission members are unpaid volunteers.

Korean American commissioners have played an instrumental part in all AAC's activities through out the years. Since the inception, Ms. Kija Kim and Mr. Seung Choi have helped develop AAC's agenda from economic development issues to civil right advocacy to political participation. Recently, the AAC is fortunate enough to have Dr. Hong Choi as its newest commissioner. Governor Cellucci appointed Dr. Choi this past spring.

The AAC has organized several subcommittees to focus on major issues that include Economic Development, Immigration, Culture and Civil Rights. The AAC also coordinates and cooperates with state agencies, local and national Asian-American organizations and makes recommendations on appointments to state government and boards. When appropriate, the AAC also attempts to support and facilitate the resolution of local and community problems.

In 1996, the AAC held town meetings throughout the state and learned that two issues were repeatedly expressed as major concerns: (1)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and (2) the existence of a glass ceiling which unfairly denied Asian Americans either job opportunities or advancement opportunities.

In response to these concerns, the Civil Rights Subcommittee for the Asian American Commission engaged Tom Lun-nap Chung, Ph. D., to prepare a report for the Governor in the spring of 1997. To address

the hate crime issues, the AAC collaborated with other organizations to prepare and distribute the Asian American Civil Rights Resource Guide. It was published in English, Chinese, Khmer and Vietnamese. To address part of the glass ceiling issue, the subcommittee has been collaborating again with the Massachusetts Office for Refugees and Immigrants (MORI) to publish the 2000 edition of Outstanding Asian Americans in Massachusetts. This unique publication will showcase the successes and contribution of Asian American to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It will also be used as a reference for government appointments or corporation recruitment.

The AAC has actively promoted our community's other interests. For example, it has worked with other state agencies such as the Massachusetts Office for Refugees and Immigrants to ensure that Asian immigrants have equal access to government services and protection. Many AAC's members have worked hard to raise fund to support the Asian Task Force Against Domestic Violence. The AAC lobbied the State to provide funding to establish the Institute of Asian Americ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The Economic Subcommittee organized business and finance seminars at MIT to help Asian American businesses. The Cultural Subcommittee sponsored and organized cultural events at the Hatch Shell or in Lowell in the past.

Beginning in September, the ACC and MORI again will held four town hearings around the State to report back to the community AAC's progresses and challenges in helping our community to continue to advance. These town hearing will take place in Springfield (September), Lowell (October), Quincy (November) and Boston (December). We hope that the Korean community will come to these hearing to let us know your concerns.

The AAC meets monthly on the last Monday of each month. Community or-

ganizations and individuals are invited to attend these meetings to make presentations, proposals and give their input to the Commission. We encourage member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AAC activities. The AAC strives to be a vehicle for our Asian American's causes. Our strength comes from the community. By working together, we can make Asian American less invisible and have more influence to protect and advance our interests. We look forward to receiving your advises. **KACL**

남 반 팜 씨는 현재 매사추세츠 통상사무소의 부소장이며,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매사추세츠 난민 및 이민사무소의 소장으로 있었고 1987년부터 1994년까지는 First National Bank of Boston에서 근무하였다.

1983년 워싱턴에서 대통령 관리 인턴으로 공공봉사를 시작하였으며 1984년부터 1985년까지 하버드대학의 케네디정부학교의 프로그램 예산담당이사로 봉사하였고, 매사추세츠 국제통상 및 투자 사무소의 계획담당이사로 공공 봉사를 계속하게 되었다.

팜씨는 미네소타대학에서 상과 학사를 받았으며 하버드대학의 케네디 정부학교에서 정치경제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Mr. Nam Van Pham is Deputy Executive Director of the Massachusetts Trade Office. From 1994 to 1998, he served as Commissioner of Massachusetts Office for Refugees and Immigrants. From 1987 to 1994, he was employed at the First National Bank of Boston.

Mr. Pham first entered public service in 1983 as a Presidential Management Intern in Washington, DC. From 1984 to 1985 he served as Program Budget Director at Harvard University's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e returned to public service in 1985 as Program Director at the Massachusetts Office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Mr. Pham earned his BS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the University of Minnesota, and received his MPA in Political Economy from Harvard University's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매사추세츠 아시안 아메리칸 위원회 (AAC)는 1992년에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주지사에게 자문을 하도록 당시 주지사였던 웰드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여러 아시안 아메리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30명의 사업가 및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잔 웰드 박사(웰드 주지사 부인)와 일리아스 바티가 처음으로 공동회장이었으며, 현재는 아추코 피시 여사와 남 반 판 씨가 공동회장으로 있는데 위원회의 회원들은 모두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한인 아메리칸 위원들은 계속하여 AAC의 활동에 큰 기여를 하여왔다. 설립시부터 김기자 여사와 최승훈 씨는 경제개발문제로부터 민권옹호 및 정치참여에 이르기까지 AAC의 안건들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근간에는 지난 봄에 셀루치 주지사가 최홍균 박사를 새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AAC는 경제개발, 이민, 문화 및 민권 등을 포함한 중요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몇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주정부 기관과 이 지역 및 전국의 아시안 아메리칸 기구들과 상호 협조하여 주정부의 인사 및 정책 결정에 조언을 한다. 또 필요할 때에는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1996년에 가진 주내의 여러 도시의 회합에서 두가지의 주된 관심사가 제기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에 대한 인종혐오성 범죄이고 또 하나는 취업 기회나 진급에 있어서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유리 천장(glass ceiling)」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위하여 민권 소위원회는 Tom Lun-nap Chung 박사로 하여금 1997년 봄에 주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혐오성 범죄 문제에 대하여 AAC는 판 기관과 연합하여 「아시안 아메리칸 민권 자료안내서」를 영어, 중국어, 크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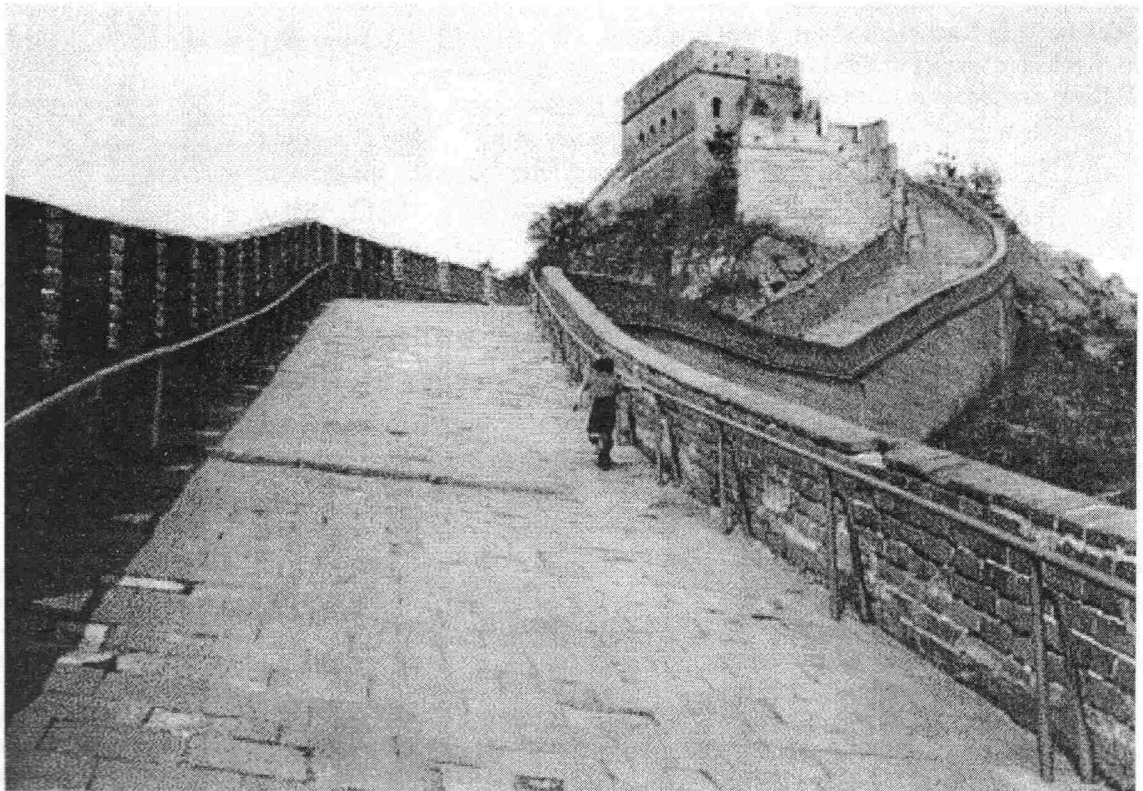
르어 및 베트남어로 발간 배포하였으며, 유리천장의 문제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나마 소위원회가 매사추세츠 난민 및 이민사무소(MORI)와 협력하여 매사추세츠 주내의 우수 아시안 아메리칸 방명록(2000년 판)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 책자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성공 사례와 매사추세츠 주에 대한 이들의 기여를 수록하였는데 주정부 인사임명이나 회사의 인재등용에 참고가 될 것이다.

AAC는 또한 우리 지역사회의 다른 관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MORI와 같은 주정부 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아시안계 이민자들도 정부의 동일한 봉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수의 AAC 위원들은 아시안 가정내 폭력방지 전담반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매사추세츠 대학내에 아시안 아메리칸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주정부에서 자금을 제공하도록 로비활동도 하였다. 경제 소위원회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사업을 위해 사업 및 재정 세미나를 MIT에서 개최하였으며, 문화 소위원회는 과거에 Hatch Shell이나 로웰에서 여러 문화행사를 주관하였다.

9월부터는 AAC와 MORI가 연합으로 네 도시에서 공청회를 열어 AAC의 사업진행 과정과 우리의 지역사회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도전들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일을 할 계

획으로 있다. 이 공청회가 개최될 장소는 스프링필드(9월중), 로웰(10월중), 퀸시(11월중)와 보스톤(12월중)이다. 한인 미국시민들도 이 공청회에 많이 참여하여 한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AAC에 알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AAC는 매월 마지막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다. 지역사회의 기구나 개인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표를 하거나 제안을 함으로써 위원회에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인 미국시민들도 적극적으로 AAC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AAC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문제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참여가 곧 AAC의 힘이 될 것이다. 함께 일함으로써 우리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으며 우리들의 관심을 더욱 더 보충하고 진작시키는 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자문을 해주기를 바란다. **사형** (한국어 번역: 이의인)



The Asian Pacific American Agenda Coalition (APAAC) is gearing up for a new electoral season. This year APAAC will concentrate on three activities. For the past few years, the APAAC has established its report card on political candidates as an important source of electoral information for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While we are investigating other towns currently, we will focus our annual report card on the Boston City Council races. APAAC has also been a formal vehicle for members of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to express electoral preferences, recommending candidates who support Asian American issues. Last year for the first time we organized an exciting gubernatorial forum, which was broadcast a cable TV. We joined KACL in supporting Scott Harshbarger for Governor.

More recently, APAAC has played a role in supporting Asian American candidates, most notably in the successful run of Amy Mah Sangiolo for Newton Alderman. This year, we will be supporting Rithy Uong's candidacy for City Council in Lowell. Rithy is the first Asian American to run in Lowell and has a good chance of winning a seat. We have participated in voter registration and fundraising to see that Rithy succeeds in Lowell.

The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o comprise APAAC are responsible for its progress and the increasing visibility of Asian Americans. By the various ethnic groups collectively working together, we have created an effective vehicle for a common goal of politically advancing Asian American issues. KACL's participation in creating a critical mass of civic participation has been important. Along with Korean American for Progressive Action and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Americans, KACL represents a growing and important Korean American community, whose members have become active both as candidates such as Seung Hoon Choi and appointed officials such as Howard Koh. Orson Moon has been the vice president for three years now and KACL's repre-

sentative to APAAC, Song-Kun Kim, is part of an important Korean American presence in the body.

We will be preparing for a major community conference in 2000 to renew our agenda and accountability to our constituents. We hope that the Korean American issues, reflecting the growing Korean American presence, will play a larger part in constituting the new agenda.

APAAC welcomes as always any interest people may have as individuals or organizational representatives in participation in its activities. If APAAC's presence is useful to KACL's organizational members, we would also be happy to come speak. We hope that KACL will be successful in its important work on behalf of Korean Americans. **KACL**

아시안 태평양 아메리칸 정책 연맹(이하 APAAC)에서는 새 선거해를 대비하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세가지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몇 년동안 아시아인 아메리칸 지역사회에 정치후보자들에 관한 선거 자료를 제공하여 왔다. 현재에는 다른 도시를 조사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스톤시의 시의원 선거에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아시아인 아메리칸 들의 관점을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를 추천하여 그들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선거인 토론회를 마련하여 케이블 TV로 중계까지 되었었다. 한인 미국 시민협회와 함께 주지사 후보인 스캇 하시바거를 지지하였다.

근간에는 아시아인 아메리칸 후보자들을 직접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특히 뉴튼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에이미 마산 지올로가 당선되었다. 올해에는 로웰 시의회에 출마한 리티 우옹 후보를 지지하려 한다. 리티는 로웰에서는 처음으로 출마한 아시아인 아메리칸으로써 당선될 확률이 매우 크다. 선거인 등록에 참여했으며 모금도 하였다.

APAAC에서 일하는 기구들이나 개인들은 책임있게 발전에 기여하며 아시아인 아메리칸들의 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다. 여러 민족들이 함께 일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우리 아시아인 아메리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어왔다. 한인 미국 시민협회가 참여하셔서 민권운동의 크리티컬 매스가 형성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한인 미국시민 진출운동이나 한인 미국시민 전국연합과 더불어 한인 미국 시민협회는 커져가는 한인 미국 사회를 대표하고 있는데 한인 미국 시민협회의 회원들은 최승훈과 같은 후보나 하워드 고와 같이 임명된 관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오손 문은 지금까지 3년동안 APAAC의 부회장으로 있으며 한인 미국 시민협회의 대표 자격으로 APAAC에서 수고하고 있는 김성근씨는 한인 미국시민을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APAAC은 우리들의 관심사를 새롭게하며 구성원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0년에 주요한 지역사회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한인 미국시민들의 커져가는 존재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관심사들이 APAAC의 새로운 안건들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APAAC은 언제든지 관심있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우리들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들이 한인 미국 시민협회에 참석하여 기꺼이 발언할 것이다. 한인 미국시민을 대신하여 협회가 성공적으로 그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한다. **시현** (한국어 번역: 이의인)

류씨는 UMass Boston의 아시아인 아메리칸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가상 구조 및 기술회사'의 사장으로 있다. UMass, Boston에서 공공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차이나타운 태생으로 보스톤에서 25년의 지역사회 봉사경험이 있다.

Mr. Liu works as a research associate at the Institute for Asian Americ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f Boston and is the President of Virtual Organizing and Technologies, a business and organizational services company. Mr. Liu received his Ph. D. in Public Policy from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f Boston. A native of Boston Chinatown, he has a twenty five year history of community work in Boston. He is the former Executive Director of the Asian American Resource Workshop.

For the past eight weeks, I have had the good fortune of working as a legislative intern for State Representative George Rogers of the 12th Bristol District, New Bedford. Currently, Representative Rogers is a member of the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Working directly with the Representative, I quickly became aware of the vast importance placed upon the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The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along with its counterpart committee in the Senate, is mainly responsible for presenting budget recommendations in relationship to the respective fiscal year. Hence, one of the Committee's most daunting tasks is upholding, to a great degree, the fiscal responsibility of the Commonwealth's budget.

Needless to say, I became all too familiar with the mechanics surrounding the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The Committee, in essence, plays a vital function in the dynamics of state government, primarily because any type of policy construction rests upon the spending decisions that are recommended by this significant committee.

In addition to becoming familiar with the dynamics surrounding the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I also spent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responding to constituent concerns. By telephone, mail and Internet, I would routinely answer constituent inquiries concerning the status of specific types of legislation that were filed. Topics of these bills included abortion, banning smoking entirely from public restaurants, and the possibility of legalizing casino gambling in Massachuset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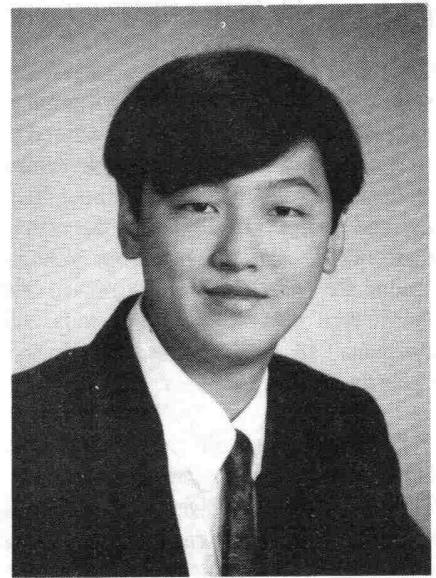
Working for the Representative, I ascertained first-hand the demanding nature of the profession. A state representative undertakes the formidable two-fold task of representative and legislator. He (or She) is required to represent his district, and,

equally important as it is difficult, to make laws for the good of the entire Commonwealth. As a full-time profession, then, a state representative spends a great deal of time in both his district offices and the State House office.

As a result, some state representatives travel at greater lengths than their colleagues to attend formal and informal sessions, as well as committee hearings. Therefore, the arduous task of a state representative should in no way be understated. Incidentally, I should also mention that, besides his role as state representative, Representative Rogers also serves as a Councilor-At-Large for the city government of New Bedford. Public service is not something foreign to his political vocabulary.

With the support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I have had the enriching opportunity to work in state government. I had to synthesize the knowledge that I acquired during my undergraduate years and apply these invaluable tools to the political landscape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I realized that today, more than ever, our state's future will be decided b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oughtful individuals, without regard for the color of our skin or the shape of our eyes. I know that for myself, this internship has proven to be a stepping-stone on the way to meeting this important challenge facing our state. It is my sincere hope, then, that the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average citizen of the Commonwealth will bring him much closer to the inner dynamics of state government. **KACL**

지난 8주동안 나는 뉴 베드포드의 제12 브리스틀(Bristol) 지역의 주 하원의원인 조지 로저스(George Rogers)의 사무실에서 입법부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행운을 가졌다. 현재 로저스는 주하원의 재원위원회의 위원이다.



주 하원의원과 함께 일하면서 나는 하원의 재원위원회에 주어진 대단히 큰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주하원의 재원위원회는 주상원의 재원위원회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한 예산 초안을 작성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이 위원회의 크나큰 임무중의 하나는 주예산의 재정적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재원위원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하여 훤히 알게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요약하여 말하면 이 위원회는 주정부의 움직임에 없어서는 안될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종류의 정책수립이건 간에 바로 이 위원회가 추천한 경비 지출 결정에 그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주하원 재원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알게된 것에 더하여서는 나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여러 가지 입법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데 할당하였는데, 전화나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상정된 여러 가지 형태의 법조항의 진척여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하여 대답을 하곤 하였다. 이런 법안에는 낙태, 식당에서의 완전금연, 매사추세츠 주내에서의 합법적인 도박장 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32 페이지로 계속)

On June 14, 1999, I started my Summer Internship at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in Boston, Massachusetts. The Summer Internship Program at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is offered to law students, college, and high school students as well. There were about 40 of us, and except 3 or 4 interns, the rest of them were law students from schools around the country. I did not realize that there were many different bureaus and divisions, all working for the Massachusetts citizens' interest.

I was assigned to the Civil Rights Division in the Public Protection Bureau. The Civil Rights Division deals with various discrimination cases, representing the State of Massachusetts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any parties that had acted with discriminatory intent. Anyone who claims that he or she has been discriminated against another party, can file a complaint to the MCAD (Massachusetts Commission Against Discrimination). Once the MCAD get a complaint, they investigate, makes preliminary report on the finding, and transfer the work to the Civil Rights Division. There were various topics (race, handicap, age, sex, housing, etc.) and myself and other Summer Interns helped several Assistant Attorney Generals by doing legal search, writing legal memorandums, observing various court proceedings.

Because of the security reason, I was warned not to talk about any of the case that is currently being processed by the division. Unlike the law school, these were real cases, with real people being litigated in a court of law. I was excited that I was offered such opportunity to work closely with one of the most talented lawyers in Massachusetts, but it also gave me great pressure to complete the job, unlike I have ever experienced in law school.

While the first year law school emphasized teaching students the method of "thinking like a lawyer", the real life job

involved writing legal memorandums, doing legal research by finding relevant cases, and doing other various office works. Not only did I acquire great legal research skills, but I have also learned a lot about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the Massachusetts government system, as well as acquiring valuable interpersonal skills.

I was very fortunate to get such great experience at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for nine weeks. The information that I have gained will help me throughout my career. Once again, I would like to thank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for helping me to acquire such valuable experience. **KACL**

1 1999년 6월 14일부터 나는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톤 시에 있는 검찰총장 사무소에서 여름방학 동안 인턴을 시작하였다. 이 인턴 프로그램은 법학생은 물론 각대학 및 고등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약 40명이 있었는데 서너명을 제외하고는 전국 각처에서 온 법학생들이었다. 이곳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매사추세츠 주의 주민들을 위하여 이렇게 많은 국(bureau)과 과(division)가 있는 줄 몰랐다.

일반인 보호국(Public Protection Bureau) 안에 있는 민권사무소(Civil Rights Division)에 배치되었다. 이 민권사무소에서는 매사추세츠 주를 대신하여 여러 가지의 차별사건을 조사하며 또 집행한다. 제3자에게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누구라도 매사추세츠 차별방지 위원회(MCAD: Massachusetts Commission Against Discrimination)에 제소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데 (인종, 장애자, 연령, 성별, 주거 등) 나와 또 한사람의 인턴은 보조검사를 도와서 법적 조회를 하거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각종 재판절차를 경청하였다.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현재 이 사무소에서 처리되고 있는 사건을 말할 수가 없다고 주의를 받았는데 법률학교하고는 달라서 여기에서 처리되는 사건은 실제 사건이며 실제 인물들이 개입되어 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

지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유능한 변호사들과 가까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한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지어야 되는 부담을 느꼈는데 이는 법률학교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법률학교 1학년에서는 "변호사같이 생각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칠려고 힘을 쓰는 반면, 실제로 하는 일들은 법률문서를 쓰거나 관련자료를 찾기위해 연구하는 것, 또는 기타 각종 사무소일을 보는 것등의 일이었다. 따라서 법률연구 기술을 습득한 것은 물론이고 검찰총장 사무소와 매사추세츠 주 정부 제도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으며 또한 귀중한 대인기술도 얻게 되었다.

나는 9주 동안이나 검찰총장 사무소에서 그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하며, 내가 얻은 정보들은 앞으로 나의 앞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하여 값진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해준 한인 미국 시민협회에 감사사를 드린다. **시행** (한국어 번역: 이의인)

김윤관군은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에서 일본어와 문학을 전공하였으며 1993년과 1998년에 각각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일년동안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후, 지금은 Suffolk 대학 법대 2년생으로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Daniel Yoonkwan Kim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with BA and MA in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in 1993 and 1998, respectively. After college, he spent a year doing research about the Japanese and Korean relations. He is now a second year student at the Suffolk University Law School.

This past summer, I had the opportunity to work as an intern in the Massachusetts Governor's Press Office. My eleven-week internship was a rich experience to observe and contribute to the function of the press secretaries and speech writers in a political arena. Working closely with media findings gave me a unique perspective on many issues, such a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how to ensure its quality and the precarious state of health care coverage for the elderly, that I could not have developed outside the Press Office.

My responsibilities as a Press Office intern included compiling the governor's "Daily Newsclips," a collection of the day's most important articles that the major powers in state government - including Governor Cellucci, Lieutenant Governor Swift, Speaker of the House Finneran, and Senate President Birmingham - receive at 9am; fielding calls from newspaper, TV, and radio reporters about the state's hottest topics and directing them to the appropriate press secretary or speech writer; attending and recording press conferences which serve to highlight accomplishments and solutions such as the passing and signing of the minimum wage bill and the development of new protections for battered women; and distributing press releases to various community, local, and national publications.

By culling articles for the Daily Newsclips from the Boston Globe, Boston Herald, New York Times, and Wall Street Journal every morning at 6:30am for eleven weeks, I was able to track issues with a greater understanding of their significance than a regular reader would have. Clearly, the number of publications and the duration for which I read them would heighten my understanding beyond that of a casual reader. But my Press Office experience consisted of much more than the chance to read a whole lot of newspapers at odd times of the day for an entire summer. Through my experience, the importance of using media as a vehicle

to help bring concerns to the attention of public officials became apparent.

The guidelines for what articles were to be included in the Daily Newsclips elucidated what issues the state government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obvious explanation for the choice of issues, such as Education, or Health and Human Services, or Environmental Affairs, is that they correspond to branches of the Governor's Office. More subtly, the selection of issues that get the most attention indicates that the well-established and traditional concerns are most likely to be brought to the governor's desk in the form of the Daily Newsclips. Because of this, the governor is more likely to read about the concerns that already have an office responsible for dealing with them than the issues that no one keeps track of. Each of the interns worked with the guidelines in the back of her or his mind because articles that did not fall into one of the set categories were subject to greater scrutiny and were more likely to be tossed in the recycle bin.

Other aspects of the internship also gave me a sense of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issues in the news. In dealing with reporters on the phone, the number of calls received after a press release had been disseminated represented the amount of interest in that topic. Subsequently, the number of articles that were published based on the press release showed the editors' perception of how important the issue was to the readers. The most interesting part of the internship was attending the press conferences and comparing the complete message of the governor or lieutenant governor to what actually ended up on the evening news or in the next day's papers.

Working with the other interns was also an excellent learning experience. The concentration of youth and idealism in the office was stimulating. It was incredible to compare notes on how each of us wanted to, in one form or another, save

the world through our participation in politics. On breaks, and over lunch, we often discussed our plans and philosophies. Hearing my fellow interns speak about the government, what it meant to them, and what they planned to do was encouraging and exciting.

Overall, my internship was an excellent opportunity for learning about current ev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and public perception, and the intricacies that contribute to making our state government. Working in the governor's Press Office has introduced to me many realities of the society we live in and has further polished my hopes of bettering our world. KACL

지난 여름동안 나는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공보 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 11주 동안의 인턴기간은 정치무대에서 공보관과 연설문 대필자들을 관찰하며 이들의 작업에 기여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 대중매체 (신문, 잡지, TV, 또는 라디오)들을 가까이 대하여 일하는 동안, 교육의 중요성이나 노년들을 위한 불안정한 상태의 건강보험의 질적 향상과 같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이 사무소에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지나가 버렸을 독특한 견해를 갖게 되었다.

공보 사무소의 인턴으로서 내가 책임을 진 일들은: 1) 셀루치 주지사, 스워프트 부주지사, 주 하원의장 피네란 및 주 상원의원 버밍햄 등을 포함한 주 정부내에서의 제일 중요한 인물들이 매일 오전 9시에 받아보는 그날 아침 게재된 소식중 가장 중요한 기사들을 모아놓은 "일일 신문기사 모음"을 편집하는 일, 2) 신문사, TV방송이나 라디오 기자들에게서 주내의 중요 소식들에 관해 걸려오는 전화들을 받아서 담당 공보관들이나 연설문 대필자들을 바꾸어 주는 일, 3) 최저임금 법안의 통과와 서명, 또는 폭력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는 새 법안의 진행상황과 같은 업적이나 해결 방안들이 발표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그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일, 4) 여러 지역사회나, 지방 또는 전국의 신문에 기사를 제공하는 일 등이었다.

보스톤 글로브, 보스톤 헤랄드, 뉴욕타임스 및 월스트리트 저널을 매일 아침 6시 30분에 그것도 11주 동안이나 "일일 신문기사 모음"을 위해 신문 기사들을 발췌하다 보니 보통의 독자보다도 더 그 중요성을 이해하며 시사문제들을 추적할 수 있었다. 기사의 분량이 많았고 또 그 기간이 길었으므로 한번 읽고 마는 독자에 비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 여름동안 그렇게 많은 신문을 공보 사무소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이 경험을 통하여 나는 대중매체를 공공직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일일 신문기사 모음"에 어떤 기사를 포함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지침서를 보면 주정부부가 어떤 문제를 주요시하는 지를 알 수 있었는데, 주지사 사무실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이라던가 복지 또는 환경문제가 당연히 선택되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큰 주의를 받아 선택된 문제들을 볼 때 잘 알려졌고 또 전통적인 문제들이 "일일 신문기사 모음"이라는 방법으로 주지사의 책상위에 오게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문제보다는 벌써 이같은 문제들을 맡아 보고 있는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주지사가 읽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각 인턴들은 정해진 각자의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기사들은 더 세밀히 검토되어 휴지통에 버려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지침에 따라서 일을 하여야 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직감할 수 있게 되었다. 공지사항이 발표된 후 걸려오는 기사들의 전화건수가 바로 그 문제에 관한 관심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신문에 게재되는 기사의 숫자도 그 공지사항이 독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하는 편집자의 해석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주지사나 부주지사의 발표문 전문을 듣고 그날 저녁의 뉴스나 다음날의 신문에 그것이 어떻게 전해지는 지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다른 인턴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아주 좋은 경험이었는 데, 젊음과 이상이 넘쳐나는 고무적인 작업 환경이었다. 정치에 우리들이 참여하여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 지를 노트하고 이를 비교하여 보는 것은 믿지 못할 만큼이나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쉴 때나 점심때에 가끔 우리는 우리들의 계획과 철학을 의논하였다. 동료 인턴들이 정부에 대해서, 정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하여, 또는 어떻게 대처해나갈 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도 많은 격려가 되었고 또 신도 났다.

전반적으로 나의 이번 인턴생활은 오늘의 이슈가 무엇이며, 대중매체의 대중의 이해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으며, 또한 주정부를 돌아가게 만드는 복합요소들이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주지사의 공보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속의 여러 가지 현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시황]** (한국어 번역: 이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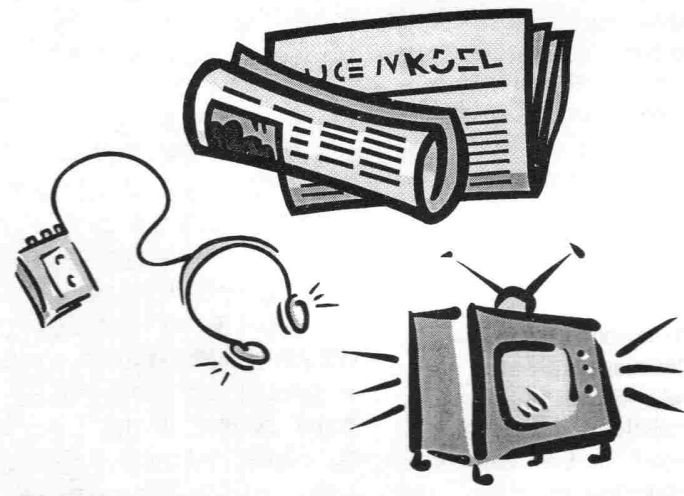
박사리양은 하버드 대학 2학년으로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다.
Sarah Park is a sophomore biology concentrator at Harvard College.

주 하원의원을 위해 일하면서 나는 이 직업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요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즉 주 하원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일과 입법을 해야하는 일, 두가지를 다 감당하여야 한다. 그(그녀)는 자기가 나온 선거구를 대표해야 하는 동시에 전 주를 위하여 법을 만들어야 하는 데 이 일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한 힘든 일이다. 따라서 주대표는 fulltime 직업으로써 선거구 사무실과 주하원내의 사무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므로 주 하원의원들은 공식 미공식의 여러 회합이나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동료들보다 더 많은 여행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 하원의원의 이런 막중한 임무는 절대로 쉽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현재 로저스 주 하원의원은 뉴 베드포드 시의 시의원으로도 봉사하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견문이 매우 넓다고 하겠다.

한인 미국시민협회의 도움으로 나는 주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가졌다. 내가 얻은 이 지식을 내 대학시절 동안 연마할 것이며, 이 값진 경험을 매사추세츠 주내의 정치적인 문제에 활용할 것이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요사이의 피부색이나 인종에 대한 편견이 없는 생각이 깊은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나 개인으로 말하자면 이 인턴쉽이 우리 주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도전을 감당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었다고 단언한다. 바라건대 일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함으로써 주정부의 중심부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시황]** (한국어 번역: 이의인)

이대성군은 올해 정치 사회학 학사로 UMass, Amherst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보스톤 대학(Boston College)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다.
David Daesung Lee graduated in 1999 from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with a BA in political science and sociology. He is now a first-year graduate student at Boston College, majoring in political science.



〈편집자주〉 지난 1999년 6월 7일 역사적으로는 처음으로 클린턴 대통령이 아시안 아메리칸과 태평양 도서민들이 더 많이 연방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에 서명을 하였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For Immediate Release

June 7, 1999

EXECUTIVE ORDER

INCREASING PARTICIPATION OF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IN FEDERAL PROGRAMS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luding the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as amended (5 U. S. C. App.), an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through increased participation in Federal programs where they may be underserved (e.g., health, human services, education, housing, labor, transportation, and economic and community development), it is hereby ordered as follows:

Section 1. (a) There is established in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President's Advisory Commission on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Commission). The Commission shall consist of not more than 15 members appointed by the President, one

of which shall be designated by the President as Chair. The Commission shall include members who: (i) have a history of involvement with the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communities; (ii) are from the fields of health, human services, education, housing, labor, transportation, economic and community development, civil rights, and the business community; (iii) are from civic associations representing one or more of the diverse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communities; and (iv) have such other experience as the President deems appropriate. (b) The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ecretary) shall appoint an Executive Director for the Commission.

Sec. 2. The Commission shall provide advice to the President, through the Secretary, on: (a) the development, monitoring, and coordination of Federal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through increased participation in Federal programs where such persons may be underserved and the collection of data related to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populations and sub-populations; (b) ways to increase public-sector, private-sector, and community involvement in improving the health and well-being of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and (c) ways to foster research and data on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including research and data on public health.

Sec. 3.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hall establish the White House Initiative on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Initiative), an inter-agency working group (working group) whose members shall be appointed by their respective agencie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Commission shall also serve as the Director of the Initiative, and shall report to the Secretary or the Secretary's designee. The working group shall include both career and noncareer civil service staff and commissioned

officers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with expertise in health, human services, education, housing, labor, transportation, economic and community development, and other relevant issues. The working group shall advise the Secretary on the implementation and coordination of Federal programs as they relate to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across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Sec. 4. The head of each executive department and each agency designated by the Secretary shall appoint a senior Federal official responsible for management or program administration to report directly to the agency head on activity under this Executive order, and to serve as a liaison to the Initiative. The Secretary also may designate additional Federal Government officials, with the agreement of the relevant agency head, to carry out the functions of the Initiative.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and to the extent practicable, each executive department and designated agency shall provide any appropriate information requested by the working group, including data relating to the eligibility for and participation of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in Federal programs. Where adequate data are not available, the Initiative shall suggest the means of collecting such data.

Sec. 5. Each executive department and designated agency (collectively, the "agency") shall prepare a plan for, and shall document, its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through increased participation in Federal programs where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may be underserved. This plan shall address, among other things, Federal efforts to: (a)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through increased participation in Federal programs where they may be underserved and the collection of data related to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populations and subpopulations; (b) increase public-sector, private-sector, and community

involvement in improving the health and well-being of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and (c) foster research and data on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including research and data on public health. Each agency's plan shall provide appropriate measurable objectives and, after the first year, shall assess that agency's performance on the goals set in the previous year's plan. Each plan shall be submitted at a date to be established by the Secretary.

Sec. 6. The Secretary shall review the agency plans and develop for submission to the President an integrated Federal plan (Federal Pla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s through increased participation in Federal programs where such persons may be underserved. Actions described in the Federal Plan shall address improving access by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to Federal programs and fostering advances in relevant research and data. The Secretary shall ensure that the working group is given the opportunity to comment on the proposed Federal Plan prior to its submission to the President. The Secretary shall disseminate the Federal Plan to appropriate members of the executive branch.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in the Federal Plan shall be considered by the agencies in their policies and activities.

Sec. 7. Notwithstanding any other Executive orde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resident that are applicable to the Commission under the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as amended, except that of reporting to the Congress, shall be performed by the Secretary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and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Sec. 8. Members of the Commission shall serve without compensation, but shall be allowed travel expenses, including per diem in lieu of subsistence, as authorized by law for persons serving intermittently in the Government service (5 U.S.C. 5701- 5707).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and appropriations, and where practicable, agencies shall, upon request by the Secretary, provide assis-

tance to the Commission and to the Initiative.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hall provide administrative support and funding for the Commission.

Sec. 9. The Commission shall terminate 2 years after the date of this Executive order unless the Commission is renewed by the President prior to the end of that 2-year period.

Sec. 10. For the purposes of this order, the terms: (a) "Asian American" includes persons having origins in any of the original peoples of the Far East, Southeast Asia, or the Indian subcontinent; and (b) "Pacific Islander" includes the aboriginal, indigenous, native peoples of Hawaii and other Pacific Island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WILLIAM J. CLINTON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아시아 아메리칸과 태평양 도서민들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대통령 시행령

헌법과 수정된 연방 자문위원회 법령을 포함한 미합중국의 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아시아 아메리칸들과 태평양 도서민들이 그들의 참여가 부족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예를 들면, 보건, 복지, 교육, 주거, 노동, 교통, 그리고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등)에 더욱 많이 참여케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령을 공포한다.

제1조. (1) 보건복지부 산하에 아시아 아메리칸과 태평양 도서민들을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에는 15명 미만의 위원을 두며, 이들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이 중에 한 명이 의장이 된다. 위원들의 임명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아시아 아메리칸과 태평양 도서민 지역사회에 연관이 있어야 한다.
2. 보건, 복지, 교육, 주거, 노동, 교통,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민권 부문에서 일을 하여야 한다.
3. 아시아 아메리칸과 태평양 도서민 지역사회의 하나 또는 여럿을 대표하는 민권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4. 그의 대통령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2) 보건복지부 장관(이하 장관)이 이 위원회의 총무를 임명한다.

제2조.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한다.

1. 아시아 아메리칸들과 태평양 도서민들이 그들의 참여가 부족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더욱 많이 참여케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연방정부 정책의 개발, 감시 및 조정과 아시아 아메리칸들과 태평양 도서민들의 인구 및 그 분포에 관한 자료의 수집.

2. 아시아 아메리칸들과 태평양 도서민들의 보건과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적, 사적 또는 지역사회 참여를 증가하는 방법.

3. 아시아 아메리칸들과 태평양 도서민들과 이들의 공공 보건에 관한 연구와 자료의 수용 방안.

제3조. 보건복지부 산하에 아시아 아메리칸들과 태평양 도서민들을 위한 백악관 연락부(이하 연락부)와 기관상호 운영반(이하 운영반)을 둔다. 이 운영반의 위원은 각 기관에서 선정하고, 위원회의 총무는 이 연락부의 부장을 겸하며, 장관이나 장관에 의해 임명된 자에게 보고한다. 운영반에는 보건, 복지, 교육, 주거, 노동, 교통,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및 기타 관련부문에 관한 지식이 있는 유급 및 무급 민권봉사요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임명된 임원을 둔다. 운영반은 아시아 아메리칸과 태평양 도서민과 관련된 연방정부 프로그램이 행정 각부와 기관에 제대로 시행이 되거나 조정을 하도록 장관을 자문한다.

제4조. 장관에 의하여 선정된 행정 각부와 기관의 장은 프로그램을 관리 수행할 책임을 맡을 고위 연방각료를 임명하고, 이들은 이 시행령에 따른 활동을 각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하며 연락부와의 연락을 담당한다. 장관은 연락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장과의 협조아래 추가로 연방정부 각료를 임명할 수 있다. 법에 의하여 허용된 한계내에서 각 행정부 및 선정된 기관은 운영반이 요청한 아시아 아메리칸과 태평양 도서민의 연방정부 프로그램에의 적합성 및 참여 여부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적합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연락부가 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을 건의한다.

제5조. 각 행정부 및 선정된 기관(이하 기관)은 아시안 아메리칸들과 태평양 도서민들이 그들의 참여가 부족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더욱 많이 참여케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문서화한다. 이 계획은 다음에 열거한 연방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1. 아시안 아메리칸들과 태평양 도서민들이 그들의 참여가 부족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더욱 많이 참여케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아시안 아메리칸과 태평양 도서민들의 인구 및 인구분포에 관한 자료의 수집을 위한 노력.

2. 아시안 아메리칸들과 태평양 도서민들의 보건과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적, 사적 또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증가하기 위한 노력.

3. 아시안 아메리칸들과 태평양 도서민들과 이들의 공공 보건에 관한 연구와 자료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

각 기관의 계획에는 적합하고 측정가능한 달성목표가 세워져야 하고, 1년후 전년도에 세운 목표에 대한 각 기관의 업무 진척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계획은 장관이 정한 날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장관은 각 기관의 계획을 검토하여 아시안 아메리칸들과 태평양 도서민들이 그들의 참여가 부족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더욱 많이 참여케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연방 종합계획을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연방 종합계획에 기술된 방안들은 아시안 아메리칸과 태평양 도서민들이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며 관련된 연구의 진척상황과 그 자료의 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들이어야 한다. 장관은 제안된 그 연방 종합계획이

대통령에게 제출되기 이전에 운영반으로 하여금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장관은 이 연방 종합계획을 각 행정부의 필요한 각료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연방 종합계획에 포함된 건의 및 수집 결과는 기관들에 의해 검토되어 그 기관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나 활동에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 기타 시행령과는 별도로, 수정된 연방자문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에 적용되는 대통령의 책임은 하원에 보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행정부에서 정립된 지침이나 절차에 따라 장관이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위원들은 무보수로 일을 하나, 정부일에 일시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생계비 대신의 일당을 포함한 여행경비를 지급한다. 법이나 정부지출경비 세칙에 정해진 대로 적용 가능한 한 기관들은 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와 연락부에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행정업무와 재원을 담당한다.

제9조. 이 위원회는 이 새행령이 공포된 후 2년간 지속하며 그 2년이 지난 후 대통령은 이 위원회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이 시행령에서 (1) "아시안 아메리칸"이란 극동아시아, 남동아시아, 또는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며 (2) "태평양 도서민"들이란 하와이와 기타 미국의 통치하에 있는 태평양 도서에서 살고 있는 토착, 교유의 원주민을 말한다.

윌리엄 J. 클린턴

(한국어번역: 이의인)

「재외동포」 용어의 정립

한 국 정부는 그동안 교민, 교포, 동포 등 용어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혼동되어 왔던 호칭을 정립하였다. 이에 의하면,

재외동포: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통칭한다 (체류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을 포함).

재외국민: 외국에 체류,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말한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한대로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지칭하며, 영주권자는 현실적으로 시민권자와 가깝고, 구분된 개념에 기초한 정책은 차별 내지는 특례로 인식될 수 있어 불만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교민」, 「교포」 등의 용어에 대해서 일부 지역 거주 동포들이 거부반응을 보이고, 「교민」의 경우 우리의 관할권이 외국 국적자에게도 미치는 인상을 주어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 사용을 자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외국 거주 한민족을 통칭하는 민족적 개념으로서 「재외동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들 중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재외국민」으로 호칭하기로 하였다. **시행**

(시민협회 소식 제1호에서 전재)

편집후기

여러 언어에는 각각 그 언어대로 표현 방법이 달라서 개념은 같고 쓰이는 용법도 같으나 어떤 한 특정한 단어가 의미하는 바 구체적인 대상이나 관념에 있어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영어로는 뉴앙스(nuance)라고 하는데, 이번에 시민협회 협회지를 편집하면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 몇번이나 느낀 점이다. 벌써 미국에서 산지도 25년이 되며, 미국 시민권자이고, 영어를 이제야 조금 터득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한 단어가 영어로는 이해가 금방 가지만 이것을 한국말로 바꾸어놓으려니 딱 들어맞는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 밤늦게 홀로, 또 자다가도 고민한 적이 여러번 있었다.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멋」이란 말은 영어로 딱 들어맞는 단어가 없는 것 같다. 우리말로 「제 멋대로 산다」, 「제 멋에 겨워서」, 「멋들어진 표현」 등은 의역이라도 한다면 몰라도 그대로는 영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좀 안된 말이지만 한국사람들은 다 「제 멋대로」 살려고 한다. 민주주의나 정치는 「제 멋대로」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길래 어떤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희거나 까맣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회색이 없다는 말을 한다. 흰 사람은 까만 쪽으로도, 또 까만 사람은 흰 쪽으로도 섞일 줄 아는 아량과 협조가 어렵다. 물론 한국 사람 개인 개인이 지적인 면에서 혹은 경제적으로 뛰어난 것은 인정하지만, 반면에 자기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전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다른 민족(특히 유대인)에 비해 개선해야 할 국민성이 아닌가 싶다.

(이의인)

<편집자주> 3개월 때 입양되어 뉴햄프셔에서 자란 한 한국입양아가 고등학생이 되어 한국을 방문한 후 느낀 점을 차분히 써내려간 글입니다. 물론 우리의 1.5세, 2세대가 입양하는 아이지만 아마도 느끼는 점은 비슷할 것입니다. 주위에 알고 계신 입양아에게 보여주시거나 자녀들과 같이 읽으시면 도움이 될가하여 저자의 승낙을 얻고 게재합니다.

My name is Chris Todd. I was born in Seoul and was adopted at the age of three months by two loving parents. I grew up (and am still growing up) in New Hampshire without much other Asian influence or cultural diversity. In grade school, particularly in 7th and 8th grades there was a lot of racism. And since I was the only one in my class of a different race, I became an easy target. The only thing that got me through it was my friends. They did all they could to support me and told me to forget about it, but I could not forget about it! Oftentimes I would just have to humor the racist remarks and kind of go along with them. I guess I was trying to avoid further embarrassment by not fighting back. Although I did not show it externally, it hurt so bad inside.

That period in my life was three years ago. Since then I have gone different ways from my old classmates. The last two years have been the time when I found my true identity and was actually true to myself. Since 1993 I have been going to a Korean culture camp where I met almost all of my Korean friends.

Anyway, at about the end of school last year I found out that I was chosen to go and visit Korea. The whole trip was arranged and paid for by the Honam Association in Korea. The participants were me, my friends from the culture camp and an organization called AKA, Also Known As, which was a group of Korean adoptees. In preparation for the trip I, along with all the other participants, attended a meeting in New York to learn proper Korean manners and traditions. At

the meeting we all got up and introduced ourselves and got to know each other. Being around all those positive influences made me realize how much pride I had for being Korean.

When the day of the trip finally arrived I was really nervous, but at the same time excited. The flight took about 13 hours; it was the longest 13 hours of my life. When we were circling the airport ready to land, I looked out the window at the city and realized for the first time where I was from. After I stepped off the plane I saw more Korean people than I have ever seen before in my life. It gave me a sudden sense of security that I had never felt before. The strange thing was that even though I was in Korea and around Korean people, it did not feel like I was in Korea. At home I had looked many times at Korea on the map, but I just could not seem to comprehend that I was actually there and not thousands of miles away looking at a map.

One of my most vivid memories of the trip was our visit to the orphanage. The night before the visit the director explained our schedule for the following day, especially about the orphanage.

After we were done listening, for reasons that someone who was not adopted can never truly understand we all cried.

The orphanage was small with many small rooms and narrow walkways. The children there were young, probably no older than eight or nine. There are many different reasons for these children to be here. Some people do not understand why they had been given up. Not all orphans are given up because "they are not wanted", which is a popular but ignorant stereotype about adoptees and orphans of any race. Despite this they all seemed really happy and cheerful. But I was really sad. I remember that I was once one of those small children. I thought that it could have been me still in an orphanage. At one point I got so upset that I went outside and cried. Not of self pity, but because of a sense of helplessness. It was a real wake up call to me to appreciate my family and not to take them for granted! My trip to Korea had such a profound effect on me because it gave me a chance to see where I was from and it also gave me a deeper respect for the fact that I am Korean.

The trip to Korea was probably the best



thing that could have happened to me. It gave me a chance to see what everyone told me I was missing. It changed me in ways that nobody other than myself could understand and I will always have a special place in my heart for Korea, the country where I was born. **KACL**

내 이름은 크리스 타드입니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3개월이 되었을 때 미국의 부모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뉴햄프셔에서 지금까지 아시아 사람들의 영향이나 문화를 접하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나의 반에는 황인종이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7학년과 8학년에는 이로 인해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러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주어서 견딜 수 있었는데 그들은 나더러 잊어버리라고 하였지만 나는 그런일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인종차별에 대한 농담을 받을 때 그냥 넘겨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싸우기보다는 그냥 지나침으로써 더 이상의 불편을 피하고 싶었는데 밖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많이 상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3년전이었었는데 그후부터 나는 나의 옛 친구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2년간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내자신에게 진심하였습니다. 1993년에 나는 한국문화캠프에 참가하였는데 나는 거기서 대부분의 한국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작년에 학교가 끝날 때쯤 나는 내가 한국을 가기로 뽑힌 것을 알았습니다. 전체 경비는 한국에 있는 호남회에서 부담하였는데, 문화캠프와 한국인 입양아들로 구성된 AKA라고 하는 모임에서 사귄 친구들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판 모든 참가자들과 떠나기 전 뉴욕에서 먼저 만나 한국의 예절과 전통을 배웠습니다. 한사람씩 일어나서 자기를 소개하고 서로 사귀게되었는데 이렇게 같은 한국애들과 같이 있으니 이제야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출발날이 다가오자 나는 조바심이 나는 동시에 또한 흥분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로 13시간이 걸렸는데 내 생애에 가장 긴 13시간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릴려고 비행기가 우회하고 있는 동안 창밖으로 시가지를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내가 태어난 곳임을 느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나는 이제껏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나는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가

지 이상한 것은 내가 한국에 와있고 한국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한국에 있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지도에서 몇번씩이나 한국을 찾아보았지만 그때처럼 멋진 마을이나 펼쳐져서 지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한국에 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행에 대하여 내가 지금까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고아원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 전날 인솔자가 다음날의 예정을 설명할 때 특별히 고아원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걸 듣고난 후 우리들은 모두 울었는데 그 이유는 입양아가 아니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아원은 그리 크지 않았는데 작은 방들과 좁은 복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고아들은 대부분 8살이나 9살 미만의 어린애들이었습니다. 이 고아원에 수용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몇몇 아이들은 자기들이 왜 버려졌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아들이 흔히 알려진 대로 어느 입양아나 고아들처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아들은 모두 즐겁고 행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보는 나는 나도 언젠가는 이들과 같이 어린애였었다는 것을 기억하곤 슬펐습니다. 나도 이들과처럼 아직도 이 고아원에 남아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순간 나는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 울어버렸습니다. 내 자신이 불쌍해져서가 아니라 나의 무기력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던 나의 가족에 대해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국여행은 나에게 큰 영향을 끼쳐 내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내가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여행은 나에게 일어난 일중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나에게 말했듯이 내가 잃어버리고 있던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후 어떻게 변했는지는 나밖에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제 나의 마음 한쪽에는 내가 태어난 한국이 항상 자리잡고 있을 것입니다. **사립** (한국어 번역: 의의인)

21세기의 재미 한인사회를 누가 이끌어 나갈 것인가

박경민

(Continued from Page 23)

and extend to the Korean schools, Sunday schools, youth group meetings, and even Korean societies and KACL. Korean schools should not just be places where the Korean language is taught; they should also be a forum for learning Korean history and culture, for learning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in America, and for learning why we came to America and what we should do in America - learning all these from the early years on. Thereby, the second generation can retain the spirit of Korea and affirm their identity as Korean American citizens. While coexisting in peace with other people in America, they should also be able to compete successfully with them in political, economic, and educational arenas and produce the leaders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o grow a dream tree of the future is not an overnight task. However, just as the early immigrants nurtured and developed future leaders with a long-term vision for liberation of the fatherland, we should likewise begin with the newly budding members of the second generation. The answer to the question of who will lead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of the 21st century depends on what kind of future leaders are trained by the first generation. From such a perspective, the challenges of KACL are formidable indeed. **KACL** (영어 번역: 박경민)



At approximately 8:45 P.M., on July 17, 1999, 167 days before year 2000, the World Population reached the 6 billion mark, an exponentially compounded number from the original 2, Adam and Eve. However, this remarkable benchmark in mankind passed without much attention. Most people were more captivated by the Dow reaching 10,000 in 1999.

In the 90's the markets have risen in an unprecedented fashion. Economists are predicting that with all the fundamentals of the U. S. economy in check, if the Federal Reserve Board can manage to keep inflation in place, the U. S. economy might be able to maintain what is the longest economic expansion in history. One of the key factors in all this is the foreign exchange value of the dollar, which remains quite strong presently. The proverbial question then is: how long will the Federal Reserve Board be able to maintain inflation in check? Let's examine some basic factors on the favorable side:

1) The strong dollar should continue to hold import prices down, making it increasingly difficult for domestic companies to raise prices. With consumer prices low, consumer spending has been a record high. High consumer spending has been the core of the economy's remarkable strength in the US.

2) The possibility that foreign investors are worried about their own country's Y2K concerns may lead to the perception that the U. S. market will be a safe haven for their investments (the dollar could become even stronger).

Let's briefly examine the negative side:

1) The robust consumer spending which fueled our economy has been increasing faster than income in recent years. This unprecedented phenomena has resulted in decreased savings and created another element in the already delicately balanced economic equilibrium. Specifically, the

interest rate set by credit card companies. The credit card rate is set in the private industry and it is beyond reach of the Federal Reserve Board. The increase in cost of goods due to a high credit card rate combined with decreased savings will result in a decrease in consumer spending. This decrease in spending will slow down the economy.

2) Strong domestic demand has fueled US economy in spite of decreased foreign demand due to economic trouble overseas. As domestic spending power decreases and overseas Y2K concerns pass, demand on US goods may decrease and the dollar is likely to weaken.

Then again, a falling dollar should stimulate foreign trade, which should offset most of the drag on the economy stemming from reduced domestic spending.

While no one can predict what the future will bring, thanks to our Federal Reserve's vigilant monetary watch,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point towards a positive outlook.

1) Today's inflation rate hovers around 3 percent as compared to 7.4 percent in the 1970's and 5.1 percent in the 1980's. Even if the Fed raises interest rates a couple of points, that increase may not pose a threat to today's low inflation. In fact, any movement in interest could very well be a reaction to legitimate demand and may not result in inflation.

2) A bill was recently passed in Congress that will cut \$800 billion in taxes over the next 10 years.

3) On the international front, the new open trade policy (rather than free trade) will favor U. S. economy.

4) More relaxed domestic regulatory policies will encourage U. S. companies to be more efficient in the domestic market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market.

Economists' short-term outlook suggests that the U. S. economy will sustain its strength this year and probably into next year. Their long-term outlook is that the dollar may weaken next year and the Fed may raise interest rates in response. An increase in interest rates typically leads to a weakening in the bond market. Treasury and stocks are expected to be flat for a while.

While there are deferring views from Bulls and Bears on Wall Street, good news seems to outweigh bad news for long-term investors. One thing most economists seem to agree on is that all the stars in the U. S. economy are in alignment.

I must point out that inflation plays a key factor in the economy and the Federal Reserve Board controls inflation. However, the Fed has been following the market, not leading it. The market will dictate what the Fed does and we as consumers dictate the market.

My experience as a Financial Advisor leads me to believe that there are two types of people: traders and investors. Traders watch and try to predict what the Fed will do and buy and sell, often at inopportune times. Investors on the other hand set their financial goals, establish a sensible plan and adhere to it, not swayed by short-term fluctuations and temptations of the market.

As mankind is entering the new millennium, the economy is seeking a new equilibrium. If this financial expansion continues to April, 2000, it will mark the longest economic prosperity in the century. If the economy continues to sustain its growth rate, the Dow could double once again in the next 6 years. As we enter the new millennium, one thing remains to be certain. This is the time that pays to be savers. Those who do not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will not be part of this economic evolution. **KACI**

2000년이 167일 남은 1999년 7월 17일 저녁 8시 45분경에 전세계의 인구는 60억이 되었는데, 이는 최초의 두 사람이었던 아담과 이브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숫자이다. 그러나 이 기억할만한 이정표는 별 주의를 끌지 못한채 지나갔다. 더 많은 사람들은 다우 지수가 1999년에 10,000을 돌파하였다는 것에 더 민감하였다.

90년대의 시장은 역사에 그 전례가 없을 정도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였다.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의 모든 근본적인 요소들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방준비위원회가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미국의 경제는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주된 요인 중의 하나는 현재에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달러의 대외 환율 가치이다. 그렇다면 과연 연방준비위원회는 얼마나 오래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우선 몇 개의 근본 요소들중 긍정적인 견해들을 살펴보자.

1) 강세의 달러는 수입 물품가를 저가로 유지함으로써 국내회사들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될 것이다. 소비자 가격이 낮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미국 경제가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근간이다.

2) 외국의 투자자들이 자국의 Y2K (2000년대에 컴퓨터 운영체제의 잘못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칭하는 Year 2000의 약자) 문제를 걱정하여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달러는 더 강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부정적인 견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미국의 경제를 불붙여온 소비자들의 지출은 근래에 와서 수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례가 없던 이 현상으로 인하여 저축이 줄고 이미 미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제에 다른 또 하나의 요소를 형성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신용카드회사에서 정한 이자율이다. 이 이자율은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규제할 수 없는 개인사업체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감소된 저축과 고 이자율로 인하여 야기된 비싼 물품가격은 소비자의 지출을 감소시킬 것이며 소비자 지출의 감소는 결국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다.

2) 해외에서의 경제 혼란으로 야기된 외국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국내 수요가 미국 경제를 성장시켰는데, 국내의 소비가 감소하고 해외의 Y2K 걱정이 지나가면 미국 물품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여 달러는 아마도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 달러가 떨어지면 외국 무역을 자극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감소된 국내 소비로 인해 생긴 경제의 둔화를 해소하게 될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으나 연방준비위원회가 계속 금융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이상,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요소들을 예상할 수 있다.

1) 요사이의 인플레이션은 70년대의 7.4%나 80년대의 5.1%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3%에서 맴돌고 있다. 만약 연방준비위원회가 이자율을 몇 % 올린다고 하여도 오늘날의 낮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며, 실제로 이자율의 변동은 적정한 수요에 대한 반응에 불과하며 인플레이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2) 얼마전에 앞으로 10년 동안에 걸쳐 8천억불의 세금을 삭감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인준되었다.

3) 국제적으로는 새로운 공개통상 정책(자유통상이 아니라)이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4) 국내의 완화된 산업 규제 정책은 미국 회사들로 하여금 국내 시장은 물론 국제 시장에서도 보다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경제학자들의 단기 전망에 의하면

미국의 경제는 올해에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잘하면 내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장기적 전망에 의하면 내년에 달러가 떨어지며 연방준비위원회는 여기에 대응하여 이자율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형적으로 이자율의 증가는 채권시장을 약하게 할 것이며, 국제 및 주식시장은 당분간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월 스트리트에서는 강세냐(Bull market: 능동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 때), 혹은 약세냐(Bear market: 곰이 동면을 하듯이 예의 주시만 하고 있을 때) 의견이 분분하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보다는 더 많은 것 같다. 대개의 경제학자들이 일치하는 의견은 미국 경제는 지금 좋은 요소들이 서로 돕고 있다는 것이다.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주된 요인이며 연방준비위원회가 인플레이션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준비위원회는 지금까지 시장에 끌려왔지 시장을 끌고오지는 않았다. 연방준비위원회를 좌우하는 것은 시장이며 그 시장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재정상담자로서의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는 거래자(trader)이고 또 다른 하나는 투자자(investor)이다. 거래자는 연방준비위원회가 어떻게 할 것을 예의 주시하며 주식을 사고 파는데 가끔 부적절한 때에 거래를 하기도 한다. 반면 투자자들은 그들의 재정목표를 세우고 이성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요동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 세운 목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인류역사가 새 세기로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경제는 새로운 균형을 찾고 있다. 만약 2천년 4월까지 이 경제적인 확장이 계속된다면 금세기에 최장의 경제변영으로 기록될 것이다. 현 경제가 만약 지금까지의 성장률을 그대로 지속한다면 다우 지수는 앞으로 6년내에 다시 한번 지금의 두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이 새 세기에 들어가면 서도 한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절약을 하여야만 이득을 볼 수 있는 때라는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이 경제적인 발전에서 탈락하고 말 것이다. **시행**

(한국어 번역: 이의인)

소 규모이든지 대규모이든지 간에 어떤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은 이상 리스는 가장 중요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모든 조건이 다 좋아서 비즈니스를 사거나 시작하려고 할 때에 리스조건이 안 맞으면 99%까지 성립되어 가다가도 계약이 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매매시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리스가 다루어진다.

1) New lease: 새로 리스를 건물주인과 사는 사람 사이에 계약하는 것이다.

2) Sub-lease: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협상하는 것으로 대개 파는 사람이 건물주인이지만, 건물주인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Assignment of Lease: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일임하는 것이며, 보통 건물주인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리스가 사업매매시에 가장 많이 이용된다.

리스를 검토하거나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호간에 잘 의논해서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간: 누구나 아시다시피 리스는 장기간 받는 것이 안전하고 option을 받아서 매해의 리스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Option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리스에 명시한 대로 60일 전이나 90일 전에 등기편지(Certified Letter)로 건물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option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할 수도 있다.

한 예로, 한 가게주인이 option을 사용한

다는 편지를 90일 전에 보내지 않았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건물이 매매되어서 새 건물주인과 리스를 협상하려고 하니 자기가 그 가게를 써야겠으니 리스는 못주겠고 가게를 비우라고 한 경우도 있다.

2) 가격: 3년 혹은 5년 고정가격으로 하는 리스도 있지만 대개는 매해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이때 퍼센티지의 증가는 소비자 물가 지수(CPI)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데 이 CPI는 매해의 인플레이션에 기준을 둔다. 또 매해 \$50 혹은 \$100 씩 올라가는 리스도 있는데 CPI를 올라가는 것보다는 입주자에게 이익이 된다. 왜냐하면 CPI는 복리이자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3) 보증금: 대개 첫달과 마지막 달의 2달 치분을 보증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찾을 때에는 리스 기간동안의 이자를 꼭 계산하여 찾아야 한다.

4) 세금, 보험, 관리비: 이는 건물주인과 협상할 수 있고 다음의 3가지 경우가 있다.

ㄱ) Single Net: 입주자가 세금만 내고 세금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 내야 한다.

ㄴ) Double Net: 세금과 보험을 낸다.

ㄷ) Triple Net: 세금, 보험과 관리비를 입주자가 다 낸다.

5) 전세 이입(Transfer): 비즈니스를 팔 때 사는 사람에게 리스를 넘겨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어떤 리스는 sub-lease나 assignment of lease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제한을 하는데, 이런 리스는 미래에 비즈니스를 매매할 때 불리한 조건이므

로 건물주인과 잘 협상하여 전세 이입 조건이 허용되는 리스를 받아야 한다.

6) 기타: 이 외에 특별조항이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세탁소나 주유소 근처나 혹은 이런 비즈니스를 할 때 Special Environmental Test(특별 환경 테스트, E-21)를 요구할 때도 있다.

리스는 사는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파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므로 파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팔기 전에 다음의 질문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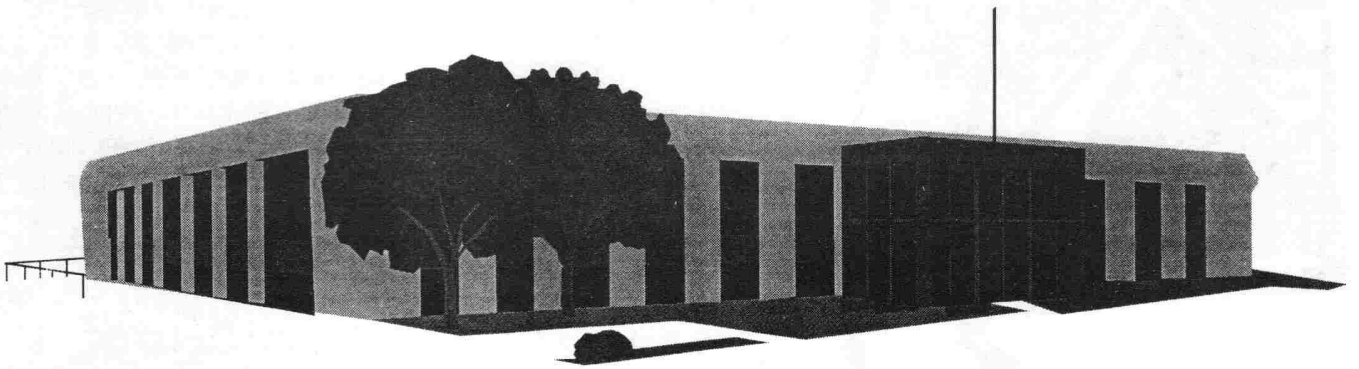
1) 리스가 장기간으로 되어 있고 전세 가격이 낮아서 살 사람에게도 좋은 조건인가?

2) 전세 가격은 동종의 비즈니스와 지역에 비해 과연 적절한 가격인가?

3) 리스 안에 사는 사람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거나 모호한 문장으로 사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없는 항목이나 영업에 제한을 줄 수 있는 항목은 없는가?

4)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리스의 전세 이입에 있어서 주인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 건물주인과 문제가 예상되면 비즈니스를 팔기 전에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마지막으로 리스에 관한 것은 반드시 경력있는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바란다. **□**



99년도 회비 납부자 (98년 10월 이후) (\$1,740)

김은한, 이해원, 정명철, 장인숙, 이의인, 백정희, 김원엽 부부
 최낙철, 서정섭, 박영철, 박선주, 신고희, 남궁연, 남궁정자
 이옥희, 홍성도, 최승훈, 김창순, 김인수, 이춘순, Tom Shin
 이문봉, 조영희, 안창수, 홍근숙, 김문소, 김계숙, 김지원, 최홍균
 황성미, 최진우, 최영훈, 이지원, 최원길, 채길식, 최봉용, 김진동
 우정희, 김금련, 김성환, 정화용, 이경해, 밍 동, 김 명, 강기원
 미키 배커, 스티브 배커, 엘리자벳 배커, 인준식, 이인순, 최원길
 채길식, 최연집, 최옥자, 위재국, 위신숙, 이춘화, 조의자, 박미륵
 장경원, 전정훈, 강명숙, 손석구, 김영희, 김은분, 최성욱, 이경희
 조종복, 오지미, 손호저, 정영미, 김선화, 조남규, 한은경, 정병구
 박유니, 이덕선, 윤순단, 이인숙, 이옥자, 김영아, 장화순, 장민섭
 이애나, 김영분, 성재순, 박현숙, 김석희, 임준철, 임복희, 임아영
 김은희, 황지용, 정갑이, 김영미, 김미숙, 김 풍, 김동화, 리상익
 박준태, 김병호, 한화자, 박재현, 유정숙, 임종선, 이태희, 이영미
 신호순, 신명숙, 서봉석, 이석주, 이보인, 황규례, 이영애, 박경근
 김경희, 박필녀, 김길연, 이명숙, 김은혜, 이영수, 김도성, 한선아
 백은희, 이윤정, 이복옥, 손금순, 김병규, 김은숙, 강성지, 김두현
 박녹자, 이두례, 손영애, 현영복, 현선옥, 박명주, 이정인, 김영순
 황종욱, 황영희, 이점순, 김옥신, 이레나, 박정윤

이사회비 납부자 (\$7,250)

이의인, 최낙철, 신상철, 최홍균, 채도경, 김문소, 최영훈, 박대위
 최원길, 이재신, 김진동, 김은한, 김금련, 김연숙, 이경해, 김성균
 박경민, 정석호, 김양길, 김기석, 박필수, 이문열, 함성기, 이동익

회지 광고 찬조 (\$9,735)

과학자협회, 태권도협회, 세탁인협회, 서울대학교 동창회
 이우조, 이문봉, 한윤영, 오수택, Asian American Unity Dinner
 보스톤 한인 천주교회, 반석 감리교회, 퀸시 영생 장로교회
 보스톤 장로교회,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보스톤 소망교회
 보스톤 산성 장로교회, 북부 보스톤 교회, 보스톤 한인감리교회
 로드아일랜드 중앙한인교회, 문수사, 서운사, 보스톤보석
 강길원 산부인과, 이운로 산부인과, 한은애 치과, 신영목 치과
 안태준 치과, 임나경 상담소, 동일 한의원, 일선당 한의원
 김문소 수의과, 김성균 변호사, 한석훈 변호사, 김연숙 재정계획
 이현주 회계사, 이경해 부동산, 큰나무 인쇄소, 코리아 여행사
 Universe Travel Service, 범양해운, 장수갈비, 리틀 부산, 다빈
 우촌, 신라, Asiana Grille, 청계식품, Captain Boston Fish
 태양자동차, Park Autobody, Complete Car Care, Foreign Motor West
 BankBoston, Asian American Bank & Trust, Lee Antique
 한인 이발관, Continental Maintenance of New England

찬조비 납부자 (\$2,525)

문수사, AAUD, 신고희, 이현주, 김문소, 박미륵, 총영사관
 김은분, 정영미, 윤순단, 이옥자, 이애나, 임종철, 한화자, 이보인
 이영애, 김길연, 이명숙, 백은희, 손금순, 김윤관, 김종천, 노정자

AAUD 참석자 (\$1,040)

김문소, 김계숙, 이경해, 밍 동, 김명기, 김선미, 김성균, 김진희
 박경수, 박대위, 박수균, 이형재, 남궁연, 남궁정자, 김양길
 김영기, 최홍균, 김대식 부부,

인턴 모금 파티 참석자 및 기부자 (\$12,245)

총영사관, 문수사, 도운회, 밍동, 김현숙, 김명기, 변창연 부부
 최원길, 채길식, 최낙철, 최영훈, 이지원, 김연숙, 장승훈 부부
 이경해, 함성기, 정재은, 한윤영, 김한구, 김인수, 조봉준 부부
 홍종필, 임나경, 강세현, 유인성, 김은한, 이해원, 한석훈 부부
 이춘순, 김진동, 우정희, 김기석, 김문소, 김계숙, 한선우 부부
 김세형, 김성균, 김성인, 김복자, 김성훈, 김양길, 임선자 부부
 김진희, 김영기, 김용구, 김세경, 고광숙, 박영복, 이한춘 부부
 이동익, 이재숙, 이의인, 이희규, 김혜연, 김윤배, 이충남 부부
 김영숙, 김순규, 이연우, 이은희, 김종천, 김한숙, 이경훈 부부
 허덕남, 박필수, 노영석, 윤익중, 한지연, 이상우, 제시카 리 부부
 박수균, 강복자, 임병규, 임영호, 이경애, 이문봉, 김선관 부부
 조영희, 박순혜, 윤용훈, 오순신, 오수택, 오말선, 이우조 부부
 박찬수, 박대위, 이진옥, 신재균, 신고희, 이옥희, 백흥기 부부
 남훈선, 김용구, 김세경, 정인석, 공정원, 김금련, 윤상래 부부
 김영아, 신상철, 신완철, 이영희, 서해수, 남궁연, 남궁정자
 윤은상, 최동인, 최홍균, 황성미, 김윤관, 박사라, Howard Koh
 이형재, 방선옥, 김원희, 한지연, 권이덕, 이병철, Gope Gidwani
 김병국, 김영기, 김유상, 김 현, 박석만, 김영기, 신종철, 이병철
 임재수, 정세용, 최연일, 한윤영, 김성빈, 안병화, 조남규, 정명철
 이삼환, 박경민, 최한길, 오상철, 백 린, 한승희, 인준식, 신동욱
 홍성도, 신재균, 이덕성, 김병덕, 전병렬, 최인섭, 장창섭, 정명철
 김성열, 고선애, 박재원, 김사강, 염은하, Kristy Kim, Jason Lee
 황일희, 최지연, 셋별 전통문화원 학생 9명, 이 외에 확인이 안된
 여러 분들

(이상 무순)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이하 본회)라고 부른다.

제2조: 위치

본회의 관할 지역은 뉴잉글랜드로 하며, 본회의 사무소는 대 보스톤 지역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인 미국 시민의 미국 정치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2. 한인 미국 시민의 법적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적극 추진하며, 시민권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주권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
3. 한인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확대하며, 사회 부조리 개선에 적극 참여한다.
4. 한민족의 역사적 전통을 유지, 보존하여 후손에 계승, 개발케 함으로써 민족적 긍지를 잃지 않게 하고,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5. 한미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다.

제4조: 사업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를 권장한다.
2. 한민족과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원한다.
3. 한민족의 권익에 관련된 법률의 의회 통과 및 통과 반대를 위한 합법적인 로비 활동을 한다.
4. 한민족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인사에 대한 청원서, 서신 등을 송부한다.
5. 한민족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합법적 행사를 한다.
6. 한민족의 가정 보호, 청소년 선도 및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 뉴잉글랜드 한인회와의 관계

본회는 뉴잉글랜드 한인회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

인 미국 시민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

2. 준회원: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미국 영주권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

3. 특별회원: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사람으로써 회장단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 받은 사람.

제8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고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결의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제9조: 정권 및 제명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사회에서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을 결의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칙 및 세칙을 위반한 사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0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임원회로 나눈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재직 회원 1/3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2. 임시 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4주 이내에 소집하며, 재직 회원 1/3 이상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임시 총회가 불가능할 때는 우편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또는 재직 이사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의 재직 이사 출석으로 성회된다.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회의 2주 전까지 심의 안건을 기재한 통지서를 이사회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우편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4.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당연직 이사, 분과 위원장, 지역 간사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5.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의 기능

1. 정기 총회는 이사회에서 결의 혹은 승인한 사항 외에 다음의 회무를 처리한다.

- 가. 전년도 결산 및 사업 보고
- 나. 신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
- 다. 회장, 부회장 및 이사 선출
- 라. 헌장 개정

- 마.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안건

2. 이사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을 연구, 계획하여 총회에 건의하며, 총회 결의 사항의 집행을 협조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가.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추천
- 나. 사업별 분과 위원회의 조직

- 다. 분과 위원회의 운영 세칙 인준

- 라. 헌장 개정 추천

- 마. 세칙의 제정 및 변경

- 바. 회원의 가입 (특별 회원 포함), 자격 정지 및 제명

- 사. 회비 책정

- 아. 예산 및 결산안 인준

- 자. 사업 계획 추천

- 차. 고문의 추대

- 카. 기타 총회의 인준을 요하는 사항

3. 상임이사회는 이사회 분과 위원장, 지역 간사 및 당연직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사회를 보다 활성화하고 능률화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준비하며, 긴급 사업 계획 및 안건을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4. 임원회는 회장단, 이사회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들로 구성되며,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방법을 구상하고 집행하며,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보고할 제반 사업 보고 및 처리 보고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심의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5.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상임이사회와 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12조: 회장단의 구성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사무총장 1명
4. 재무 1명
5. 대변인 1명
6. 섭외 약간명

제13조: 회장단의 선출

Article I
General

1. 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 후보중 정기 총회에서 다수결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가. 이사회에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총회 30일 전까지 회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한 사람
2. 사무총장, 재무, 대변인 및 섭외는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4조: 회장단의 임기

1.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단 중 결원이 생길 때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이다.

제15조: 회장단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정책 결정에 따라 본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임원회를 주관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연령 서열에 따라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 기간만 재임한다.
4. 사무총장은 본회의 모든 회의록 및 업무 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운영을 위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며, 총회에 사업 보고를 한다. 사무총장은 유급으로 한다.
5. 재무는 회비를 징수하고 본회의 재무를 담당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재정, 결산, 예산 보고를 한다.
6. 섭외는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를 위한 섭외 활동을 한다.
7. 대변인은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발표한다.
8. 회장단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9. 회장단은 특별 회원을 추천한다.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50명 이내의 선출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감사 2명, 각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를 둔다.

제17조: 이사의 선출 및 임기

1. 선출 이사는 다음 후보 중 정기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새로 선출할 이사의 수는 총회 전 이사회에서 정한다.
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총회 30일전까지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한 사람
2.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선출 이사 중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 이사 임기와 관계없이 2년으로 한다.

3. 감사,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는 선출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이사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4년으로 한다.

제18조: 이사의 임무

1. 이사장은 이사회와 상임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하고 잔여 기간만 재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1조 2항의 회무를 의결하며, 분과 위원회에 소속되어 기능을 발휘한다.
4.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들은 제4조 사업에 따른 사업들을 각 분과 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사업 계획서를 이사회나 상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이사회의 서기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며 사무총장이 겸임한다.
6.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제19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이사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본회의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 지출

본회의 모든 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얻어 행하며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장 헌장 개정

제21조

본 헌장은 이사회 또는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 제안으로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이 헌장은 총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1996년 현재의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잔여 임기를 재임한다.

개정

1. 제정: 1990년 8월 18일 창립 총회
2. 제1차 개정: 1994년 10월 1일
3. 제2차 개정: 1996년 10월 19일

Section 1: Name

The organization shall be known as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referred to as the League hereafter).

Section 2: Location

The League shall perform its activities in the New England area and shall have its main headquarters in the greater Boston area.

Section 3: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shall be:

- (1) to encourage Korean-American citize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American politics;
- (2) to enhance the legal status and benefits of Korean-Americans and to firmly establish Korean-Americans as being among the owner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educating them about their rights and duties as American citizens;
- (3) to strengthen relations among Korean-Americans; to improve their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tatuses; and to actively work to rectify social injustices;
- (4) to help future generations keep their Korean pride and to contribute a uniquely Korean element to American society by preserving Korean traditions and transferring them to future generations;
- (5) to enhanc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ction 4: Activities

The activities of the League shall be:

- (1) to encourage Korean-Americans to vote and to run for elected positions;
- (2) to support politicians who stand for Korean-Americans and Korea;
- (3) to lobby for and against passage of laws affecting rights of Korean-Americans;
- (4) to submit petitions and letters to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 (5) to engage in legal activities to protect and to promote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 (6) to undertake projects to protect Korean-American homes, guide Korean-

American adolescents, and promote benefits for elderly Korean-Americans.

Section 5: Relationship with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The League shall maintain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England to promote collaboration.

Article II Membership

Section 6: Membership Classes

The League shall be composed of Regular, Associate, and Special members.

Section 7: Membership Eligibility

Any Korean-American U. S. citizen residing in the New England area who supports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and who has applied for membership may become a Regular member. Any Korean-American permanent resident in the New England area who supports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and who has applied for membership may become an Associate member. Any person supporting the activities of the League who has been recommended by the Executive Body or the Board of Directors and approved at the General Meeting may become a Special member.

Section 8: Obligations and Rights of Members

Members shall observe the Constitution and Bylaws of the League and pay membership dues. All members may vote, but only Regular members may run for elected positions.

Section 9: Suspension and Expulsion

The Board of Directors may suspend or expel from the League any members who have:

- (1) violated the Constitution or Bylaws of the League;
- (2)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League;
- (3) have not fulfilled their obligations as members of the League.

Article III Organization

Section 10: Meetings

The League shall hold the following meetings:

- (1) The annual General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in the October of each year. The General meeting shall require the attendance of one-third of all members or at least one hundred members, whichever is fewer.
- (2) A Special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within four weeks of when the Board of Directors has deemed it necessary. It shall require the attendance of one-third of all members or at least one hundred members, whichever is fewer. However, if it is not possible to hold such a meeting, a mail-in ballot may be substituted.
- (3)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when the Chairperson, President, or more than one-third of the Directors deem it necessary. It shall be held at least twice a year, and shall require the attendance of more than one-half of the Board. The Chairperson shall send out a notice of the meeting and its agenda at least two weeks before the meeting date. If it not possible to hold the meeting, a mail-in ballot may be substituted.
- (4) The Standing Committee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Chairperson when the Chairperson or one-third of the Committee chairs and local representatives request it. It shall be held at least twice a year,
- (5) The Executive Committee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President at least twice a year.

Section 11: Meeting Functions

- (1) The agenda of the General Meeting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 a. report of the statement of the previous year's accounts and activities;
 - b. report of the following year's budget and plans;
 - c. election of the President, Vice Presidents, and Directors, if necessary;
 - d. any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 e. any other items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 (2)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study and plan all projects necessary for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e League and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General

meeting. The Board shall support the President in executing the decisions made at the General meeting. In addition, the Board shall take charge of the following:

- a.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for the offices of the President, Vice Presidents, and Directors;
 - b. organization of committees;
 - c. approval of Bylaws for committees;
 - d. recommendations for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 e. enactment and amendments to the Bylaws;
 - e. admission of new members, including special members, and suspension and expulsion of members;
 - f. determination of membership dues;
 - g. approval of drafts for the budget and account statements;
 - h. recommendation of plans for the coming year;
 - i. recommendation of advisors;
 - j. introduction of any other items to the General Meeting that the Board deems necessary.
- (3) The Standing Committee shall consist of Committee chairs, local representatives, and members of the Executive Body. It shall prepare for the Board Meeting and make plans for urgent projects, which shall subsequently be ratified by the Board.
 - (4) The Executiv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Executive Body, Committee chairs, and local representatives. It shall study effective methods of executing the items decided upon at the Board meetings, and then it shall be in charge of their execution. It shall also discuss the projects, budget, and account statements to be reported to the General, Board, or Standing Committee meetings, and oversee the execution of other necessary items.
 - (5) In an emergency or necessities, the President, after consulting with the Chairperson, may call a joint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and the Executive Committee.

Section 12: Composition of the Executive Body

The Executive body shall consist of one President, two Vice Presidents, one Executive Director, one Treasurer, one Spokesperson, and a few Public Relations

Officers.

Section 13: Selection of the Executive Body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s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following candidates:

- a. Persons recommended by the Board;
- b. Persons who have submitted to the Chairperson a petition signed by more than fifty members at least thirty days before the annual General meeting.

The Executive Director, Treasurer, Spokesperson, and Public Relations Officers shall be nominated from the Regular members by the President and confirmed by the Board.

Section 14: Terms for the Executive Body

The Executive Body shall serve for two years. If one of the members resigns before the term expires, a replacement shall be nominated by the President and confirmed by the Board. The term for such members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Section 15: Duties of the Executive Body

- (1) The President shall represent the League, execute the decisions of the Board, and be in charge of the operation of the League.
- (2) The President shall be the Chairperson of the General meeting and preside over the Executive Meeting.
- (3) The Vice Presidents shall assist the President. In case the President resigns before his or her term expires, the more senior aged Vice President shall become President. His or her term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former President's.
- (4)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keep all records of meetings and operations, assist the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s in carrying out the activities of the League, and report those activities at the General meeting.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be a paid position.
- (5) The Treasurer shall collect membership dues, be in charge of the League's finances, and report the financial statement of the previous year and the budget for the following year at the General meeting.
- (6) The Public Relations Officers shall perform public relations activities as delegated by the President and the

Board.

- (7) The Spokesperson shall represent and announce the opinions of the League as delegated by the President and the Board.
- (8) Executive Body members shall automatically become members of the Board.
- (9) The Executive Body shall recommend Special Members.

Section 16: Composition of the Board

The Board shall consist of fewer than fifty members. There shall be one Chairperson, one Vice Chairperson, two Auditors, chairpersons for the committees, and local representatives.

Section 17: Selection of the Board Members and Their Terms

- (1) The number of board members to be elected shall be decided at a Board meeting before the annual General meeting. The elected Board members shall serve four year terms and be elected by a majority vote from the following pool of candidates:
 - a. Persons recommended by the Board;
 - b. Persons who have submitted to the Chairperson petitions signed by more than thirty members at least thirty days before the General meeting.
- (2) The Chairperson and the Vic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Board members by majority vote of the Board meeting. Their terms shall be two years, regardless of their remaining terms as Board members.
- (3) Auditors, committee chairpersons, and local representatives shall be elected among elected Board members by majority vote at the Board meeting. Their terms shall be four years, regardless of their remaining terms as a Board members.

Section 18: Duties of the Board Members

- (1) The Chairperson shall call and preside over the Board meetings and the Standing Committee meetings.
- (2) The Vice Chairperson shall assist the Chairperson. If the Chairperson resigns before his or her term expires, the Vice Chairperson shall become the Chairperson.
- (3) Board members shall attend the Board meetings, make decisions on the items listed in Article III, Section 11 (2), and

perform activities for the pertaining committee.

- (4) Board committee chairpersons and local representatives shall study the activities related to the ones listed in Article I, Section 4 and submit plans to the Board or the Standing Committee.
- (5)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record and keep the minutes of the meetings.
- (6) The Auditors shall audit the accounts of the League and report the results to the General Meeting.

Article IV Finance

Section 19: Income

Income for the League shall come from membership dues, directors dues, and othe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of the League.

Section 20: Expenditures

All expenditures of the League shall require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and require receipts.

Article V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Section 21

At the written proposal of the Board or one-fifth of all members, the Constitution may be amended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and with the vote of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at the meeting.

Appendix

1. This constitution shall be effective on the date it is adopted at the annual General meeting.
2. The terms of the present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 as of 1996 shall serve their remaining terms.



				Fax
회장	최홍균	President Choi, Hong Kyun (PhD)	11 Bartkus Farm Rd., Concord, MA 01742 H: (978) 369-0351 O: (781) 981-4457	H: (978) 371-1217 O: (781) 981-0122
부회장	김성균	Vice President Kim, Song-Kun (Esq.)	294 Washington St., Suite 752, Boston, MA 02109 H: (617) 825-1115 O: (617) 482-1300	O: (617) 482-3344
부회장	이경해	Vice President Dong, Kay	239 Fremont St., Taunton, MA 02780 H: (508) 824-4080 O: (800) 867-9000	H: (508) 828-1585 O: (508) 828-1585
사무총장	김명기	Executive Director Kim, Michael Myungki	2 Lamprey Lane, Lee, NH 03824 H: (603) 659-6129 O: (603) 659-4845	H: (603) 659-5488 O: (603) 659-5488
재무	정인석	Treasurer Eugene, I. Chong (PhD)	9 Dunbar Way, Concord, MA 01742 H: (978) 318-7973 O: (603) 897-3039	O: (603) 897-3314
대변인	김연숙	Spokesperson Corkum, Yon (CFP)	25 Braintree Hill Office Park, Suite 301, Braintree, MA 02184 H: (781) 821-5825 O: (781) 849-0980 x172	O: (781) 848-3617

이사장	박대위	Chairperson Park, David	107 Scotland St., Hingham, MA 02043 H: (781) 740-1286 O: (508) 879-4285	O: (508) 879-4303
부이사장	김기석	Vice Chairperson Kim, Kisuk	1 Terrace Rd., Weston, MA 02493 H: (781) 899-3453 O: (617) 332-2800	
감사	임병규	Auditor Lim, Byoung Kyu	24 Thomas Dr., Reading, MA 01867 H: (781) 942-0624 O: (617) 662-1137	
감사	최영훈	Auditor Choi, Yung Hoon	37 Woodpark Circle, Lexington, MA 02420 H: (781) 861-6068 O: (603) 579-2512	O: (603) 579-2510
고문	뉴잉글랜드 한인회장 (자동 추대)			

유권자 등록 추진 위원회 REGISTRATION & CAMPAIGN COMMITTEE

고문	김은한	Advisor Kim, Eun Han (MD)	23 Solomon Pierce Rd., Lexington, MA 02420 H: (781) 861-0437 O: (617) 665-8912	H: (781) 861-0437
위원장	최낙철	Chairperson, Committee Choi, Steve	12 Springdale Rd., Lexington, MA 02420 H: (781) 860-9426 O:	
위원	정석호	Member, Committee Chung, Paul S.	65 Broadway St., Newton, MA 02160 H: (617) 928-1023 O: (800) 473-1922	O: (617) 267-5009
위원	박필수	Member, Committee Park, Phil S.	22 Maplewood Ave., Tyngsboro, MA 01879 H: (978) 649-6595 O: (978) 649-4177	
위원	김영하	Member, Committee Kim, Young Ha	1011 Centre Street, Newton, MA 02159 H: (617) 527-3456 O: (617) 442-1616	

기금 모금 위원회 FUND RAISING COMMITTEE

고문	박석만	Advisor Park, Suk Man	18 Olde Berry Rd., Andover, MA 01810 H: (978) 475-8627 O: (978) 686-9546	O: (978) 687-6255
위원장	조봉준	Chairperson, Committee Cho, Bong June	10 Endicott Rd., Andover, MA 01810 H: (978) 475-2317 O: (978) 535-6936	O: (978) 475-2317
위원	안병학	Member, Committee An, Byung Hak	50 North St., Andover, MA 01810 H: (978) 689-9546 O: (978) 749-9904	O: (978) 749-9904
위원	송기백	Member, Committee Song, Gi Baeck	17 Kenney Circle, S. Easton, MA 02375 H: (508) 238-1112 O: (781) 326-9898	O: (781) 326-9898

홍보/출판 위원회 COMMUNICATIONS & PUBLICATION COMMITTEE

고문	박경민	Advisor Park, Kyung Min (MD, PhD)	41 Laxfield Road, Weston, MA 02493 H: (781) 899-5009 O: (508) 383-1730	H: (781) 899-4675 O: (508) 383-1155
위원장	이의인	Chairperson, Committee Lee, Eui In (PhD)	7 Goffe Rd., Lexington, MA 02421 H: (781) 862-5270 O: (781) 981-4544	H: (781) 862-2636 O: (781) 981-7830
위원	김명기	Member, Committee Kim, Michael Myungki	2 Lamprey Lane, Lee, NH 03824 H: (603) 659-6129 O: (603) 659-4845	H: (603) 659-5488 O: (603) 659-5488
위원	박경원	Member, Committee Park, Kyung Won (MD)	127 Ridge St., Winchester, MA 01890 H: (781) 721-1260 O: (617) 667-3112	O: (617) 754-2677

위원	이상우	Member, Committee Lee, Sang Woo	1006 Stearns Hill Rd., Waltham, MA 02451 H: (781) 642-7135 O:	H: (781) 642-9538 O:
----	-----	------------------------------------	--	-------------------------

정치 활동 위원회 POLITICAL ACTION COMMITTEE

고문	김양길	Advisor Kim, Yangkil	182 Olympic Lane, N. Andover, MA 01845 H: (978) 691-5108 O: (978) 623-2103	H: (978) 687-8942 O: (978) 623-2603
위원장	김성인	Chairperson, Committee Kim, Sung In	6 Zambom Terrace, Andover, MA 01810 H: (978) 738-0034 O: (617) 737-3243	O: (617) 338-1280
위원	김기자	Member, Committee Kim, Kija	25 Clark St., Belmont, MA 02478-2448 H: (617) 489-9080 O: (617) 354-0100 x212	O: (617) 868-6855
위원	이강필	Member, Committee Lee, Kang Pil (PhD)	184 Cedar Hill St., Marlboro, MA 01752 H: (978) 443-7647 O: (508) 481-5058 x11	O: (508) 480-0328

이세 지원 위원회 SECOND GENERATION SUPPORT COMMITTEE

고문	이재신	Advisor Lee, Jay	141 Rhode Island Rd., Lakeville, MA 02347 H: (508) 923-0031 O:	
위원장	신상철	Chairperson, Committee Shin, Sang Chul	5 Dewey Rd., Lexington, MA 02420 H: (781) 862-0512 O: (978) 442-0531	O: (978) 547-2077
위원	방선욱	Member, Committee Pang, Gregory	5 Eastwood Lane, N. Easton, MA 02376 H: (508) 230-2757 O: (508) 584-5500	O: (508) 559-2488
위원	강경희	Member, Committee Kang, Kyong-Hee	85 Scotty Hollow Dr., Chelmsford, MA 01863 H: (978) 251-0963 O:	
위원	이지훈	Member, Committee Yi, Gary G.	38 Eastern Ave., Malden, MA 02148 H: (781) 322-6417 O: (781) 324-7765	O: (781) 324-7756

국적 위원회 NATIONALITY COMMITTEE

고문	백 린	Advisor Paik, Lin	6 Edwin Street, Brookline, MA 02146 H: (617) 734-9178	
위원장	고일석	Chairperson, Committee Koh, David I.	5 Cityview Circle, N. Providence, RI 02911 H: (401) 353-6180 O: (401) 944-1110	O: (401) 944-1106
위원	김철주	Member, Committee Kim, Nathan J.	1353 Pawtucket Blvd. #14, Lowell, MA 01854 H: (978) 454-2721 O:	

대외 협력 위원회 COMMUNITY LIAISON COMMITTEE

고문	김문소	Advisor Kim, Moon So (DVM)	10 Cardinal Lane, Andover, MA 01810 H: (978) 475-3534 O: (978) 851-3626	H: (978) 470-3232 O: (978) 851-6408
위원장	박경수	Chairperson, Committee Park, David K. (Esq.)	15 Lyme Road, Newton, MA 02165 H: (617) 964-1140 O: (617) 973-3536	
위원	노명호	Member, Committee Lowe, Myeong Ho	1370 Mass Ave., Arlington, MA 02476 H: (781) 595-4065 O: (781) 648-4783	
위원	제시카 리	Member, Committee Lee, Jessica	298 Ocean Ave., Marblehead, MA 01945 H: (781) 631-4255 O: (781) 639-1847	

인권 옹호 위원회 CIVIL RIGHTS COMMITTEE

고문	김갑동	Advisor Kim, Kap Dong (Rev.)	526 Commonwealth Ave., Newton, MA 02459 H: (617) 965-2157 O:	
위원장	이동익	Chairperson, Committee Lee, Dongik	26 Rockyhill Road, Andover, MA 01810 H: (978) 470-1793 O: (978) 470-4793	O: (978) 470-8232
위원	김진동	Member, Committee Kim, Jin Dong	39 Pleasant St. #B-18, Northborough, MA 01532 H: (508) 393-3677 O:	
위원	김금련	Member, Committee Kim, Zombek	7 McHugh Farm Lane, Chelmsford, MA 01824 H: (978) 256-5480 O: (508) 423-3124	O: (978) 453-4890

시민권 취득 안내 위원회 CITIZENSHIP COMMITTEE

고문	김양길	Advisor Kim, Yangkil	182 Olympic Lane, N. Andover, MA 01845 H: (978) 691-5108 O: (978) 623-2103	H: (978) 687-8942 O: (978) 623-2603
위원장	한석훈	Chairperson, Committee Han, Kenneth S. (Esq.)	165-M New Boston St., Suite 224, Woburn, MA 01801 H: (781) 272-7692 O: (781) 933-4751	O: (781) 935-4187
위원	김한수	Member, Committee Kim, Hansoo	26 Reeves Rd., Bedford, MA 01730 H: (781) 275-2409 O: (508) 383-7721	

위원 최원길 Member, Committee 9 Parkview Ave., Salem, NH 03079
 Choi, Won Kil H: (603) 893-9209 O: (978) 688-5418

지역 간사 REGIONAL REPRESENTATIVES

NH주 한윤영 New Hampshire Rep. 353 Maple St., Manchester, NH 03103
 Han, Yun Young H: (603) 893-6373 O: (603) 622-8883
 NH주 오수택 New Hampshire Rep. 3 Stone Post Rd., Salem, NH 03079
 Oh, Steve H: (603) 898-6576 O: (603) 434-8399
 ME주 채도경 Maine Rep. 3 Tallwood Road, Augusta, ME 04330
 Chai, Dou Kyung (MD) H: (207) 622-9757 O: (207) 623-3515 O: (207) 626-9277
 RI주 임인학 Rhode Island Rep. 120 Fox Run Road, East Greenwich, RI 02818
 Lim, David InHak H: (401) 884-6292 O: (401) 732-5588 O: (401) 732-5518

재무 보고

재무 함 성 기

Financial Report

Steve Ham, Treasurer

회계 기간: 10/1/98 - 9/30/99

INFLOWS

Ad. Income	\$9,735.00
Director's Fee	\$7,250.00
Donation	\$2,425.00
Fundraising Income	\$12,245.00
Interest Income	\$64.87
Membership Fee	\$1,730.00
AAUD Ticket Sale	\$1,040.00
TOTAL INFLOWS	\$34,489.87

OUTFLOWS

Advertisement	\$878.00
Bank Charges	\$148.43
Commission	\$3,000.00
Contribution	\$769.98
Equipment	\$1,000.00
Fundraising	\$7,281.77
Mail	\$1,358.09
Membership	\$155.00

Misc.	\$74.00
Newsletter	\$393.14
Office Supplies	\$950.74
Plaque	\$193.35
Printing	\$10,156.71
Scholarship	\$4,000.00
Telephone	\$765.11
AAUD Tickets	\$1,200.00
TOTAL OUTFLOWS	\$32,324.32

Total Inflows	\$34,489.87
Total Outflows	\$32,324.32
Net Income	\$2,165.55

Beginning Cash Balance	\$3,113.45
Net Income	\$2,165.55
Ending Cash Balance	\$5,279.00

임기 년한별 이사 구분

2003년: 방선욱, 안병학, 박대위, 송기백
 이상우, 임인학, 강경희
 2002년: 최원길, 김양길, 김갑동, 조봉준
 김진동, 제시카 리, 김금련, 이강필
 이의인, 김철주
 2001년: 박필수, 임병규, 김기석, 김한수
 신상철, 이지훈, 김영하, 김성인
 2000년: 최낙철, 고일석, 최영훈, 이동익
 한석훈, 노명호, 박경수, 박경원
 김기자, 진동호, 정석호
 당연직이사(회장단)
 최흥균(2000), 김성균(2000)
 이경해(2000), 김명기(2000)
 정인석(2000), 김연숙(2000)

2000년도 예산

수입 예산

회비	\$3,000
이사회비	\$12,000
협회지 광고	\$12,000
정치인턴모금파티	\$15,000
찬조비	\$3,000
AAUD 티켓	\$900
이자	\$70
총계	\$45,970

지출 예산

출판비	\$10,000
정치인턴 모금파티	\$8,000
정치인턴 장학금	\$6,000
인건비	\$10,000
사무용품	\$1,000
사무용 비품	\$2,000
매체 광고비	\$1,000
타 단체 기부	\$1,000
전화	\$800
우편	\$2,000
여행 경비	\$2,000
은행 경비	\$150
타 단체 회비	\$200
AAUD 티켓	\$900
기타 및 예비비	\$920
총계	\$45,970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이민자 권익옹호 교육자료 8/99

현 재 연방의회에서는 이민 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공공혜택, 이민정책, 혐오범죄 관련 법안에 관한 정책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법안을 정리하였다.

▶ **합법 이민자 공공혜택 복원**

1996년 8월 22일 월페어 개정법 통과로 인하여 합법 이민자에 대한 공공혜택의 많은 부분이 삭감된 상태이며, 특히 1996년 8월 22일 이후 입국한 이민자들은 공공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데니얼 모히니언 상원의원(민주-뉴욕)과 샌터 레빈 하원의원(민주-미시간)에 의해 연방 상원과 하원에 동시에 상정된 「합법 이민자 공평대우법-1999(Fairness for Legal Immigrants Act of 1999)」은 합법 이민자의 공공혜택 수혜권리를 상당부분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S.792 / H.R. 139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 정부에서 모든 합법 체류 어린이와 임산모, 장애인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것 허가.
2.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을 모든 합법 체류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것 허가.
3. 1996년 8월 22일 이후 미국에 입국하여 장애인이 된 합법 이민자에게 생계보조비(SSI) 수혜 권리 복원.
4. 1996년 8월 22일 이전에 입국한 모든 합법 이민자들의 생계보조비(SSI)와 푸드 스탬프 수혜 권리 복원.
5. 가정폭력 피해 이민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 혜택을 확대.

이민자들도 공공혜택을 위해 세금을 낼 의무는 있지만 공공혜택의 수혜 권리가 없다는 것을 합법적이지 못하다. 「합법 이민자 공평대우법-1999」은 지난 96년 월페어 개정법이 제한한 합법 이민자들의 공공혜택 수혜 권리를 완전 복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자들의 공공혜택 수혜 권리를 신장하는 것이므로 이민 사회의 지지활동이 필요하다.

▶ **가족 재결합을 위한 이민자 추방규정 완화**

96년 개정된 이민법은 심각한 반이민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된 이민법의 국

외 추방규정은 경범을 범한 합법 이민자를 사면 없이 추방하게끔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은 단순 경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도 미국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추방될 수도 있으며, 사소한 절도행위 등으로 1년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을 경우 징역을 살지 않더라도 추방된다. 또한 추방규정에 의하면 이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복역을 마친 후 현재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합법 이민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이민관사의 추방 결정에 대한 항소 및 재심권리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추방규정으로 빚어진 가장 큰 참사는 이민자 가정의 파괴이며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 자녀들이다. 추방명령을 받으면 영구히 가족간의 생이별을 초래하며 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추방되면 남은 가족들은 공공혜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민법의 추방규정은 가혹성이 지나쳐 비인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푸로스트 하원의원(민주-텍사스), 디에즈 발라트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이민자 추방규정을 완화하는 「가족재결합법안-1999(Family Reunification act of 1999)」(H.R. 1485)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합법 이민자의 사소한 범법행위로 인한 추방과 강제 구금을 제한하는 한편 항소권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 빌 랜 리(Bill Lann Lee) 임명**

미국 역사상 아시안 아메리칸이 처음으로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최근 중국계 아메리칸인 빌 랜 리 변호사를 미연방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으로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빌 랜 리는 지난 97년 12월부터 민권담당 차관 대리로 직무를 수행해왔다. 빌 랜 리 변호사는 민권 수호에 앞장서온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전국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와 아시안 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 등 민권단체에서 민권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탁월한 능력 또한 인정받고 있다.

1997년 이후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 대리

로 재직하면서 각종 혐오범죄 처벌에 앞장서고 장애인을 위한 각종 정책 시행과 부당한 주택 입주권 차별에 맞서 거주자 권익을 옹호했으며 현대판 노예시장과 노동자 착취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모든 미국인들의 민권을 대변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입증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일부 보수적인 연방의원들이 빌 랜 리에 대한 인신공격과 함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지지하는 그의 입장을 지적하여 민권담당 차관 임명에 대한 인준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여러 민권단체들은 연방의원들이 정치적인 이해 관계를 벗어나 빌 랜 리의 임명을 즉각 승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245(i) 조항 복원안 (H.R.1841)**

245(i) 조항은 서류미비상태의 이민자가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체류하면서 합법적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다. 그러나 98년 1월 245(i) 조항의 폐지로 현재 서류 미비자들이 결혼 등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출신국 주재 미 대사관으로부터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한편 96년 개정 이민법에는 서류미비자가 합법적 신분을 취득하려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서류미비자의 3년에서 10년까지 미국 대입 금지'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 서류미비자의 합법적 신분 취득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현재 연방하원에 계류중인 (H.R. 1841)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245(i) 조항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1999 혐오범죄 방지법안(HC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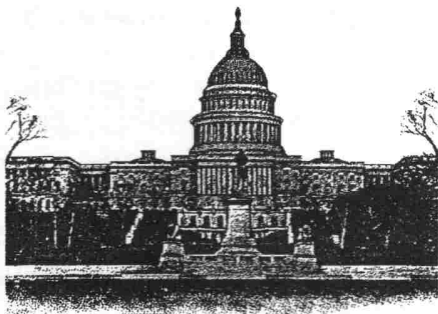
최근 와이오밍에서 동성애 학생 매튜 세퍼드의 살해사건 이후 이와 같은 잔악한 혐오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더욱 커지고 있다. 혐오범죄에 대한 심각성은 1997년 한 해에만 8천건 이상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연방수사국(FBI)의 발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혐오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들의 권리는 현행 연방법과 주법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다.

「강력 범죄 방지와 처벌법-1994」의 일환

으로 제정된 혐오범죄 처벌법에 의하면 "혐오범죄란 가해자가 어느 특정 인종, 종교, 국적, 민족, 성별, 장애인이나 성적취향 등에 근거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선정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연방법으로 각종 혐오범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기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다.

현재 연방의회에 상정된 「혐오범죄 방지법-1999(The Hate Crimes Prevention Act of 1999)」(S. 622)은 우선 혐오범죄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여 현행 연방 범죄규정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혐오범죄의 처벌에 있어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와 지역자치정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경찰이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상정된 법안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을 연방의원들에게 전달합니다. (연방의회 교환번호 202-224-3121)



Congress is currently debating important proposals that affect immigrant communities across the nation with regard to issues such as public benefits, hate crimes, and political appointees. Below is a summary of selected proposals.

Restoration of Benefits to Legal Immigrants

The welfare reform law terminated many government benefits for legal immigrants, particularly those who arrived after the law was passed on August 22, 1996. However, the *Fairness for Legal Immigrants Act of 1999* (S. 792 / H. R. 1399), introduced by Sen. Moynihan (D-NY) and Rep. Levin (D-MI), would:

- permit states to extend Medicaid coverage to all children, pregnant women and persons who are blind or disabled, so long as they are lawfully present in the U. S.
- permit states to provide their own state Children's Insurance Program (CHIP) to all lawfully present children
- restore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eligibility to people who entered the U.S. after the welfare law was enacted on August 22, 1996 and who subsequently become disabled
- restore SSI and food stamp benefits to all qualified immigrants who were in the U.S. prior to August 22, 1996
- expand eligibility for benefits to immigrants who ar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his bill does not fully restore immigrant benefits eliminated by the welfare law but is a significant step toward enhancing safety net protections for legal immigrants. Immigrants pay taxes to support these programs for others but many new immigrants are not eligible to receive benefits in times of need.

Alleviation of Harsh Deportation Provisions to Reunite Families

The immigration law of 1996 included several harsh anti-immigrant provision. The changes regarding deportation provisions made legal immigrants deportable without a possibility of relief, for even minor crimes. For example, many immigrants who have legally resided in the US for years will be deported for certain misdemeanors even with no prison sentence. Other legal immigrants who commit petty thefts or burglary must be deported if the term of sentence is at least one year - even if they never served a day in jail.

The law is being applied retroactively to deport immigrants who committed crimes in the US decades ago, who already served their time and are currently leading exemplary lives. In addition, immigrants have almost no rights to judicial review to appeal deportation decisions made by immigration judges. The most tragic consequence of this law is the permanent separation of one family member from the rest of his/her family. Some families are forced to go on welfare due to the deportation of the chief wage earner and often children suffer the most as a result of the family separation. To impose such extreme sanctions causing permanent separation is not only harsh but inhumane.

In response, Rep. Frank (D-MA), Rep. Frost (D-TX) & Rep. Diaz-Balart (R-FL) have introduced a bipartisan *Family Reunification Act of 1999* (H. R. 1485). The proposed law would limit the types of crimes for which legal immigrants could be deported, allow flexibility in mandatory detention of individuals who are not threats to the community, and restore appeal rights for these immigrants.

Bill Lann Lee's Nomination as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Civil Rights

For the first time in our nation's history, an Asian American has been nominated to the highest civil rights post in the nation. Bill Lann Lee, a Chinese American civil rights attorney, was nominated by President Clinton as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the Civil

자료제작: 미주 한인 봉사 교육단체 협의회 (NAKASEC)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

National Office: 50-16 Parsons Blvd., #100 Flushing, NY 11355
 Phone: 718-445-3939 / fax 718-445-0032 / nakasec@sprynet.com
 West Coast Office: 900 S. Crenshaw Blvd., #101, LA, CA 90019
 Phone: 323-954-9811 / fax 323-937-3526 / eun@nakasec.org

가입단체: 뉴욕 청년학교, 나성 민족학교,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필라 청년마당집

Rights Division at the Department of Justice. Mr. Lee has been serving as Acting Assistant Attorney General since December 15, 1997.

Bill Lann Lee has been a staunch defender of civil rights and has a record of dedication and experience as a civil rights attorney at the NAACP Legal Defense and Educational Fund and Asian American Legal Defense & Education Fund. As the acting head of the Civil Rights Division at the Department of Justice since 1997, Mr. Lee has worked to strengthen hate crime laws, improve access and opportunities for Americans with disabilities, fight housing discrimination, and free victims of modern-day slavery and worker exploitation. He has proven to be a thoughtful advocate for the civil rights for all Americans and an effective leader of the Division.

Yet conservative lawmakers have attacked Mr. Lee's character and delayed his confirmation largely for his support of affirmative action. The civil rights community is calling for an immediate approval of Bill Lann Lee's nomination by the Senate.

Restoration of 245 (i)

Representative Luis Gutierrez (D-IL) and Connie Morella (R-MD) introduced H.R. 1841, which revives Section 245 (i)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94. Section 245 (i) is a provision that allows certain undocumented immigrants, if they are eligible for family or employment visas, to change their status in the United States by paying a \$1,000 fine.

Section 245 (i) expired in November of 1998, and now immigrants must return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to process their visas. Unfortunately, the 1996 immigration law imposed a bar on re-entry for up to 10 years for those immigrants, who are otherwise legally eligible for visas. As a result, families are suffering from years of separation and businesses are hurt by losing employees that they need.

Advocates argue in support of the restoration of 245 (i) to prevent family separation, help American businesses and to restore a critical stream of revenue to the government.

The Hate Crimes Prevention Act of 1999 (HCPA)

Recent outbreaks of hate violence such as the fatal shootings in Indiana and Chicago areas over the July 4th weekend

and the shootings at a Jewish community center near Los Angeles, have re-ignited a public demand for stronger laws against hate crimes. The persistence of hate crimes is also demonstrated by FBI figures, which reported over 8,000 incidents of hate crimes in 1997. Currently, neither federal nor state laws adequately protect the rights of individuals who may be targeted for hate violence.

The Hate Crimes Sentencing Enhancement Act, which was enacted as part of the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 defines a hate crime as "a crime in which the defendant intentionally selects a victim ... because of the actual or perceived race, color, religion, national origin, ethnicity, gender, disability or sexual orientation of any person." However, there are significant limitations for prosecuting hate crimes under the present federal legislation, which is extremely difficult to apply.

The Hate Crimes Prevention Act of 1999 (S. 622) would lift some of the limitations of current federal criminal codes by broadening the definition of hate crimes, allowing the federal government to assist state and local authorities, and if necessary, allowing federal prosecution to achieve just results.

-
- ▶ *Please contact your elected representatives to express your views regarding the above proposals. (Capitol switchboard: 202-224-3131)*
 - ▶ *For sample letters and more detailed information and updates, please contact NAKASEC.*

Sources: Asian American Legal Defense & Education Fund, Asian Pacific American Labor Alliance, AFL-CIO, Brennan Center for Justice at NYU Law School, Japanese American Citizens League,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onsortium, National Council of Asian Pacific Americans, 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National Immigration Forum, Organization of Chinese Americans and others.

Produced by NAKASEC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 www.nakasec.org
National Office: 50-16 Parsons Blvd., #100, Flushing, NY 11355 / 718-445-3939 / fax 718-445-0032 / nakasec@sprynet.com
West Coast Office: 900 S. Crenshaw Blvd., #101, Los Angeles, CA 90019 / 323-954-9811 / fax 323-937-3526 / eun@nakasec.org

Affiliates

Korean Resource Center, Los Angeles (323) 937-3718
Korean American Resource & Cultural Center, Chicago (773) 506-9158
Korean American Community Center, Philadelphia (215) 924-2507
Young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enter, New York (718) 460-5600

2000년도의 인구 조사 결과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
그리고 당신의 지역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2000년도의 인구 조사(센서스 2000)란 무엇입니까?

매 10년마다, 인구 조사국에서는 미국에 있는 전체 인구수를 조사합니다. 다음번의 조사는 "2000년도의 인구 조사"라고 하며 2000년 4월 1일에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사업체와 조직들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체 인구수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구 조사에 응답함으로써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가 혜택과 서비스를 받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인구 조사는 어떻게 이용됩니까?

- 당신의 지역 사회가 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병원이나 탁아소나, 도로를 어디에 세울지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 당신의 주에서 몇 명의 국회의원을 연방 하원에 보낼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직업 교육 프로그램과 학자 융자금을 제공하는 재원의 액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소수계, 장애자나 노인들이 직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2000년 3월 초에 모든 가구에서는 인구 조사에 관한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 편지에서는 당신이 인구 조사 용지를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원하신다면 **중국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또는 베트남어**로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려 줍니다. 그 달 말에 미국에 있는 모든 가구에 인구 조사 용지가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인구 조사 용지에는 당신의 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가족 관계, 어떤 인종과 민족에 속하는지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조사에 응답하십시오 !!!

인구 조사에 대한 당신의 모든 대답은 법적으로 **비밀 보장**이 됩니다. 이런 정보는 이민국이나 국세청과 같은 정부의 기관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누설되지 않습니다. 인구 조사에 응하시면 **당신이 사는 지역 사회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Participate
in Census 2000**

**The outcome of Census 2000 will
have a major impact on you, your
children, and your neighborhood.**

Your Response is Important!

What is Census 2000 ?

Every ten years, the Census Bureau counts the total number of people in the United States. The next count is called "**Census 2000**" and will be on April 1, 2000. The government,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need a complete count of the population to provide basic services. Completing the census forms will help **your neighborhood** receive **benefits and services**.

How is the Census used?

- * To decide how much money your community will get for **schools**
 - * To decide where **hospitals, child care centers, and roads** will be built
- * To decide how many **representatives** from your state will serve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 * To provide money for **job training programs and student loans**
- * To prevent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in the workplace

How will the count happen ?

Early in March 2000, every household will receive a letter in the mail about the census. The letter will allow you to request census forms in **Chinese, Korean, Tagalog, or Vietnamese** if you prefer one of these languages over English. Later that month, every household in the United States will receive a census form in the mail. The census form will ask questions such as the name, sex, age, relationship, ethnic origin, and race of all the members in your household.

Fill out the form !!!

By law, all of the individual answers you give in the Census are **confidential**. The information cannot be shared with any person or any government agency such as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 or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Filling the form out will only help to improve your neighborhood.



Produced by the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onsortium, Washington, DC, January 1999.
Reproduction permitted only with attribution. "Your Response is Important"
Contact: Glenn D. Magpantay, Asian American Legal Defense & Education Fund (AALDEF)
212-966-5932 or email at AALDEF@worldnet.att.net

1. 정치 인턴 후원 모금 파티: 2000년 4월 1일 Burlington Marriott Hotel 오후 6시
2. 시민권 취득 워크샵: 2회 (5월, 10월)
3. 출판 및 홍보: 회지 발간 1회, 뉴스레터 발간 2회 및 발송, 각종 홍보 활동
4. 캠페인: 유권자 등록 및 투표, 회원 확보, 법안 반대 및 추진, 한인 정부직 추천 등
5. 간담회: 전국 한인 단체 책임자 초청 간담회
6. 여타 단체와의 유대: AAUD 및 아시안 단체 행사 참여, 전국 한인 단체 회의 참여

한인의 힘을 뭉칩시다. 시민협회에 가입해 주십시오.

오른 쪽에 있는 입회원서를 작성하셔서 회비와 함께
정 인석 재무에게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권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 세대인 젊은 2세 지도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핫라인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회장 최 흥 균 (978)369-0351
11 Bartkus Farm Road, Concord, MA 01742

사무총장 김 명 기 (603)659-6732(핫라인)

<http://www.KACL.org>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입회 원서 (Membership Application)

Renewal (갱신 또는 년회비 납부) () New(신규) ()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시민권자 ()

직장전화: () _____ - _____ 정당: Independent () Republican () Democratic ()

영주권자 ()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시민권자 ()

직장전화: () _____ - _____ 정당: Independent () Republican () Democratic ()

영주권자 ()

주소: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County) _____ 집전화: () _____ - _____

소속교회 혹은 기관: _____

위 본인은 협회 헌장에 명시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199 년 월 일

서명 _____ 서명 _____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회장 귀하

년회비 (Membership Yearly Dues) : 1인당 \$10 \$ _____

이사회비 (Officers Yearly Dues) : 1인당 \$100 이상 \$ _____

찬조비 (Other Contributions) : \$ _____ 총계 (Total) \$ _____ (수표동봉)

수표작성 (Make checks payable to) : KACL

Mail to :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c/o Eugene I. Chong (재무 정인석, 978-318-7973)
9 Dunbar Way, Concord, MA 01742

알리는 말씀

시민협회는 정부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나 위원회의 자리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인들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격이 있는 분들의 명단을 미리 확보하려고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주소로 영문 이력서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Mailing Address: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c/o Hong Kyun Choi, Ph.D.
11 Bartkus Farm Road., Concord, MA 01742
(회장 최 흥균, 978-369-0351)

시민협회 핫라인: (603) 659-6732 Michael M. Kim (사무총장 김명기)
24시간 문의 및 연락 가능

간판		보스톤 한인교회	(617)469-4289	도래미 노래방	(617)783-8900
초이스간판	(781)229-1888	북부보스톤 연합감리교회	(978)470-0621	진 노래방	(617)782-9282
건축설계		새생명교회	(617)787-1868	캐비어	(617)426-1997
드림하우스 플로어	(401)435-5546	새소망교회	(617)784-9127	Avenue-X	(617)661-2901
부라더 종합건축	(617)593-2355	성광장로교회	(978)486-3135	H ₂ O	(617)562-8100
선아건축	(508)584-9703	성요한 감리교회	(781)275-7880	Club Saga	(617)776-8676
원덕수 건축설계사무소	(617)731-1102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628-9526	당구장	
이갑제 건축	(978)688-1922	스프링필드 제일교회	(413)783-6636	초이스 당구장	(617)254-3944
이동익 설계사무소	(978)470-1793	스프링필드 한인장로교회	(413)798-4522	뉴보스톤 당구장	(617)424-6326
장스 건축	(401)274-6088	시온교회	(413)772-6926	떡집	
지선 디자인	(617)325-5076	안디옥교회	(508)534-3394	형제떡집	(978)975-3303
크리스탈 윈도우	(781)961-7300	앰허스트 한인장로교회	(508)649-0604	동창회	
K&J Service	(781)431-9541	영광 순복음교회	(978)658-0150	건국대학교 동창회	(401)738-8735
개업의		우스터교회	(508)799-4488	서울대학교 동창회	(401)274-2044
고 피부과	(617)726-2000	월담한인교회	(781)893-0128	서울신학대학교 동창회	(617)489-8855
박종곤 성형외과	(508)879-7575	좋은 감리교회	(617)441-5248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
송남수 정신과	(781)762-6592	케임브리지 연합장로교회	(617)861-3877	중앙대학교 동창회	(978)897-6864
오원환 정형외과	(617)322-1725	케임브리지 제일교회	(508)584-1680	변호사	
장경후 소아과	(508)687-2119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617)491-1474	김성군	(617)482-1300
Grace Kim 가정전문의	(508)475-5656	퀸지영생장로교회	(617)770-2755	김성희	(617)889-0093
기관·단체		하마다 한인교회	(617)876-3540	박요한	(617)661-3222
뉴잉글랜드 경제인협회	(781)237-1068	한인성서침례교회	(508)263-8459	한석훈	(781)933-4751
뉴잉글랜드 골프협회	(617)298-2288	(뉴햄프셔주)		Joy Lee	(617)624-0292
뉴잉글랜드 공군보라매	(978)392-4255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뉴잉글랜드 과학자협회	(508)520-0696	내슈아함마음장로교회	(603)888-8040	병원	
뉴잉글랜드 교역자협의회	(617)491-0855	뉴버드 연합감리교회	(603)433-7475	김문소 동물병원	(508)851-3626
뉴잉글랜드 교회협의회	(781)275-8233	뉴햄프셔 반석감리교회	(603)421-9100	종합건강관리센터	(603)424-5615
뉴잉글랜드 세타인협회	(978)373-4446	뉴햄프셔 장로교회	(603)437-5134	한국의료원	(781)388-4158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978)369-0351	뉴햄프셔 한인교회	(603)626-9861	보석	
뉴잉글랜드 의사협회	(781)861-0437	레바논 한인장로교회	(781)648-9380	국제보석	(617)523-2553
뉴잉글랜드 이북5도민회	(781)935-8125	맨체스터 장로교회	(603)625-0500	메타관보석	(617)298-6661
뉴잉글랜드 청년회	(508)587-5240	새작연합감리교회	(603)742-3046	보스톤 보석	(617)723-7979
뉴잉글랜드 태권도협회	(413)796-1400	셀렘반석교회	(603)898-4176	우리보석	(617)338-2799
뉴잉글랜드 평동자문협회	(617)542-5511	한국사람의교회	(603)634-0055	보험	
뉴잉글랜드 학교협의회	(617)232-1708	한마음 장로교회	(508)649-4177	김세경보험 (MetLife)	(508)995-2600
뉴잉글랜드 한인회	(617)264-7326	Asbury U.M.C.	(603)363-4451	고영복 (MetLife)	(978)683-9493
뉴잉글랜드 해병전우회	(781)662-5350	Dummer U.M.C.	(603)449-2026	조종운 종합보험	(781)255-1134
뉴햄프셔 한인회	(603)622-8883	(로드아일랜드주)		한인 종합보험	(617)734-7998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683-0635	로드아일랜드상동감리교회	(401)351-2347	J. C. 김 보험	(617)234-0055
메인 한인회	(207)772-0006	로드아일랜드 제일교회	(401)944-0520	부동산	
보스톤 새생활센터	(781)279-3270	로드아일랜드 중앙교회	(401)739-7168	이경해 (Lee Associates)	(800)867-9000
보스톤 체육회	(781)395-3524	시온 감리교회	(401)467-4720	이정선	(617)933-0909
보스톤 한국 총영사관	(617)641-2830	(메인주)		이재신	(617)236-0960
보스톤 한미 노인회	(617)484-2831	메인 한인교회	(207)774-1617	이종수	(781)431-2423
보스톤 한미 노인대학	(781)899-5009	People U.M. Church	(508)465-5145	지형민 Century 21	(781)647-5168
신용조합 추진위원회	(603)434-8399	(커네티컷주)		최선희	(617)655-9277
한미 의료 봉사협회	(617)782-4443	갈보리 한인교회	(203)587-3677	Ann Kim	(617)864-4430
기독교		뉴런던한인연합감리교회	(860)848-7228	IBR 부동산	(617)665-9277
갈보리교회	(413)789-9888	뉴타운 연합감리교회	(203)426-9998	불교	
뉴잉글랜드 한인교회	(781)438-9829	뉴헤이브한인연합감리교회	(203)498-9675	문수사	(617)224-0520
라이스 한인침례교회	(508)393-5313	뉴헤이브 한인교회	(203)287-0110	미국불교 (심광사)	(617)787-1506
렉싱턴 한인교회	(781)771-9660	대리엔 한인장로교회	(203)655-9192	서운사	(508)529-3224
목양 교회	(781)793-9330	스탠포드한인교회	(203)322-3009	비디오·사진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웨데스필드 연합감리교회	(860)529-2025	까지 비디오	(617)782-8874
베다니 한인교회	(781)863-8463	제시리 연합감리교회	(203)438-8791	비디오 사진촬영	(617)739-1070
보스톤 감리교회	(617)629-2322	커네티컷 한인선교교회	(203)845-0754	진 비디오	(617)782-9282
보스톤 늘푸른교회	(617)721-9136	커네티컷 한인교회	(203)497-9744	산부인과	
보스톤 사람의 교회	(781)661-7532	켄싱턴 연합감리교회	(860)828-4226	강길원 산부인과	(978)957-4660
보스톤 산성장로교회	(617)926-7195	토링톤 한인교회	(860)596-0149	김일 산부인과	(508)879-0098
보스톤 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하트포드 제일한인교회	(860)645-1416	이운로 산부인과	(508)580-0044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하트포드 한인장로교회	(860)643-0537	상담소	
보스톤 소망교회	(781)647-0190	하트포드 한인교회	(860)953-0141	임나경 상담소	(617)738-9622
보스톤 시온성교회	(781)251-0164	헤어필드 한인교회	(203)459-8756	생선가게	
보스톤 안식일교회	(781)279-3270	내과		동해 횃집	(617)776-8857
보스톤 예수재림교회	(781)279-9049	전진학 내과	(617)647-1237	Captain Boston Fish	(781)395-8138
보스톤 장로교회	(508)478-9705	정태진 내과	(617)642-8137	JP Seafood Cafe	(617)983-5177
보스톤 중앙교회	(617)731-4381	냉난방·배관		Sea to You	(617)261-9921
보스톤 한인감리교회	(617)254-5746	P.S.I.	(617)547-0211	선물용품	
		노래방·카페		소라 화장품	(617)566-5106

선물가게	(617)927-4433	한국종합식품	(617)623-9620	제과	
Allston 귀국용품	(617)787-1667	함아름식품	(617)547-8723	서울페과점	(617)787-6500
식당		한농중앙야채	(978)772-7036	형제떡집	(978)975-3303
가든하우스	(978)691-5448	한호동양식품	(603)893-8559	주류	
가야식당 (보스톤)	(617)236-5858	신발		그린소주	(617)445-9304
가화	(617)782-7911	Alpha & Omega	(617)427-3044	진로소주	(508)651-8186
고려원	(617)492-9643	Edwin Case	(617)277-6577	카스맥주	(781)758-7501
고향식당	(617)623-7220	안과		지압·단전	
나라식당	(617)338-5935	글로벌리아 우 안과	(617)734-0605	단센터	(781)647-7733
나리파	(617)868-2226	김철 안과	(617)322-1725	대한태권무예원	(617)868-5045
뉴가야	(617)497-5656	안경		한국지압원	(617)278-0275
뉴장수갈비	(781)272-3787	국제 안경원	(617)776-6300	천주교	
뉴코리아	(617)876-6182	언론기관		뉴햄프셔 한인 천주교회	(603)893-8779
다빈	(781)860-0171	보스톤 투데이	(781)599-2799	보스톤 한인 천주교회	(617)244-9685
다께시마	(617)566-0200	한국일보 보스톤지국	(617)713-0010	성미카엘 천주교회	(203)869-5421
대화 일식집	(617)566-7344	여행사		커네티컷 한인천주교회	(203)937-6371
리틀 부산	(508)897-5107	대한항공	(617)261-3883	한인 천주교회	(617)244-0520
물레방아	(617)868-2226	동미여행사	(617)423-1151	치과	
미나토 스키	(617)731-6700	범아여행사	(617)482-6237	김영호 치과	(617)894-1127
미스타 스키	(617)731-1122	오리엔트여행사	(800)446-4345	송백종 치과	(617)264-9966
민속식당	(617)783-8702	유니버스여행사	(888)666-1708	신영목 치과	(617)265-5606
보고카페	(617)776-8857	코리아여행사	(617)267-7777	안태준 치과	(781)647-8000
북경반점	(617)623-7220	하나여행사	(800)368-6977	오 치과	(617)924-6452
사라식당	(603)624-0770	운송·이사		윤경숙 치과	(617)492-8210
서울 하우스	(617)244-2111	국제해운	(781)935-5903	찰스 허 치과	(781)861-8978
송옥식당	(617)491-5091	범양해운	(978)470-8809	한은애 교정치과	(781)862-0930
신라식당	(617)547-7971	보고운송	(978)772-6629	Cambridge Dental	(617)776-5900
신미	(617)247-2111	보스톤운송	(617)984-2624	Dental Associates	(617)471-8161
신토불이	(617)437-0152	보스톤 종합운송	(617)224-7789	컴퓨터	
쌍둥이 레스토랑	(508)797-4009	보스톤 한국이사집	(617)783-1233	내셔널 컴퓨터	(617)847-0045
수라 레스토랑	(401)277-9088	에이스 이삿집	(617)306-1868	Micro Dimensions	(617)320-1969
아리랑하우스	(617)536-1277	E-Z Moving	(617)560-5851	Notebook Plus	(617)267-8439
아시아나 그릴	(781)646-2766	용자		태권도	
영빈 가든	(617)367-8360	이경해 용자	(800)867-9000	김영곤	(978)688-1037
요코하마	(781)689-4047	이종수 용자	(617)799-6158	박선우 태권도장	(603)433-2099
용정옥	(617)783-2116	지형민 Century 21	(781)647-5168	Alpha TKD Academy	(978)256-4904
우정식당	(978)772-5742	이·미용원		Ans TKD	(978)453-5387
우촌집	(617)623-3313	기녀미용실	(781)593-4292	Central Institute of TKD	(617)776-6161
장음식주문	(617)623-7537	김씨네 머리방	(617)739-1067	Cho Olympic TKD	(617)630-5137
제이스 카페	(617)421-9405	새빛미용실	(781)894-4343	Cho TKD Academy	(781)235-3037
카페 서울	(617)232-0133	인터내셔널 헤어디자인	(781)861-1277	Choe TKD Academy	(508)852-0009
카페 제이드	(617)254-4944	한국이발관	(617)278-0275	Choi TKD Academy	(413)736-1008
칼라분식	(617)787-5656	한인이발관	(617)783-3213	Jae Jo TKD	(508)820-1618
코리아나	(617)576-8661	헤어스튜디오	(617)354-9255	Jae Kim TKD	(617)266-5050
코리아 하우스	(617)338-8585	헤어포트미용실	(617)523-5353	Kwon TKD Academy	(978)858-3699
하나스시	(617)868-2121	Larson Design	(508)634-8954	Lee TKD College	(781)575-1777
한강 카페	(617)739-6221	인쇄소		Park's TKD Academy	(978)345-3007
한국의 집	(617)783-7030	에이스엑스프레스 인쇄소	(781)593-2355	World TKD Academy	(781)942-2299
형제식당	(603)622-9377	큰나무 인쇄소	(508)879-4285	택시	
식품점		자동차 매매		보스톤 콜택시	(617)783-1234
고향식품	(413)586-2682	대우 자동차	(508)653-9200	한국관광 콜택시	(508)475-4000
농장식품	(617)232-0800	서울 자동차	(617)661-1994	한복점	
뉴욕식품	(617)868-9850	Brighton Auto	(617)787-6229	은혜 한복 양품	(978)772-3799
NH 서울식품	(617)626-1334	Herb Connolly	(508)820-9313	장미 수예 한복	(718)359-0430
롯데식품	(617)661-1194	Mirak Hyundai	(617)641-0030	한의원	
미림식품	(617)783-2626	Tom Hyundai	(800)441-4150	광개토 한의원	(617)661-1961
번영식품	(978)537-8180	자동차 정비·바디		동양 한방원	(617)737-6100
서울동양식품	(603)626-1334	박석만 Auto Body	(978)686-9546	동일 한의원	(781)289-3694
신신식품	(978)686-0813	서울자동차 정비	(617)661-1994	일선당 한약방	(617)787-4503
쌍둥이네식품	(508)798-2547	태양자동차 정비	(617)628-1589	회원	
아시아나식품	(401)438-9992	Car World	(781)374-9593	모나미회원	(617)325-5802
오미식품	(413)736-7878	Complete Car Care	(508)858-0074	와일드플라워 꽃집	(508)668-6263
우리식품점	(978)772-1772	Foreign Motor West	(508)237-1212	회계사	
은혜식품	(603)893-8511	Sooner Lube	(508)858-0070	김양일	(617)491-4959
전동양마켓	(603)226-4546	전자제품		김창근	(781)935-4620
정인식품	(401)943-8904	Allston TV	(617)787-1667	이현주	(781)944-2442
제일식품	(413)592-5452	C.J. Page One	(617)427-3600	현인복	(617)254-1226
진미식품	(617)964-2668	Lee전자제품수리	(781)648-2430		
청계종합식품	(978)772-5213	TV, VCR 각종전자	(508)535-5874		

와싱턴 - 보스톤 투데이 Washington Today in Boston

뉴잉글랜드 교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신문

1990-1999

시민협회의 창립 9주년을 축하합니다.

Tel: (781) 599-2799 Fax: (781) 599-2872

24 Market Square, Lynn, MA 01905

보스톤 투데이 지사장 서효원

뉴잉글랜드 의사 협회

The New England Korean Medical Association

시민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임원 및 회원 일동

23 Solomon Pierce Rd., Lexington, MA 02420 (781)861-0437

시민협회의 창립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뉴잉글랜드 한인회

Korean Society of New England, Inc.

1613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TEL : (617)264-7326, FAX : 264-9632

한인회 임원 및 이사일동

www.KoreanSociety-NE.org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보스톤 지역 협의회

The Advisory Council on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Boston Area Council (9th Term)

4 Concetta Circle, Acton, MA 01720

Day: (617) 542-5511, 482-6237 Fax: (617) 542-0447

Night: (978) 897-4845

보스톤 지역 협의회 회장: 김 창 덕

위원: 김 섭, 권진태, 오상철, 최수길, 장승훈
안남열, 서 일, 최상화, 노명호, 윤광현
최한길, 김승규, 강경희, 이경해, 최동인
강한일, 오수택, 강경식, 김정완, 고일석
김양길, 조봉준, 이문봉, 신고희, 남궁연

보스톤 한미 노인회

Korean Elderly Association of Boston

43 Chilton St., Belmont, MA 02178

Tel: (617) 484-2831 Fax: (617) 484-2831

시민협회의 제9회 정기 총회와 회지 9호의
발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장 백 린
임원 및 회원 일동

보스톤 한미 노인대학

41 Laxfield Rd., Weston, MA 02493

Tel: (781) 899-5009 Fax: (781) 899-4675

시민협회의 제9회 정기 총회와 회지 9호의
발간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학장 박경민
부 학 장: 강길원 기획: 권이덕
섭외홍보: 김성인 출판: 이의인

뉴햄프셔 한인회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Hampshire

353 Maple St., Manchester, NH 03103

Tel: (603) 622-8883

시민협회의 제9회 정기 총회의 개최와
회지 9호의 발간을 축하합니다.

회장 한 윤 영
임원 및 회원 일동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The New England Chapter (KSEA-NE)

(28th Term: 7/1/1999 - 6/30/2000)
6 Winthrop Drive, Franklin, MA 02038
(508) 520-0696



<http://www.kseane.org>

Executive Officers

President
Soonsin Steven Oh, PhD
Vice President
Dong-Woo Kim, PhD
General Secretary
Dong Whoan Kim, PhD
Treasurer
Jaechul Shim, PhD
Public Affairs
Eun Jae Shim, PhD
Young Generation Affairs
Enid W. Choi
Industry Liaison
David Eonjip Choi
Graduate Student Affairs
Daekeun Kim

Undergraduate Student Affairs

Soo Yeon Kim

Professional Groups

Bioscience (NEBS)
Sang Seok Koh, PhD
Chemistry
Insung Choi
Civil
Dong Ho Choi, PhD
EE/CS
Sang Chul Shin, PhD
NE Venture Forum
David Eonjip Choi

Textile

Chung See Lee, PhD

Councilors

Choong See Lee, PhD
Jungsun Jason Kim, PhD
Jae Hong Eu, PhD
Eui In Lee, PhD
Hong Ki Paik, PhD
Kyungsik Kang, PhD
Sang Chul Shin, PhD

Auditors

Chang Yon Byon, PhD
Se-Kyong Oh, PhD

Join KSEA, New England Chapter
Visit www.kseane.org

뉴잉글랜드 경제인 협회

1842 Beacon St., Suite 201, Brookline, MA 02146
Tel: (617) 734-7988

회 장: 김병규 (781) 237-1068

부회장: 박수균

사무총장: 김선희

서 기: 이홍열

자료관리: 김대을

체 육: 서대선

재 무: 박인성

전산편찬: 허영준

보건복지: 전병렬

이 사 장: 서해수

부이사장: 김성군 (617) 482-1300

이사: 곽중원, 김봉군, 김영기, 김옥식

김유상, 김창현, 백윤기, 이경해

채원길, 한선우, 양철후, 김성환

신종철, 채영민

고 문: 인준식, 김 섭, 김수환, 오수택, 정수일, 한윤영, 안병학

시민협회의 창립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90 - 1999 창립 9주년

뉴잉글랜드 한인 세탁인 협회

New England Korean Dry Cleaners Association

733 Turnpike St., North Andover, MA 01845 Tel: (978) 373-4446

회 장: 윤익중 (978) 373-4446
 부 회 장: 이태경 (978) 562-5912
 이 사 장: 이문봉 (978) 263-0850
 사무총장: 최동인 (617) 944-7432
 총 무: 정명철 (978) 470-3138
 재 무: 손정봉
 서 기: 김동기 (603) 890-1039
 자문위원: 정수일, 김기석, 오태근
 조봉준, 노명호



시민협회의 제9호 회지 발간과
정기총회를 축하합니다.

임원 및 회원 일동



뉴잉글랜드 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New England

c/o Kyungsik Kang, 1 Memorial Rd., Providence, RI 02906

Tel: (Home) 401-274-2044 (Office) 401-863-1468

회장/이사장: 강경식
 명예 회장: 박경민

총무간사: 윤상래

재무간사: 이향숙
 홍보출판: 김철규

임원간사: 김경석
 체육간사: 온기철 윤선희

섭외간사: 도운희
 학생간사: 이기준

고문: 김영호 박병덕

감사: 김재호 김호영

이사: 강길원 김동희 김문소 김선혁 김은한 김정선
 김종성 김청하 박영철 박태영 성낙호 윤광현
 윤은상 이민용 이재신 이희규 장세중 정정욱
 최찬혁 최홍균 한서동 홍지복

시민협회의 제9회 정기 총회를 축하합니다.

보스톤 문수사

Mun Su Sa Buddhist Temple

231 Salem Street, Wakefield, MA 01880

Tel. (781) 224-0670, 224-2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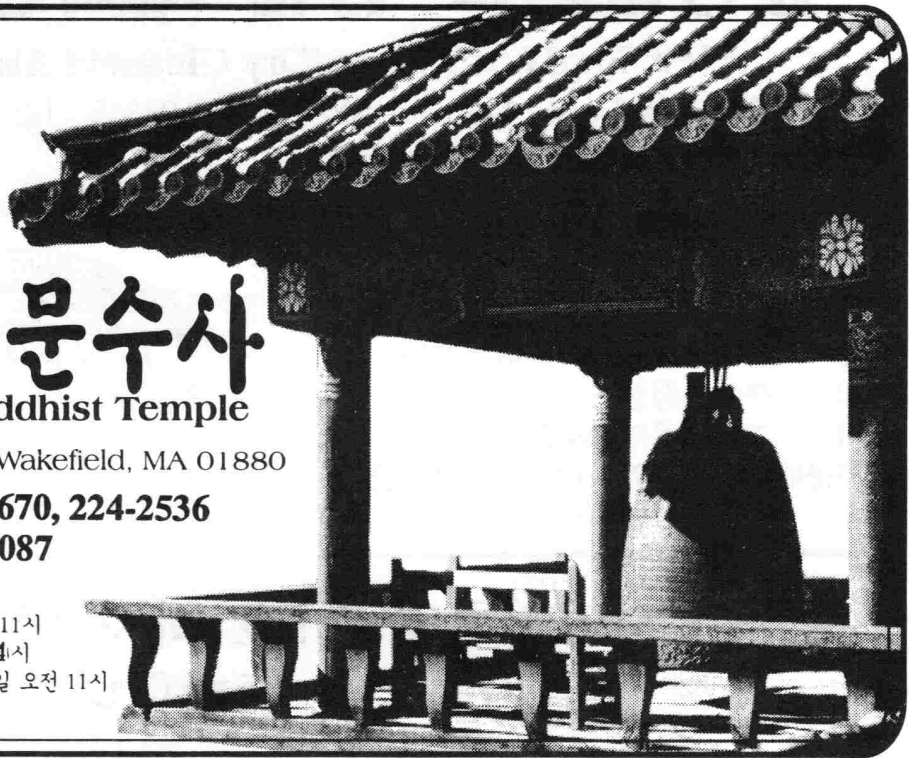
Fax. (781) 224-1087

법회안내

정기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참선법회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어린이 한글학교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서운사

정기법회: 매월 넷째주 일요일 11시
참선지도: 매주 일요일 11시

주지: 서광스님

Sounsa
10 North Main Street
Upton, MA 01568

전화: (508) 529-3224
팩스: (508) 529-4713

e-mail: sunim@worchester.net

Internet: <http://www.kersur.net/-sounsa>

로드 아일랜드 중앙 한인교회

Rhode Island Central Korean Church

111 Greenwich Ave., Warwick, RI 02886

교회: (401) 739-7168 팩스: (401) 738-4215 목사관: (401) 885-9418

담임목사: 서영주 (Rev. Brian Y. Seo, Pastor)

교육목사: 박정환 (Rev. Jason Park, Pastor)

교육전도사: 손헬렌 (Mrs. Hellen Son, Sunday School Minister)

중,고등부 전도사: Mr. Julius Kim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치며 2세 교육에 전념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되어 서로 섬기며 배가로 성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예배 및 성경 공부 안내

예배

주일대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 예배: 오후 12:30

중고등부 영어예배: 오후 12:30

청년회 예배: 오후 2:00

수요저녁 예배: 오후 7:30

구역예배: 매월 마지막주

성경 공부

주일 새가정반: 오전 11:00

화요일 성경반: 오전 11:00

목요일 교리반: 오후 7:00

금요일 Youth: 오후 6:00

토요일 청년반: 오후 7:00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6:00



주일마다 교회 버스가
운행합니다. (차가 없으신
분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스톤 장로교회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Greater Boston

보스톤 장로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지 24년째,

역사깊은 보스톤 세계 마라톤의 출발 지점인 합킨톤 센터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현금으로 구입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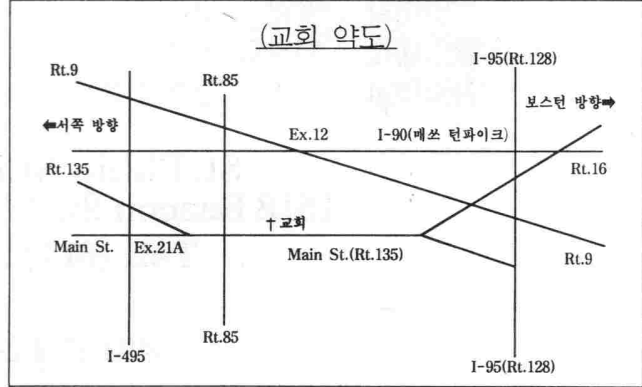
97년 9월 5일 하나님께 예배당을 봉헌하고 보스톤과 뉴잉글랜드를 향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20개 이상의 교실과 체육관을 가지고 있으며, 2세대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하며 특히 영생의 문제로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본 교회 집회 안내

- ◆ 매일 새벽 기도회 (오전 5시부터 자유로)
- ◆ 주일 낮 예배 (주일 오전 11시)
- ◆ 주일 새벽 기도회 (주일 오전 6시)
- ◆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8시)
- ◆ 유년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시)
- ◆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토요일 오후 6시)
- ◆ 대학,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금요일 오후 7시)
- ◆ 청장년부 (금요일 오후 7시)
- ◆ 구역 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 구역 연합 예배 (매 5번째 금요일 오후 8시)
- ◆ 리더 훈련 (토요일 오전 6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보스톤 장로 교회

2 Main Street, Hopkinton, MA 01748

교회 (508)435-4579, 팩스 (508)435-5467, 목사관 (508)478-9705

담임목사: 전덕영 전도사: 김성혜(Grace Kim, 유년부) 박일영(중고등부)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Greenland United Methodist Church

87 Great Bay Road, Greenland, NH 03840

(603) 430-2929(교회) 430-0040(Fax) 433-7475(목사관)



주일 대예배 10:30 AM 주일 학교 10:30 AM

수요 기도회 7:00 PM 새벽기도회 6:00 AM

교역자들: 한상신 김유니스 조상열 임미순 조형래

* 495 North나 95 North로 올라 오셔서 95 North의 Toll Gate를 지나 (약 6마일쯤) Exit 3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면 신호등을 만납니다. 신호등에서 왼쪽으로 Turn하셔서 Rte. 33 West로 약 4.5마일 가시면 오른쪽에 Great Bay Road를 만나십니다. Great Bay Road에서 오른쪽으로 Turn하여 들어오시면 왼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보스톤 한인 천주 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Boston

주임신부 : 박영일(바오로)

주일미사: 주일 오후 4:00
 유아세례: 첫주일 미사후
 한글학교: 주일 오후 1:30

목요 미사: 목요일 오후 7:30
 예비자교리: 주일 오후 2:30
 주일 학교: 주일 오후 2:30

St. Philip NERI Church
 1518 Beacon St., Waban, MA 02168
 Tel.: (617) 244-9685

〈성당 찾아오시는 방법〉

Mass Pike (West) 에서 Exit 16 (West Newton) 으로 나와 Toll Gate 를 지나 신호등에서 우회전.
 10분 정도 계속 직진하다가 Beacon St. 에서 좌회전 한 후,
 5분 정도 더 가면 왼쪽으로 성당이 보임 (Church St. 바로 전)
 전철 이용시 녹색 D 라인을 타고 Waban에서 내려 큰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다보면 왼쪽으로 보임.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보스톤산성(山城)장로교회

Greater Boston Fortress Korean Presbyterian Church
 111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617) 926-2195 (교회, Fax) (617) 325-8703 (사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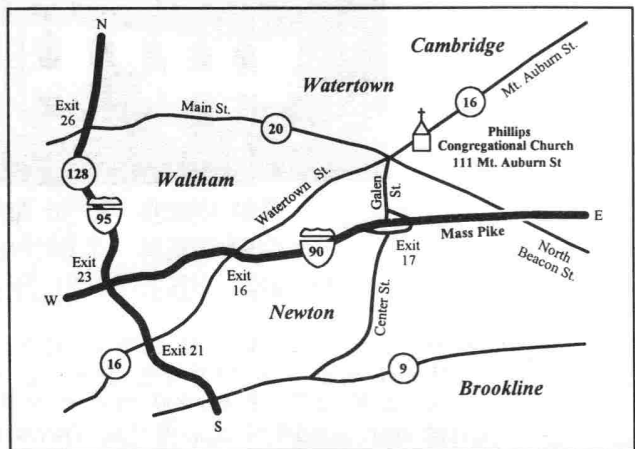
담임목사: 주 원 열

협동목사: 방유창 (유년부) 정준영 (중고등부)
 교육전도사: 손철우 (유학생부) Polly Crispell (초등부)

집회안내

주일대예배: 주일 오후 2시
 영어예배: 주일 오후 2시
 주일학교: 주일 오후 1시 30분
 주일새벽기도회: 주일 새벽 6시
 주일예배전찬양: 주일 오후 1시 30분
 구역별성경공부: 격주금요일 각구역별
 찬양집회: 격주금요일 저녁 7시30분
 한글학교: 주일 오후 3시 30분
 새가족반: 주일 오후 3시 30분
 중고등부: 격주금요일 저녁 7시30분
 유학생부: 금요일 저녁 8시

교회약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 천년을 소망의 주님과 함께 출발하시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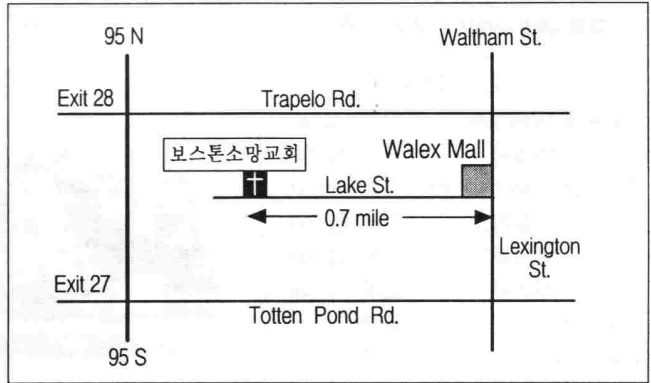
보스톤 소망교회

THE KOREAN HOPE CHURCH OF BOSTON
267 Lake St., Waltham, MA 02454 (교회 ☎781-647-0190)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하신 주님의 소망이 크고 놀랍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 주일 예배 오전 11시30분 (주일)
- ◆ 주일학교 오전 11시30분 (주일)
- ◆ 중, 고등부 오전 11시30분 (주일, 영어예배)
- ◆ 구역리더 성경공부 오후 1시30분 (주일)
- ◆ 장년 성경공부 주중 구역별
- ◆ 청년부 성경공부 오후 1시30분 (주일)
- ◆ 여성 JOY BIBLE 오전 10시30분 (수요일)
- ◆ 찬양과 기도의 밤 오후 8시 (금요일)
- ◆ 새벽 기도회 오전 6시 (월-토)



담임목사 박 찬 수 목사 (617-484-4069)



성요한 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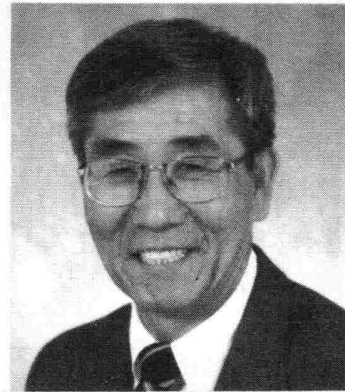
담임목사: 권 진 태 (781)275-7880
영어예배: Dr. Duane Garrett (781)862-9492

교회 모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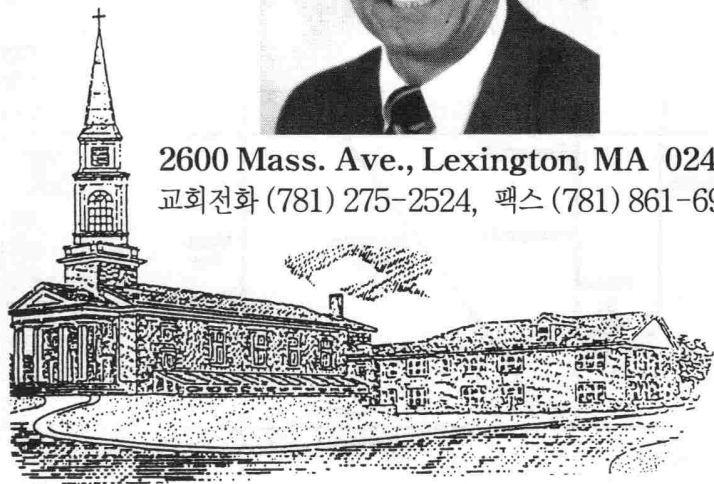
- 주일 1부 예배 (한국어) 일요일 오전 11:30
- 주일 2부 예배 (영 어) 일요일 오후 1:45 (Lexington)
- Harvard Square- 일요일 오전 9:30 (Grapevine)
-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8:00
- 금요 철야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 새벽 기도회 일요일 새벽 6:00

- 주일 학교 일요일 오전 11:30

- 성경공부장년부 (한국어) 일요일 오전 10:00
- 금요일 한국어 성경공부 금요일 오후 7:30
- 대학생부 (영어) 금요일 오후 7:30
- 청년부 (영어) 금요일 오후 7:30
- 중고등부 (영어) 토요일 오후 7:00
- 일요일 오전 9:00



2600 Mass. Ave., Lexington, MA 02421
교회전화 (781) 275-2524, 팩스 (781) 861-6931



북부 보스톤 교회

North Bost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1. 새 담임목사: 보스톤대학 사회윤리 철학박사, 한인교회와 미국인교회의 경험을 가지시고 1996년 7월 부임.
2.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바로 찾고, 삶의 변화를 가져와 가정, 교포, 이웃이 달라지는 선구적 역할.
3. 인간의 존엄성 회복: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드높혀지는 보람된 삶을 추구.
4. 다양 속의 창조성: 각기 다른 사회 경험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가진 교회로서, 다양한 사회 전기(Sociobiography)안에서의 창조성 표출.
5. 이민 사회의 보람과 성취: 이제는 한국인의 우수성을 표하는 건설적인 태도와 실생활 속에서의 구현.
6. 이세 교육에 초점: 장래의 소망인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대학부의 미래를 향한 신앙교육의 중대성 강조.
7. 한국학교의 한국 문화와 컴퓨터 교육: 투철한 이념과 소명감으로 공헌하시는 김종례 박사가 이끄는 알찬 교육.
8. 자체 교회: 아름다운 예배실을 비롯, 12개의 교실, 운동장, 주차장 등 공간적 여유 구비.
9. 교통 편리: 93번 도로에서 1/2마일, 495번 도로에서 2마일, 128번 도로에서 10분 거리로, 보스톤을 비롯, 각 지역에서 쉽게 오실 수 있음.

모임 안내

주일예배 영어예배	오전 9:30
대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공부성인성경반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00
주일새벽 기도회	오전 6: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제자훈련	오후 8:00
속회모임	오후 7:30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00



담임목사: 전 중 현 (Rev. Walter C. Chun, Ph.D.)

교회사무실: (978) 470-0621, (978) 470-1998 (Fax) 목사관:(978) 689-3990

보스톤한인교회

(미국장로교)

The Korean Church of Boston

The Presbyterian Church(U.S.A.)

Founded in 1953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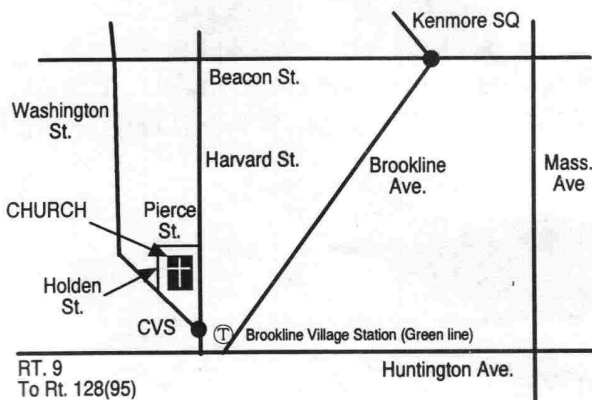
Tel: (617)739-2663 Fax: (617)739-1366

Internet: <http://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 영 길
(Pastor: Rev. Young Ghil Lee)

목사관: (617) 469-4289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예배 (1부)	오전 9:00-10:00
(2부)	오후 12:00-1:00
유년부 예배	오후 12:00-1: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12:00-1:00
영어 예배	오후 2:00-3:00

교회학교 성경 공부

새신자반 (초급반)	오전 10:30 (주일)
제자훈련반 (중급반)	오전 10:20 (주일)
주일 성경 공부	오전 10:30 (주일)
수요 여성 성경 공부	오전 10:30 (수요일)
영어 예배부	오후 7:30 (금요일)
청년부	오후 7:30 (금요일)
대학부	오후 7:30 (금요일)
보스톤 한국학교	오전 9:30-오후12:30 (토) 문의전화: (781) 769-6697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의 평화를 회복하는 곳
보스톤 성결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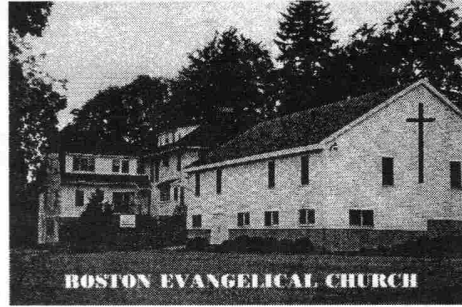
BOSTON EVANGELICAL CHURCH

변화된 삶을 찾는 곳
 잃어버린 용기를 얻는 곳
 주님을 만나 곳

민심을 보여주는 무리들
 명바람처럼 감싸주는 순한 무리들
 복음을 전하는데 아낌이 없는 무리들

보스톤 교회는 이러한 목적 지향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실 하려고 합니다.

담임목사 김세진



집 회	시 간
주일 대 예배	주일 오전 11 시
주일찬양예배	주일 오후 2 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6 시
수요 예배	수요 저녁 8 시
교회 학교	주일 오전 11 시
한국어 학교	주일 오후 2 시
새가족반	주일 오전 10 시

교회로 오시는 길

I-95 & 128 을 이용하여 오시면 Exit 32A에서 Rt. 3 North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2마일 오시면 Exit 26 번에서 Rt. 62 를 만나게 되는데 신호를 받으신 후 Rt. 62 West, Bedford 방향으로 좌회전 하셔서 0.8마일을 오시면 Stop Sign 이 앞에 보이는 삼거리가 나옵니다. 우회전하시면 Old Billerica Rd.이며 0.8마일 오시면 왼편에 교회가 있습니다.

(I-495에서 Rt. 3 South 방향으로 오시는 분은 Exit 26 에서 나오셔서 우회전하시면 Rt. 62W이며 위와 같이 오시면 됩니다.)

276 Old Billerica Rd., Bedford, MA 01730
 교회 (781)275-8233, 8533(Fax) www.bostonchurch.com



퀸지영생장로교회

Quincy Youngsang Presbyterian Church (PCUSA)

270 Franklin Street, Quincy, MA 02169 • (617) 770-2755

담임: 강준모 목사 (617)471-0233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엡2:22)

Direction: Take I-93S from Boston or I-93N from South to Rt. 3S to Cape Cod. Take Exit 18 on Rt. 3 to Washington St (this exit is immediately after splitting from I-93). Take left at Washington St. After crossing the overpass, take right to 1 o'clock direction at the traffic light (there is no sign, but this is the Washington St.) Come to the end of this street. Take a right turn, and the church is on your left.

예배시간

주일예배: 주 일 1:30 pm
 주일학교(영어): 주 일 1:30 pm
 이침 기도회: 월-토 6:00 am

교회학교

수요예배: 수 8:00 pm
 목요성경공부: 목 8:00 pm
 청년선교회: 금 7:00 pm
 영어회화반: 수 7:00 pm

퀸지한국학교

토요일 9:00 am
 주 일 12:30 pm

내슈아 한마음 장로교회

Nashua HanMaUm Korea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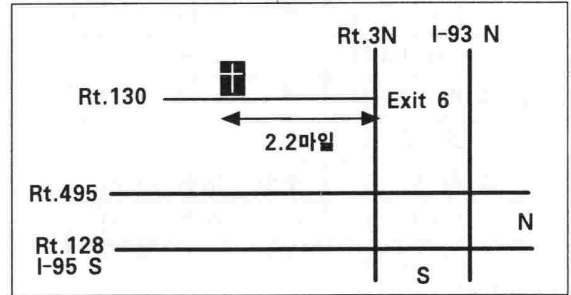
목 표(행2:42) 1. 말씀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2.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3. 기도예 힘쓰는 교회

본교회 집회 안내

주일 대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금요 성경공부, 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8시
한마음 한글 학교	주일 오후 12시 30분
유년/중,고등부	주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교회 성구

“마음을 같이 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향하여 한마음을 품어 (빌2:2)”



▶ Rt.3 North로 나오시다가 Exit 6로 나오신 후, Rt.130 West로 약 2.2마일 오시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담임목사: 박 계철 (Rev. Gye Chil Park, Pastor)

교회주소: 555 Broad St., Nashua, NH 03063 (603)889-4020

목사관: 44 Cadogan Way, Nashua, NH 03063 (603)888-8040

영광 순복음교회

Full Gospel Glory Church

◆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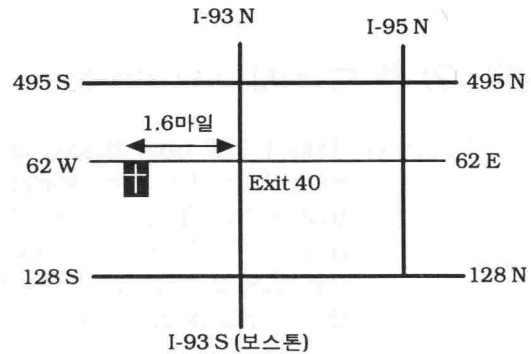
담임목사: 김정대
Rev. Jeongdae Kim, Pastor

교육전도사: 김죽경
시무장로: 김 섭
성가대지휘: 양태갑
성가대반주: 김현정

◆ 교회집회안내 ◆

주일대예배	오후 1:30	주일
유년주일학교	오후 1:30	주일
장년성경공부	오후 12:45	주일
한글학교	오후 12:45	주일
새벽기도	새벽 6:00	매일
구역예배	오후 7:00	수
성령대망회	오후 7:45	금
성가대연습	오후 7:00	금
영적대각성일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8:00	

◆ 교회주소 ◆



남쪽(보스톤방향)에서는 I-93 North로, 북쪽(뉴햄프셔방향)에서는 I-93 South로 오셔서 Exit 40에서 나오신 후 Rt. 62 West로 들어오시면 정확히 1.6마일 지점 왼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173 Church Street, Wilmington, MA 01887
(978) 681-8436 (목사관,팩스) (978) 658-0150(교회)

보스톤한인감리교회

THE KOREAN METHODIST CHURCH
OF BOSTON

21 MARATHON ST., ARLINGTON, MA 02474

담임목사: 박병윤 (Byung Yoon Park)
목사관 (781) 938-5172

집회 안내

주 일 대예배: 주일 오후 1:30	아동주일학교: 주일 오후 1:30
중 고 등 부: 주일 오후 1:30	새벽성찬기도: 월 - 금 새벽 6:00
성 가 대: 주일 오전 12:30	장년성서공부: 매주일 오전 12:30
속 회: 매주중 회원가정	온 교우 성찬: 매월 첫째 주일
통일전도기도: 매일 정오 10분	철 야 기도회: 금요일 오후 11:30

보스톤감리교회 한국학교

주일 낮 12:30부터 토요일 특강 및 특별 활동
교장: 박에스더 H (617) 928-1023 B (617) 267-3633



2 Lamprey Lane
Lee, NH 03824-6552 U.S.A.

무역 서비스

무역 전시회 및 세미나 참가, 세일즈 대행, 안내 및 통역
각종 수출 및 수입 대행
무역 관련 각종 정보 리서치

디렉 메일 광고 서비스

뉴잉글랜드 전역 3,000여 한인 가정 주소록 보유
플라이어, 쿠폰 등 광고 디자인 및 우편 발송
저렴한 가격, 확실한 광고 효과

선불 전화카드

한국 통화에 가장 저렴한 가격, 광성유의 깨끗한 음질
팬아시아카드 및 UNI 플래티넘 카드
뉴잉글랜드 전역 지정 딜러
소매 판매 문의 환영
교회 및 각종 단체의 기금 조성에 최적, 문의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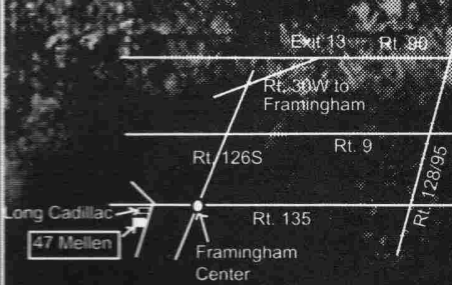
Tel (603) 659-4845, 6129
PCS Phone (603) 682-1021
Fax (603) 659-5488

BIGWOOD PRESS

(큰나무 인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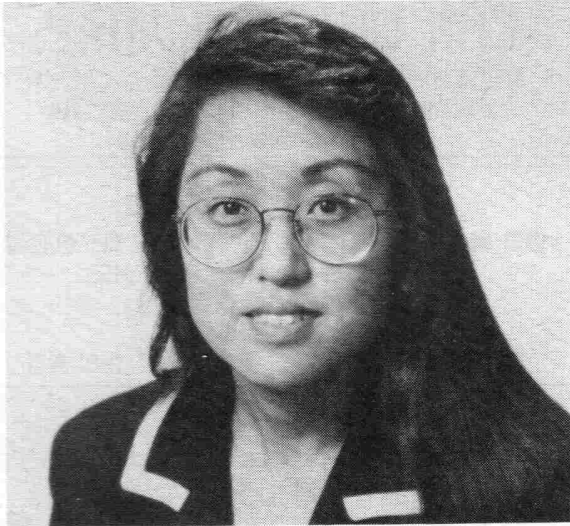
We have moved to a new home:

47 Mellen Street
Framingham, MA 01702
Tel: 508-879-4285
Fax: 508-879-4303



이현주 공인회계사

C. P. A.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사업체, 법인설립과 해체
회계 처리 및 감사
경영진단 및 절세상담
각종 License 신청업무

용자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523 Main St. 14 Monument Square
Reading, MA 01867 Leominster, MA 01453
Tel.: (781) 944-2442 Tel.: (978) 534-8801
Fax: (781) 944-2772 Fax: (978) 840-3651



ASIAN AMERICAN
BANK & TRUST
COMPANY

The Bank That Serves All Nations

저희 은행에서는 꿈에 그리던 당신의
집을 장만하도록 도와드립니다.



Robert Gau

(617) 338-0283

미주은행에서는 ...

- 이자율이 낮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48시간 이내
에 융자신청을 허락합니다.
- 소득 조치가 필요없는 대출과
비관행 대출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대출중 택일하실
수 있습니다.
- 경험있는 대출직원이 친절하
게 도와드립니다.
- 수표를 쓰거나 체벌금을 물지
않도록 자동지출 option도 있
습니다.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로버트 가우에게 해 주십시오.

68 Harrison Ave., Boston, MA 02111 • Tel. (617) 695-2800

www.asianamericanbank.com

MEMBER
FDIC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하면 번역에 도움을 드립니다.



Convenience. Value. Choice.

Three good reasons to bank
with BankBoston.

For more information on our Products
and Services please contact Mary Troung
at 617-434-3442 or call 1-800-2-BOSTON.

bankboston.com

Member FDIC

 **BankBoston**
First Community Bank

**Quality. Trust.
Integrity.
Professionalism.**

These principles distinguish us as a
leading financial services firm.

They are the hallmarks of
Salomon Smith Barney.

방 선 욱

Gregory S. Pang

Second Vice President - Investments

Stocks, Bonds, Mutual Funds, IRAs, Retirement Plans,
Tax-Favored Investments, Education Funding and
Financial Planning Services.

111 Torrey Street
Brockton, MA 02301
(800) 372-5632

SALOMONSMITHBARNEY

A Member of **citigroup**

Salomon Smith Barney is a service mark of Salomon Smith Barney Inc.

© 1999 Salomon Smith Barney Inc., Member SIPC

Met Life Finance

김세경 보험

- ☉ 개인 생명, 상해보험
- ☉ 주택, 자동차 보험
- ☉ 종업원 상해보험
- ☉ 직장의료보험
- ☉ 사업체 보험

- ☉ 뮤추얼 펀드, Annuities
- ☉ 재정계획
- ☉ Pension, 401K
- ☉ 기업체 서비스
- ☉ 퇴직계획
(IRA, Roth IRA, Keogh)



무료전화

1-800-808-3012

Tel:508-995-2600, Fax:508-995-2695
370 Faunce Corner Rd., North Dartmouth, MA

메트 라이프 파이낸셜 서비스

조종운 종합보험

(781)255-1134 (Office) / (781)255-7324 (Home)
(617) 901-8822 (Cell)

상법 · 사업체매매 · 이혼 · 개인상해

다니엘 브라이언스키 법률사무소

DANIEL BRIANSKY

ATTORNEY AT LAW

TEL (617)357-9172 79 MILK ST., SUITE 600
RES 444-8380 BOSTON, MA 02109

드림하우스 플로어 DREAMHOUSE FLOOR

바닥전문

최고의 기술

저렴한 가격

- Lenolium, Vinyl
가정용 상업용 리놀륨
- Wood floor, Laminated floor
나무 마루바닥 (Pergo)
- Carpet
카펫
- Marble, Tile, Stone
마블, 타일, 돌
- VCT Tile
아스 타일
- Kitchen Couter top
주방 카운터

License #981829

FULLY INSURED

Tel: (401) 435-5546, (401) 952-7142 E-mail: DREAMHOUSE@MSN.COM

550 TAUNTON AVE., #31B, EAST PROVIDENCE, RI 02914

한은애 교정치과

Dr. Unae K. Han (Orthodontist)
하바드 치과대학 D.M.D.
하바드 보건대학 M.P.H.
미시간 치과대학 M.S. 교정전문의

Orthodontics for Adults and Children

성인과 어린이
교정치료 전문



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

Orthodontist Dr. Unae K. Han

789 Mass Ave., Lexington, MA 02420

Tel.: (781) 862-0930

안태준, D.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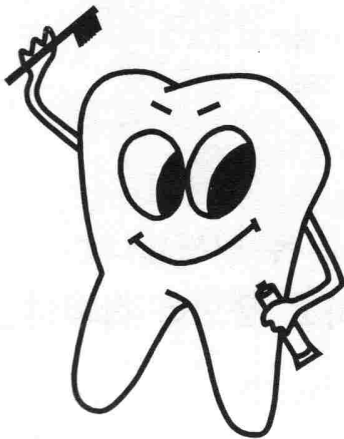
Tufts 치과대학
Clinical Instructor

문유경, D.M.D.

Harvard 치과대학
Clinical Instructor

최응재, D.M.D.

Tufts 치과대학
Clinical Instructor



- Preventive: X-rays, 치석제거, 치료상담, 충치예방, Fluoride Treatment(불소)
- Cosmetic: 미용 치과, Bleaching, Bonding, Veneers
- Pedodontic: 소아치과, 어린이 충치예방(Sealants)
- Orthodontic: 교정치과
- Restorative: 아말감, 보철(Crowns & Bridges), 틀니, 부분틀니, 치아이식(Implants)
- Periodontic: 치주질환치료
- Endodontic: 신경치료
- Oral Surgery: 구강외과, 발치, 사랑니제거
- Oral Pathology: 병리치과, 구강암진단

안 치 과

Cronin's Dental

225 Moody Street, Waltham, MA 02453

(781) 647-8000

임나경 상담소

Nakyung Im

LICSW, ACSW, BCD
Licensed Psychotheapist

308A Harvard St.
Brookline, MA 02146
Phone: (617)738-9622
Fax: (617)739-9035

110W. Squanturn St., Sta 20
N. Quincy, MA 02171
Phone: (617)472-5428
Fax: (617)847-4450



TEWKSBURY ANIMAL HOSPITAL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978) 851-3626
FAX (978) 851-6408

김문소

HOURS: MON. TUES. THURS.
9-12 NOON 4-7 P.M.
FRI. 9-12 NOON 4-6 P.M.
WED. & SAT. 9-12 NOON ONLY

DR. MOON S. KIM
DR. ELIZABETH A. NOWAK

WE ♥ REFERRALS

이운로 산부인과

Uhun R. Lee, M.D.

Practice in Obstetrics & Gynecology

Telephone
(617)580-0044

45 Pearl Street
Brockton, MA 0240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신영목 치과



FRANK Y. SHIN, D.M.D.

1428 Dorchester Avenue
Boston, Massachusetts 02122

Telephone: (617) 265-5606

MON AMI GARDENS

모나미 화원

111 Woodcliff Rd., Brookline, MA 02467

주야주문: (617)325-5802

생화, 동양난, 서양난, 관엽식물, 선물용전문

근조 - 근조, 부의, 추모, 추도, 영안실 제단, 영정,
관 꽃장식

축하 - 승진, 취임, 영전, 생신, 전시, 연주, 입학, 졸업,
출생, 이전, 결혼, 회갑, 개업, 준공, 각종행사,
약혼, 기념, 뉘, 백일, 세례, 이사

예식 - 결혼예식장, 연회장 꽃, 식물장식

기타 - 병문안, 화해, 감사

스타일: 꽃바구니, 꽃다발, 꽃상자, 출생용품 어린이용
수반(인형포함) 화병, 주인공꽃다발(신부부케이),
콜사지(남여 예식용, 일반용)

“보내는 정성, 받는 기쁨은 모나미에서
함께 전해드립니다.”

보스톤대한체육회 THE BOSTON KOREAN-AMERICAN AMATEUR SPORTS ASSOCIATION

LEE HYUNG-JAE
PRESIDENT

건강할 때 더욱 행복합니다.
날마다 운동하고 웃으며 삽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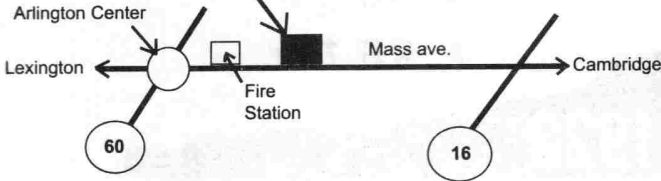
33 RIVERSIDE AVENUE
MEDFORD, MA 02155

TEL: (781) 395-3524
FAX: (781) 646-4692
BEP: (781) 705-2186

광개토 한의원

그간 애용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MYUNG KIM'S ACUPUNCTURE AND HERB CLINIC
 347 Mass. Ave., Arlington, MA 02474
 Tel: 781-643-3679 Fax: 781-643-3681



Bus Line: #77 Harvard Stn. - Arlington Height
 #79 Alewife Stn. - Arlington Height
 #67, #80, #87 and #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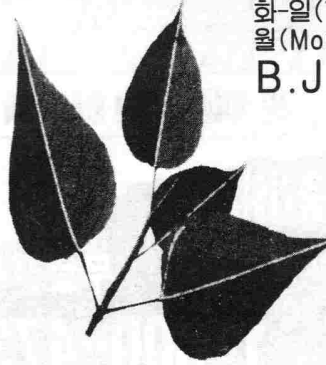
한방은 한의사에게

一善堂 漢藥房 일선당 한약방

E. SHAN TANG

OPEN HOURS
 화-일(Tue-Sun): 10:00am-5:30pm
 월(Mon): 휴무(Closed)

B. J. WANG



157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el:(617)787-4503 Fax:(617)787-4519

동일 한의원 DONG IL 한의원

뉴잉글랜드 유일의 여자 한의사 이금재

CA · MA · NCCA 자격증 보유

간병 전문

- 한방부인과 · 지매예방약
- 부작용없는 확실한 다이어트
- 중국비방의 아이들 보약 및 어른보약
- 공부잘하고 체력증진 강화 및 기억력증강

사전 예약 바람

침, 부황 치료합니다

148 Quincyshore Dr. #42
 N.Quincy, MA 02171
 Tel:(781) 289-3694 or (617) 770-1256

한국빵과 케익의 명문

서울제과

영업시간 (7 Days Open)
 월-일 오전 7:30-오후 10:30

Tel.: (617)787-6500
 56-8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BOSTON'S

미림

뉴잉글랜드 지방 가장 역사깊은 한국식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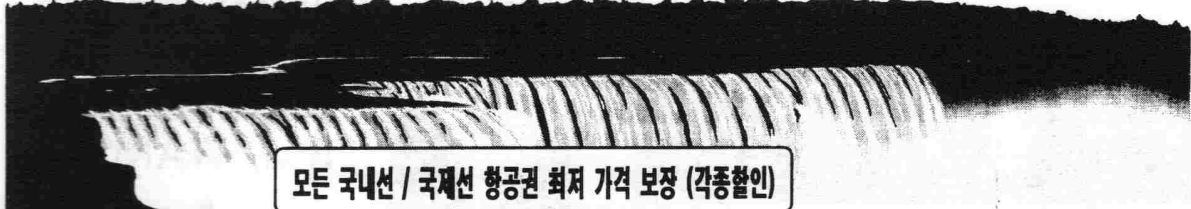
MIRIM TRADING CO., INC.
 152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EL : 617-783-2626 • FAX : 617-783-4748



보스톤 코리아 여행사

Korean Travel & Tours in Boston

보스톤 교통의 중심지 Kenmore Sq. (B.U Book Store 옆)에 위치하여 최고의 서비스/최저가격으로 항상 봉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내선 / 국제선 항공권 최저 가격 보장 (각종할인)

보스톤 유일의 관광가이드

- 일일관광- 시내 & 프리머스
- 뉴잉글랜드, 캐나다지역
- VISA, 통역/번역 기타

무료전화

1-800-473-1922

- ▶ 시민권 · 운전면허증 취득 안내
- ▶ 통역 · 번역
- ▶ 각종 Tour

Tel.: (617)267-7777(Esther Chung, Paul Chung, Ameuda Kim) Fax: (617)267-5009
 650 Beacon St. Suite #205, Boston, MA 02215



범양해운 (주)

PUM YANG EXPRESS U.S.A., INC.
 159 High Plain Rd., Andover, MA 01810



귀국 이삿짐 탁송 안내
 상담 전화 (24시간)
 1-800-939-4989

이제부터 귀국 이삿짐은 믿을 수 있는 회사, 범양해운에 맡기십시오

귀국 쇼핑 특별요금 안내

보스톤 지역: 이진원 Tel: (978)470-8272 Fax: (508)470-8809

뉴욕 사무소

425 Victoria Terrace
 Ridgefield, NJ 07657
 Tel: 1-800-PUMYANG
 Fax: (201)840-1569

서울 본사

대표전화 (02)774-6161
 Fax: (02)774-9145

부산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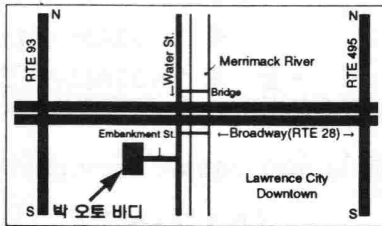
대표전화 (051)469-4191
 Fax: (051)464-2944

박 자동차 바디

Park Auto Body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되었습니까?
오토바디 예술사 - 박 오토바디를 찾아 주십시오.

자동차 보험 청구를 위한 견적서 작성



Park Auto Body

11 Embankment St.
Lawrence, MA 01842

Tel.: (978)686-9546

Fax: (978)687-6255

유니버스 여행사

Universe Travel Services

모국방문 특별할인

국제선, 국내선 항공권 판매

관광 상품 판매

(888) 666-1708

171 Amory St., Brookline, MA 02446

Web page: www.utsboston.com

동사 • 태양자동차 • 태양자동차 • 태양자동차 • 태양자동차

태양자동차공업사

한인 최대의 자동차 정비 수리 및 바디 전문 업소

총면적 8천 스퀘어피트에, 보스턴에서는 최초로 한인 자동차 바디샵까지 갖춘 태양자동차 공업사는 더욱 전문화된 기술과 경험, 철저한 서비스로 성실히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태양 엔진 전문 수리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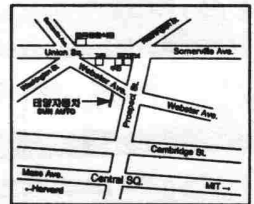
최신형 컴퓨터로 진단, 점검 Owner가 직접 정비합니다.

태양 자동차 바디샵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자동차 바디 페인트 배합 시설완비
원색과 같은 페인트를 재생시킬수 있는 전문화된 기술진
크게 파손된 자동차 바디를 새것처럼 바꾸는 기술
사고난 자동차에 대한 보험회사 견적서 작성

서비스 분야

엔진 수리	트랜스미션
브레이크	컴퓨터 테스트
머플러	자동차 전기
에어콘	튜닝
오일 교환	자동차 바디
자동차 페인트	프레임 조정
타이어	토잉 서비스



영업시간

월~금 : 7:30 am - 6:00 pm

토요일 : 7:30 am - 1:00 pm

47 Webster Ave., Somerville, MA 02143

정비부: (617) 628-1589 바디부: (617) 628-4646

팩스: (617) 628-6337

New JangSoo Korean B.B.Q. Restaurant

뉴장수갈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갈비 경력 18년의 주인이 직접 요리합니다.
음식은 정성입니다. 정성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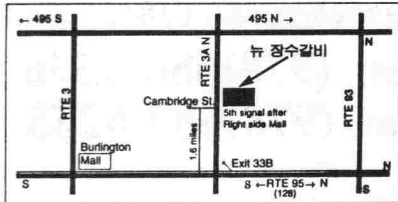
즉석 왕갈비 • 냉면 전문

260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 272-3787

대형 무료 주차 시설

OPEN HOURS

화-금: 11am-10pm
토-일: 12pm-10pm
월: 휴무



새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중화요리/한국요리

북경반점

- 메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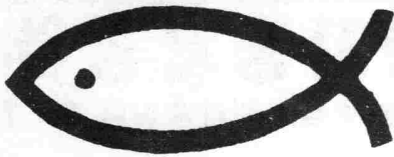
중화요리/한국요리 일절 완비
짜장면 짬뽕 간짜장
탕수육 양장피 팔보채

영업시간: 7 Days Open

- 일 - 목 11:30AM - 11:00 PM
- 금 - 토 11:30AM - 1:00 AM

9A Union Square, Somerville, MA 02143

(617)623-7220



싱싱한 생선

Captain Boston Fish



싱싱함 그 자체의 신선한 생선과
빛감은 언제든지 쿨링(생선전용보관)차로
원하시는 그 때에 바로 도착합니다.

식당전용배달

영업시간: 월-토 8am-7:30pm

Tel. (781) 395-8138
Fax (781) 391-5782

375 Main St., Medford, MA 02155



93번 북쪽에서 오실 때: Exit 31번, Rt. 38 도로 패스, 직진, 두번째 신호등 코너
93번 남쪽에서 오실 때: Exit 29번, Rt. 38 North, 왼쪽 Harvard St., 두번째 신호등 코너

Little Pusan Restaurant

작은 부산집



단체 주문 환영함
한식, 일식, 중식 일체
이적이고 조용한 분위기

즉석 돌판구이 - 모든 육류
각종 생선 요리
돌솥 비빔밥

83 Main St., Maynard, MA 01754
Tel. (978) 897-5107

아시아나 그릴

ASIANA GRILLE

한식일절

바베큐 그릴

스시바

중화요리(짜장, 짬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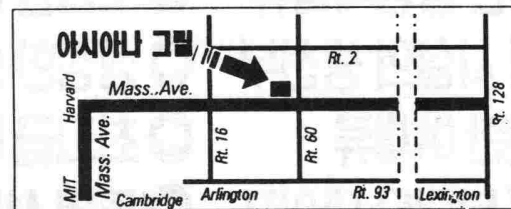
정통 일식(스시, 사시미)

타이음식

FREE PARKING

Open Hour : 7 days open

Mon-Thur : 11:30am~10:00pm / Fri-Sat : 11:30am~11:00pm / Sunday : 2:30pm~10:00pm



Tel. (781) 646-2766 / 56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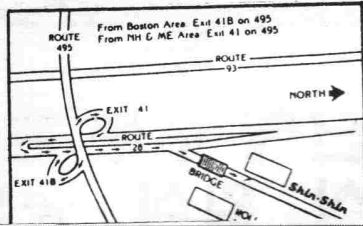
Arlington, MA 02174 (아시아나 그릴은 일왕본 센터에 있습니다)

신신 식품점

SHIN SHIN ORIENTAL MARKET
저렴한 가격/다양한 품목을 자랑합니다.

978-686-0813

615 South Union St., Lawrence, MA 01843



◀영업시간▶
화-목: 오전10시-오후7시
금-토: 오전10시-오후8시
일요일: 오전10시-오후6시
월요일: 휴무함

「玉 황 토 찜질팩」

효능효과

팔, 다리, 허리, 등 쭈시고 결릴 때
관절통, 신경통, 근육통, 타박상
배가 냉할 때, 생리통
디스크환자 물리치료
미용 마사지 산후조리
소화가 잘 안될 때

각종 동양식품 일체
(친절, 봉사, 특별서비스)

농장식품

(617) 232-0800

1617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6

떡 전문점

형제떡집

뉴잉글랜드의 유일한 떡집

백일, 돛 잔치 주문 환영 각종 떡 종류 일체

687 Lowell St., #3-B(Armory Sq.), Mathuen, MA 01844

(978) 975-3303

27 Shandel Drive, Tewksbury, MA 01976

(978) 851-4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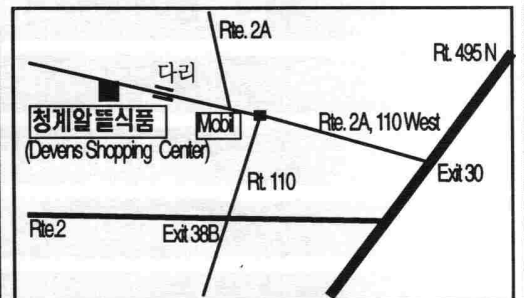
뉴잉글랜드 최고의 동양식품점
청계알뜰식품

Chung Ge Market, 210-D West Main St.
Ayer, MA 01432 (Devens Shopping Center 내)

연중무휴, 주7일 영업 - 10시부터 9시 !!

☎(978)772-5213

- ☞ 다양한 동양식품류
- ☞ 최신 시설의 생선부
- ☞ 신선한 야채류
- ☞ 한국 비디오 테이프
- ☞ 아모레 화장품 취급
- ☞ 조리된 밑반찬류
- ☞ 싱싱한 생선회 전문
- ☞ 최고급 비육류
- ☞ 특별 선물용품 코너
- ☞ 넓은 주차장 완비



Rt. 495의 Exit 30에서 Ayer 다운타운으로 들어와 Rt.2A가 갈라지는 Mobil 주유소까지는 총 5.5마일, 거기서 청계식품까지는 0.9마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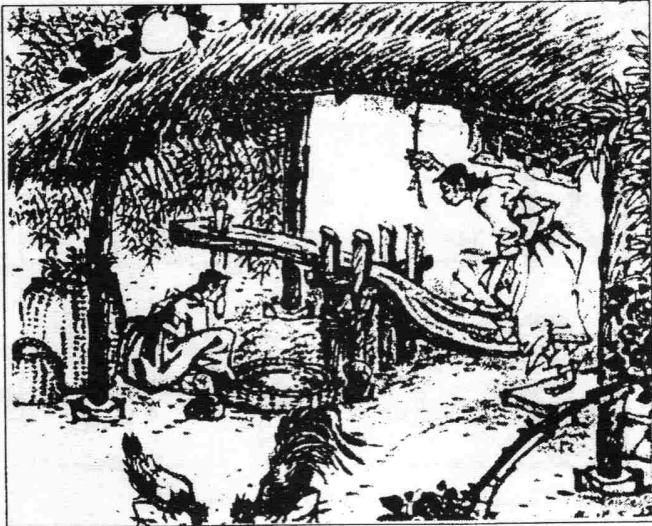
Korean & Japanese Restaurant



우촌집

Wuchon House

“오늘 우촌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일품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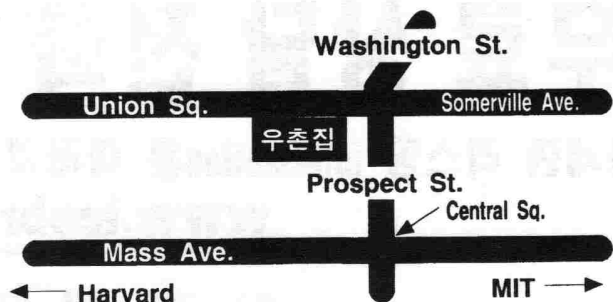
특미 냉면·즉석곱창·낙지전골
왕갈비·해물전골

【 영업시간 】 7일 영업

(월 - 토) 11:30am - 11:00pm

(일요일) 12:00pm - 10:00pm

- 각종 대소연회
- 4-12명까지의 아담한 연회실
- 돌·회갑·생일·잔치음식 주문 받습니다.
- Harvard & MIT에서 약 1마일 반
- 무료주차장 오후 5시 이후(일요일은 무료주차)



Tel.: (617)623-3313 · Fax: (617)623-3439

Union Square. 290 Somerville Ave., Somerville, MA

LEE ASSOCIATES

사업과 부동산 서비스

- ◆ 부동산 (주택, 상업용)
- ◆ 용자 (노인컴 베리피케이션 프로그램)
- ◆ 비즈니스 부로커 (다양한 리스팅이 많음)

보스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것을 확실히 책임지고 결실을 드립니다.



사업, 부동산
무료 상담

무료 상담 전화 (800)867-9000

자세한 리스팅 information은 아래의 인터넷 주소로 보실 수 있습니다.

www.leebrokers.com

이 경 해 (Kay Dong)

239 Fremont St., Taunton, MA 02780

Tel: (508) 880-3535 Fax: (508) 828-1585

김연숙 재정 계획 전문인 (CFP, CMFC)



Yon Kim Corkum, CFP, CMFC
Advanced Planner Group
Master Financial Advisor
(781) 849-0980

자격증

- * 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
- * Chartered Mutual Fund Consultant (CMFC)
- * Series 7 증권 브로커 자격증
- * Series 63 매사추세츠주 증권 법률 자격증
- * Series 65 연방정부 단일 투자 상담가 자격증

등록증

- *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Financial Planning

· 각종 투자와 보험 · 스탁 · 본드 · 뮤추얼 펀드 ·
· 생명보험 · 양로원보험 · 건강보험 ·

미국 경제는 최근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과대 팽창을 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적으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투자 전략을 채택하고 계십니까? 최근 개정 세법을 잘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고 계십니까? 저렴하고 좋은 생명 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질문이 있으시면 재정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실 때입니다.

미국 재정 기획회사 중 선두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회사(고객 2백만명)에서 최상급인 Master Advisor 지위를 획득하고 해박한 투자 지식과 철저한 고객 서비스로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예금 이자를 상회하는 고소득의 수익률 !



Financial
Advisors

**American Express Financial Advisors Inc.
IDS Life Insurance Company**

25 Braintree Hill Office Park Suite 301, P.O.Box 9154
Braintree, MA 02184

Phone: (781)849-0980 Ext.172 Fax:(781)848-3617

E-Mail: Yon.K.Corkum@AEXP.com

